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미하엘 프리브스팅 (RCIT)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By Michael Pröbsting

Published by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미하엘 프리브스팅 지음
노동자혁명당(준) 옮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발행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미하엘 프뢰브스팅 지음

노동자계급 해방투쟁과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발행

Web: www.thecommunists.net

Email: rcit@thecommunists.net

Phone: +43 (0)650 406 83 1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나이지리아, 잠비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예멘, 이스라엘/점령지 팔레스타인, 브라질, 멕시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남한에 지부와 활동가들이 있다. 또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터키에 자매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있다.

©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and Michael Pröbsting

초판 2020년

책과 저자

이 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에서 저자 미하엘 프리브스팅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열어놓은 2020년 봄의 극적인 사건들을 분석한다. 3중의 위기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1929년 대공황 못지않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멸적인 침체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이에 더해 1945년 이래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반민주적 공격 물결이 일고 있다. 이를 도화선으로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 전환과 뉴 리바이어던 식 국가기구의 확대 구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다. 전 세계 지배계급들은 패닉을 확산시켜 경제위기의 자본주의적 원인을 가리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그리고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한다.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은 또 노동운동과 “좌파”의 많은 부분들이 이 3중 위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의 정세와 비슷하게, 우리는 자칭 사회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투항 물결을 보게 된다. 이들 기회주의 좌파는 지배계급이 팬데믹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인민에게 들씌우고 있는 록다운 (봉쇄령)과 민주적 권리 금지를 지지, 또는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은 이 역사적인 위기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계급투쟁을 위한 혁명적 정세전망 및 전략·전술을 정립하고 있다.



저자 미하엘 프리브스팅 (Michael Pröbsting)은 지금까지 37년 넘게 혁명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로 쓴 많은 기사와 논설, 팸플릿의 저자다. 또 현대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노동자운동의 역사, 맑스주의 이론 등의 문제를 다룬 많은 책을 발표했다. 현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RCIT)* 국제서기로 복무하고 있다.

차례

머리말

1. 현 위기의 특수성: 3중 파국

이 팬데믹은 얼마나 위중한가?

부르주아지에게 위협했던 순간: 3차 대공황이 2019년에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과 동시에 시작됐다

지배계급은 어떻게 룩다운 결정에 도달했는가?

세계화 시기의 최종 종언

미 헤게모니의 종언 이후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새로운 단계

2.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이후의 독점과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서의 중국?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

무엇이 “뉴 노멀”이 될까?

예방 반혁명

우리는 반혁명적 공세의 현실성을 과대평가하는가?

3. 뉴 리바이어던 시기 혁명 전략의 근본 원칙

정치 반혁명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전략을 요구한다

팬데믹 때 계급휴전 정치는 공공보건 방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킨다

모험주의인가, 체계적인 준비인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의 해체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 새로운 시기에 맑스주의 전략의 핵심 요소

연속혁명 전략의 현실성

이론과 실천에서 국제주의 없이 혁명적 전략 없다!

4장. 다가오는 계급투쟁 - 혁명적 전술과 슬로건

현 정세와 그것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결과
주 슬로건: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기근과 역병: 레닌과 볼셰비키로부터의 몇 가지 교훈
룩다운의 반동적 반대자들
향후 대중투쟁에서 아군과 적군

5장. 룩다운 좌파: 비판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룩다운 정책의 스탈린주의·좌익개량주의자 집행자들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응원하는 “트로츠키주의” 치어리더들
자본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 혁명적 정치에서는 아니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룩다운에 대한 “노동자 통제”?
사회보나파르트주의: 경제주의와 멘세비즘의 자식
룩다운 조건에 대항하는 자연발생적인 대중행동: 좌파의 리트머스 시험지

6장. 맺음말

부록

<시국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업페물
코로나19와 싸우는 혁명적 행동강령!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저자 소개

머리말

우리는 비상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지금 몇 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네 개의 상호 연관된 사태발전이 결합된 것이다.

1) 3차 대공황, 즉 1929년에 시작한 두 번째 대공황 못지않게 극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멸적인 침체.

2) 1945년 이후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반민주적 공격 물결.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과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3) 코로나19.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팬데믹으로, 지배계급은 이 코로나19를 세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다.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위기의 자본주의적 원인을 덮어 가리고 그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로나19를 써먹고 있다.

4)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노동자운동의 다수 부문을 점하고 있는 개량주의 세력들과 이른바 좌파들의 기회주의적 투항 물결이 크게 일고 있다. 지배계급이 팬데믹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인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록다운(봉쇄)과 민주적 제 권리의 억압을 이들이 전면 지지하거나, 또는 적어도 비난 없이 눈감고 있다.

코로나19를 엄폐물 삼은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전략·전술 모두에 일련의 질문을 제기한다. 이 책자는 혁명적 전사들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기 위해 썼다. 이 책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이래 우리가 발표한 RCIT 문서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RCIT 시국 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이 있다. 이 책자의 부록으로도 실려 있다.)¹⁾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주장과 논거 모두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일련의 쟁점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요한 단서를 달아두는데, 이 책자는 비상한 상황, 즉 역사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서 썼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위기의 초기 단계에 썼다. 따라서 이 책자는 여전히 유동 상태에 있

1)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도 보라. Open Letter: Act Now because History is Happening Now! A call to all revolutionary organizations and activists to join forces against the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under the cover of COVID-19, 26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pen-letter-act-now-because-history-is-happening-now/>. 코로나19 위기에 관해 RCIT가 발표한 모든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에 별도 하위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경제공황에 관한 데이터가 초고를 쓴지 며칠도 안 되어 이미 낡은 데이터가 되어버릴 정도로 현 국면이 유동 상태의 과정이라는 점을 필자는 강력히 의식하고 있다.

이 문서를 지금 쓰지 않고, 그림이 보다 분명해질 몇 달 지나서 쓴다면 확실히 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학술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외부로부터 관찰하고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관여하고 전위투사들에게 오늘의 임무를 위한 분석과 방향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모든 게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격언은 맑스가 그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11번째 테제에서 밝힌 저 유명한 명제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했을 뿐이다.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²⁾

레닌도, 트로츠키도 “일단 실제 전투에 임해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이다”라고 말한 나폴레옹을 인용하길 좋아했다. 이 비상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 그리고 모든 혁명가들의 임무는 현 사태의 본질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앞에 놓인 전투를 위한 전략·전술을 정립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지금* 선을 그어야 하며, *지금*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대항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하며, 모든 게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란 반동적 사태발전이 새로운 불리한 역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임무는 이 과정에 개입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국제 노동자계급·피억압자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책자는 학술적 작업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배계급의 중대한 공세를 파악하고 그에 맞서는 전략을 짜기 위한 시도다. 따라서 이 책자는 또한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해방운동에 복무하는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현 세계정세 격변을 둘러싼 토론·논쟁에 하나의 입장으로 참가,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자가 전 세계 혁명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특히 절실한 것은, 해방투사들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명확한 강령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반혁명이 인류와 인류의 생활조건을 파괴하여 야만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2일

2) Karl Marx: Theses on Feuerbach (1845), in: MECW Vol. 5, p. 5 (강조는 원저자),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5/theses/theses.htm>

1. 현 위기의 특수성: 3중 파국

현 재난을 3중 파국으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1929년과 리바이어던 국가와 팬데믹의 결합(combined) 사건이다. 다시 말해 1929년 이래 최악의 경제 침체,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 동시 전환, 위험한 보건 위기, 이 3개의 복합적인 파국이다. 이 세 위기 간의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팬데믹이 이 세 위기 중 다른 두 위기의 행로를 결정하고 있는 지배적인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이 문제를 보자.

이 팬데믹은 얼마나 위중한가?

얼마나 코로나19는 심각한 질병인가?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 이 질병의 이후 진로에 대해 진단하는 데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질병이 이미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이후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될 위험한 팬데믹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이 코로나19가 현 시대에서 첫 번째 보건 재난도 아니고 근래에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린 유일한 재난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장 에이즈 팬데믹을 떠올려보라. 에이즈가 확인된 때 (1980년대 초)로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3200만 명이 에이즈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379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살고 있었고, 결국 77만 명의 사망자가 났다. 그러나 이 질병은 일차적으로 지구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을 타격한 팬데믹이다. 2560만 명 (전체의 67.5%)의 에이즈 감염자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한편 서유럽과 북미에 살고 있는 감염자는 전체의 5.8%에 불과한 220만 명이다.³⁾

에이즈 팬데믹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는 — 지금까지는 — 일차적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발병했다. 먼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그 다음 서유럽과 미국에서. 그러나 지금도 남반구의 빈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많은 역병들이 있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자기중심 이데올로기에 장단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팬데믹이 가난한 나라들을 덮쳤을 때는 유엔으로부터 악어의 눈물 같은 재정적 빵 부스러기가 던져진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들이 그러한 팬데믹에 직면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동적인 시각을 취하는 좌익들을 사회제국주의적 오만 죄로 비난해야 한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데도 글로벌 섯다운 (경제 폐쇄)은 고사하고 아무 패닉도 자아내지 않은 질병들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그 동안 여럿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260만 명의 사람들이 — 별다른 주목도 못 받은 채로 —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한다.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발병해온 독감 유행병은 매년 전 세계적

3) UNAIDS: FACT SHEET - WORLD AIDS DAY 2019, p.1 and p.5

4) Yanis Roussel, Audrey Giraud-Gatineau, Marie-Therese Jimeno, Jean-Marc Rolain, Christine Zandotti, Philippe Colson, Didier Raoult : SARS-CoV-2: fear versus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microbial Agents (2020), doi: <https://doi.org/10.1016/j.ijantimicag.2020.105947>

으로 29만~65만 명의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 지배계급이 지금과 같은 그 어떤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취한 바 없었다. 대량검사/방역 조치도, 섯다운이나 록다운 같은 것도, 집회·시위 금지도 다 없었다.⁵⁾ 2017/18년 시즌 전체 독감 사망자는 유럽에서만 약 15만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⁶⁾ 2015년에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난 해를 경험했는데, 이는 독감과 함께 극한의 날씨 탓으로 돌려졌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9주 동안 지속된, 특히 혹독한 독감 유행이 65세 이상 노령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24,000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⁷⁾ 미국에서만 2017년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16만201명이 사망하고 암으로 59만9108명이 사망했다.⁸⁾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 자체가 공중보건에 심대한 결과를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자. 영국 의학전문 잡지 <<랜셋>>지가 발표한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 증가는 암 사망률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의 추정으로는 OECD에서만 26만이 넘는 암 관련 사망자가 2008-2010년 경제위기와 관련이 있다.”⁹⁾ 우리는 이 수치가 남반구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나은 보건의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OECD)로 국한하여 추산한 수치임을 지적한다.

스탈린주의의 몰락 이후 러시아가 거친 경험은 훨씬 더 극적인 그림을 만들어낸다. 1990년 대 전반기 동안 러시아 경제는 40%나 쪼그라들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붕괴가 1990년 대에 무려 5백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의 조기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¹⁰⁾

그리고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영국에서 긴축/삭감의 직접적인 결과로 공공보건 정책의 개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13만 명 이상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¹¹⁾

-
- 5)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HO: Up to 650 000 people die of respiratory diseases linked to seasonal flu each year, 14 December 2017 <https://www.who.int/en/news-room/detail/14-12-2017-upto-650-000-people-die-of-respiratory-diseases-linked-to-seasonal-flu-each-year>; Iuliano AD, Roguski KM, Chang HH, Muscatello DJ, Palekar R, Tempia S, et al. Estimates of global seasonal influenza-associated respiratory mortality: a modelling study. *Lancet*. 2018;391:1285-300. Medline:29248255 doi:10.1016/S0140-6736(17)33293-2; Paget J, Spreeuwenberg P, Charu V, et al. Global mortality associated with seasonal influenza epidemics: New burden estimates and predictors from the GLaMOR Project. *J Glob Health*. 2019;9(2):020421. doi:10.7189/jogh.09.020421
- 6) J. Nielsen et al: European all-cause excess and influenza-attributable mortality in the 2017/18 season: should the burden of influenza B be reconsidered? in: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Volume 25, Issue 10 (October 2019), pp. 1266-1276
- 7) Thomas Seymat: Flu and weather made 2015 the deadliest year in France since World War II, 15/02/2016 <https://www.euronews.com/2016/02/15/flu-and-weather-made-2015-the-deadliest-year-in-france-since-world-war-ii>
- 8) Tom J Velk: Are pandemic policymakers blinded by expertise? March 31, 2020 <https://asiatimes.com/2020/03/are-pandemic-policymakers-blinded-by-expertise/>
- 9) “Economic downturns,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cancer mortality in high-income and middle-income countries, 1990-2010: a longitudinal analysis,” Mahiben Maruthappu, Johnathan Watkins, Aisyah Mohd Noor, Callum Williams, Raghbir Ali, Richard Sullivan, Thomas Zeltner, Rifat Atun, *The Lancet*, online May 25, 2016, doi: 10.1016/S0140-6736(16)00577-8, www.thelancet.com, Vol 388 August 13, 2016, p. 694
- 10) James Ciment: Life expectancy of Russian men falls to 58, *BMJ* 1999; 319 doi: <https://doi.org/10.1136/bmj.319.7208.468a> (Published 21 August 1999)
- 11) Toby Helm: Austerity to blame for 130,000 ‘preventable’ UK deaths - report, 1 June

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하부호흡기감염증, 그리고 암 — 기도암, 기관지암, 폐암 — 이 세계 3대 사망 원인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선 안 된다. 이 질병들의 많은 사례가 대기 오염과 만성 흡연이라는 두 가지 인공적인 요인을 원인 또는 부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0만 명이다.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매년 약 8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¹²⁾

이 경우들은, 팬데믹이나 그 밖에 건강상의 위협으로 인한 많은 수의 사망이 지금까지 있어 왔음에도 지배계급이 이에 대해 그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취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지 한 두 가지 예일 뿐이다. 이는 현재의 글로벌 록다운 실시의 일차적 동기가 지배계급이 공공보건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말해준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질병이고 현재까지는 백신이 없다는.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권력집단에게도 — 대통령·총리와 그 가족 및 보좌관들에게까지도 — 영향을 미친다는. 맞다. 코로나19 팬데믹이 — 현재까지 다른 팬데믹들보다 희생자가 더 적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 제국주의 나라의 지배계급에게서 많은 패닉을 낳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WHO, UN 등등 글로벌 기구들이 모두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그 글로벌 기구들을 지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들 제국주의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왜 현 팬데믹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글로벌 위기로 규정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준다. “코로나19는 유엔 설립 이후 우리가 함께 직면했던 것 중 최대의 시험대다.” 반복하건대,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는 다른 팬데믹들보다 훨씬 더 적다!¹³⁾

이 팬데믹이 노동자계급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이 패닉에 빠지고 있는 것일까? 즉 이 대 유행병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그리하여 이윤의 기초가 되는 노동인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이 당황해하는 것일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이기 때문이다. WHO 유럽지부 대표 한스 클루게 박사는 최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 대륙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60세가 넘는 환자다. 전체 사망자의 50% 이상이 80세가 넘는 노인들이었다. 또 10명 중 8명의 사망자가 하나 이상의 기저 동반질환을 가진, 특히 심혈관 질환/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만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통해 알고 있다.”¹⁴⁾

이것은 또한 유럽이 이 팬데믹으로 특히 강한 고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클루게 박사에 따르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0개국 중 한 나라 (일본)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jun/01/perfect-storm-austerity-behind-130000-deaths-uk-ippr-report>

12) Pitamber Kaushik: Recessions, longevity and the Covid-19 ‘sweet spot’, 11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recessions-longevity-and-the-covid-19-sweet-spot/>

13) U.N. warns of ‘dire’ effects of coronavirus, ‘greatest test’ since WWII, 1 April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n/u-n-warns-of-dire-effects-of-coronavirus-greatest-test-since-wwii-idUSKBN21J6EJ>

14) Dr Hans Henri P. Kluge (WHO Regional Director for Europe): Statement - Older people are at highest risk from COVID-19, but all must act to prevent community spread, Copenhagen, 2 April 2020,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statements/statement-older-people-are-at-highest-risk-from-covid-19,-but-all-must-act-to-prevent-community-spread>

리 유럽 회원국들이다. 이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유럽 회원국들이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윤 논리상 연금제도에 큰 부담만 줄 뿐인 노년층이 죽어가고 있어서 부르주아지가 패닉 단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이상한 얘기일 것이다.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남반구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굶주림과 질병, 전쟁으로 인해 매년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결코 신경 쓴 적이 없다! 그런 그들이 왜 지금은 갑자기 신경 써야하겠는가?!

우리가 이 팬데믹이 이후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감 유행병이 2017/18시즌 유럽에서만 1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첫 번째 물결에서 유럽이 그 비슷한 수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전체의 사망자가 151,680명으로, 그 중 영국이 6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가장 타격이 컸다).¹⁵⁾ 이 팬데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사태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지배계급이, 매년 유행하는 독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두세 배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 경제 붕괴를 감수하고서 기꺼이 대대적인 섣다운을 한 것으로 믿는다면 이는 얼토당토 않는 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일련의 문서들에서 되풀이하여 지적했듯이, 지배계급이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적용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방법이 특별히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자국 주민을 록다운 하에 처넣고 있는 나라들 — 이탈리아나 스페인 —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대조적으로 자국 주민을 록다운 하에 처넣지 않고 무상 대량검사를 실시한 한국 같은 나라들은 팬데믹과의 전투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이것이 더더욱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라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첫 번째 나라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에 대한 어떠한 대량봉쇄 없이도 사망자 수 증가를 억제한 나라들이 한국 외에도 또 있다.

그 동안의 모든 경험은 무상 대량검사가 팬데믹과 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국주의 정부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미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으로 검사를 제한했다. 여러 유럽 나라들은 심지어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는 한국이나 중국의 제안을 오랫동안 거절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어이없게도 지난 3월말에 대량검사는 “유용하지 않다”고 천명했다.¹⁶⁾

게다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가 한편으론 사람들에게 사회적 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집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는 비필수적 생산을 계속 돌리도록 강요한다면 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자본가 정부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논리는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록다운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들은 주민에 대한 대량검사를 시행하고 새로 병원과 중환자실을 건설하는 데 몇 주간의 록다운 기간을 활용했을

15) COVID-19: What's New for April 7, 2020, <http://www.healthdata.org/covid/updates>; see also AFP: Britain set for 66,000 COVID-19 deaths, most in Europe: study, 07/04/2020 <https://www.france24.com/en/20200407-britain-set-for-66-000-covid-19-deaths-most-in-europe-study>

16) ORF: Flächendeckende CoV-Tests „nicht sinnvoll“, 23 March 2020, <https://orf.at/stories/3159019/>

것이다. 또 보건의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급여를 인상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열흘 안에 병원이 건설될 수 있음을 우리는 1월말 우한에서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는가? 자본가 정부들 일반은 최근 몇 주, 몇 달을 보건의로 부문에 대한 그러한 대대적인 투자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록다운이 시간 벌기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핑계일 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모든 사실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제국주의 정부들의 결정에서 일차적인 동기가 아니며, 지금까지 일차적인 동기였던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팬데믹 자체가 지배계급에 의한 글로벌 록다운과 자본주의 경제 쇠퇴의 주 원인이라고 가정할 어떤 이유도 없다. 과거 유행병 사망자 수에 비할 때 “단지” 그 일부만이 사망했을 뿐인 시점에 이미 지배계급이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글로벌 쇠퇴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부르주아지에게 위협했던 순간: 3차 대공황이 2019년에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과 동시에 시작됐다

코로나19 위기에 관한 문서에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출현한 시점이 세계정치가 중대한 전환점을 거치던 시점이었음을 규명했다. 2019년 하반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태발전이 일어났는데, 첫째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가장 극심한 침체가 시작됐다. 둘째, 글로벌 계급투쟁·민중항쟁 물결이 거의 모든 대륙을 휩쓸었다.

우리는 여러 성명과 기사 속에서 이 투쟁들을 분석해왔으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¹⁷⁾ 다만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아 취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혁명 공세가 결국 이 투쟁들 거의 모두를 종식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콩, 인도, 이라크, 칠레, 프랑스, 카탈루냐를 비롯한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최근 몇 주 동안 후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렸다.

또 우리는 여러 문서에서 현 대공황의 개막을 분석했다.¹⁸⁾ 우리는 이제 지난해의 자본주의

17) 이 사건들에 대한 개괄과 성격규정으로는, 개별 나라들에 관한 관련 성명 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Chapter “Another Great Recession has begun”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세계경제 발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상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몇 개의 수치를 추가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겠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19년 3~5월에 세계 산업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이 지역마다 불균등한 것은 분명하다. 서방의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미 2019년에 불황에 들어갔다. 미국이 서유럽과 일본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도 그러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도 주춤거렸다. 중국은 일정한 성장동력을 지속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요국이었다. (표 1과 2 참조). 여기서는 중국의 공식 수치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 많은 평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성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일단 접어둔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거대한 부채 폭발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이었다. 실제로 부채 수준은 2008년 이래 어느 다른 주요 자본주의국보다도 중국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저명한 싱크탱크인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는 2008년 4분기 GDP의 171%에서 2018년 1분기 299%로 급증했다.¹⁹⁾

표 1. 세계 산업생산, 2017-2019년²⁰⁾

	2017	2018	2019
세계	3.6	3.1	0.8
선진경제국	3.1	2.4	-0.3
미국	2.3	3.9	0.9
일본	2.6	1.0	-2.4
유로지역	3.1	0.9	-1.7
기타 선진경제국	4.3	3.0	0.9
신흥경제국	4.0	3.7	1.8
중국	6.5	6.2	5.8
아시아 (중국 제외)	4.2	3.8	0.1
동유럽 / CIS	3.2	2.9	2.1
라틴아메리카	-0.7	-2.2	-5.0
아프리카 및 중동	0.7	1.0	-3.2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19) Cary Springfield: How Much of a Concern Is China's Debt Problem? International Banker, April 29, 2019 <https://internationalbanker.com/banking/how-much-of-a-concern-is-chinas-debt-problem/>

20)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January 2020, 25.3.2020, p. 5

표 2. 2017-19년 미국 제조업(%)²¹⁾

2017	연간		2019년 (각 분기)			
	2018	2019	Q1	Q2	Q3	Q4
2.0	2.3	-0.2	-1.8	-3.3	0.7	-0.6

표 3. 세계 상품교역, 비율 변화²²⁾

(가격 / 단위 가치: 미 달러화)

2017	2018	2019
5.9	6.1	-2.6

이러한 부채 증가는 그 이후 계속되어, 2019년 3분기까지 중국의 부채는 이미 GDP의 310%에 육박했다.²³⁾ 이러한 부채 폭발이 특히 중국 자본주의 기업들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금융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53%로 쉼 없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IIF는 중국이 세계 비금융 기업 부채를 밀어 올리는 주요 동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채권 디폴트 (채무불이행)도 2018/2019년에 기록을 갈아치웠다.²⁴⁾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동력 쇠퇴기에 빠져들었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들어가는 같은 그림을 세계무역 감소를 나타내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3 참조)

지난 RCIT <세계 정세전망> 문서에서 밝혔듯이, 이 공황의 시작은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과 결합하여 2019년 가을에 **준 혁명적 세계정세**를 열어젖혔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다. 지배계급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다며 록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를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반혁명적 공세를 펴기 위한 엄폐물로 코로나19가 사용된 것이다. 새롭게 열린 **준 혁명적 세계정세**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지배계급들에게 위협했던 순간에 말이다. 말하자면 대공황 개시와 결합된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이

21) FRB: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17.03.2020, p. 14; Quarterly percentage changes are at annual rates.

22)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January 2020, 25.3.2020, p. 3

23) IIF: Global Debt Monitor Sustainability Matters, January 13, 2020, p. 2

24) Cary Huang: Coronavirus has lit the fuse on a time bomb in China's economy: debt, South China Morning Post, 5 April 2020, <https://www.scmp.com/week-asia/opinion/article/3078018/coronavirus-has-lit-fuse-time-bomb-chinas-economy-debt>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코로나19를 반혁명 공세를 펴기 위한 업페물로 삼게 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본계급은 많은 사업장 섯다운으로 공황이 고조될 위험도 감수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착각에 빠져, 이것이 골이 깊지만 짧은 불황이기를, 즉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V자 불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단기간의 위험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었다. 물론 이것은 진지한 과학이기는 희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계급의 정세전망을 반영한다.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단호한 정치적 개입 (“외생적 충격”)과 글로벌 섯다운에 의해, 그리고 그와 함께 전격적인 긴축 공격과 자본가들을 위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이와 같은, 골이 깊지만 짧은 불황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지배계급이 경제를 섯다운 하는 그 같은 위험을 불사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다. 지배계급은 이 소위 짧은 기간을, 노동자·민중을 겨냥한 충격과 공포(shock-and-awe) 공격 — 2차 세계대전의 언어로는 전격전 — 을 감행하고 훨씬 더 유리한 역관계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 활용하길 희망한다.

이러한 어리석은 낙관론에 대한 많은 예들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걸쳐 250명의 경제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국 옥스포드 경제연구소의 예측을 인용해보겠다. “단기적인 전망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고, 통화·재정 부양책이 재량지출의 재개와 결합되면 경기 반등이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 역사적 경험에 부합되게 — 믿는다.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업은 2020년까지의 강력한 종료와 2021년까지의 시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성장률은 연간 기준으로 5.3% 상승하고, 내년 전체로는 평균 4.4% 상승할 것이다.”²⁵⁾

역사는 이런 같잖은 성명에 대해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은 그 같은 헛소리를 퍼뜨린 것으로 적지 않은 보수까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경제에 관한 지난 문서들에서 강조했듯이 제국주의 기업과 국가는 2008/09년의 지난 공황 이전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이미 현 공황이 시작되기 전에 그랬다. 국제금융연구소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2019년 3분기 세계 부채가 253조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 정부, 금융·비금융 기업 부문의 총 부채는 2019년 첫 세 분기 동안에 9조 달러 가량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3조5000억 달러)와 비금융기업(+3조 달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22%를 넘어서는 데 일조했다.”²⁶⁾

이 점은 정부와 함께 특히 비금융 기업에서 그러한데, 국제금융연구소는 또 다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업 부채는 이미 수익에 비해 매우 높고 수익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 75조 달러에 육박하며 급증하고 있는 세계 기업부채는 세계 GDP의 약 93%에 달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75%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²⁷⁾

이 모든 것에 더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현 경제 붕괴 기간 동안 자본가들을 구하기 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거대한 신규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한 미국 경제학자는 연간 생산액의 거의 11%에 달하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트럼프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의 4조 달러 규모의 각종 재정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경제학자는 “차입된 돈과 인쇄된 돈의 총액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의 연간 GDP 총액의 약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²⁸⁾

25) Oxford Economics: World Economic Prospects March 2020 2nd Update, Executive Summary, p. 2

26) IIF: Global Debt Monitor Sustainability Matters, January 13, 2020, p. 1

27) IIF Weekly Insight: COVID-19 infects corporate debt markets, March 12th, 2020

28) Tom J Velk: Are pandemic policymakers blinded by expertise? March 31, 2020 <https://asiatimes.com/2020/03/are-pandemic-policymakers-blinded-by-expertise/>

대부분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막대한 추가 공적 부채가 쌓여가는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GDP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비상 플랜을 얼마 전 결정했다. 다른 정부들의 비상 대책은 이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매우 큰 규모다. 호주는 GDP의 약 9.7%, 캐나다는 8.4%, 독일은 4.9%, 프랑스는 2%를 지출하고 있다.²⁹⁾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계산이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 글이 발표될 때는 이미 낮은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 경제학자들은 전 세계 정부들이 채택한 재정 비상 프로그램들이 세계 GDP의 약 8%인 7조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추정한다!³⁰⁾

물론 경제활동이 무한정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1929-33년의 공황도 어느 순간에는 끝났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기술한 대로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황은 짧지 않고 길 것이며 경기상승이 있어도 얇은 회복에 불과할 뿐 강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난 공황에서 이미 보았다. 우리가 거듭 강조했듯이 2008/09년 이후의 지난 마지막 경기순환 상승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약했다. 다음 상승은 부채 액수가 훨씬 더 커진 기초 위에서, 그리고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보호주의적 국경들로 분단된 상태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다.³¹⁾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 세계경제 붕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라 이런 부진한 회복조차도 요원하다.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붕괴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매주 자신의 예측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공황이

29) William Pesek: Japan's \$1 trillion stimulus misfire, 8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japans-1-trillion-stimulus-too-little-too-late/>

30) Kristalina Georgieva (IMF Managing Director): Confronting the Crisis: Priorities for the Global Economy, April 9, 20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07/sp040920-SMs2020-Curtain-Raiser>

31) 2008/09년 대침체 이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Chapter III),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Michael Pröbsting: The Latest Stock Market Panic, 8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ock-market-panic-february-2018/>;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Chapter 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5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and II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nd Perspectives Ahead (January 2015),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3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Michael Pröbsting: World economy - heading to a new upswing? in: Fifth International, Volume 3, No. 3, Autumn 200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economy-crisis-2009/>;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1929-33년의 위기 못지않게 극적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현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록다운으로 인해 매달 2% 씩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ECD의 최근 평가도 그와 같다. “셋다운의 영향이 단기 성장 전망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엄격한 봉쇄 조치가 지속될 시 생산량 감소 추정치는 연간 GDP 성장률이 달마다 최대 2% 포인트 씩 하락하는 수준일 것이다. 상쇄 요인이 없는 조건에서 셋다운이 3개월 동안 지속되면 연간 GDP 성장률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4~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³²⁾

JP모건체이스은행은 이미 1·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 투자은행은 이제 미국의 실질 GDP가 1분기에 -10% 감소하고 2분기에는 추가로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³⁾ 불과 3주 만에 무려 1,680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 명단에 올랐다.³⁴⁾ 연준 정책 입안자 제임스 불라드는 실업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1929-33년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극적이다! 이 기간에 미국의 실업률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24.9%였다.³⁵⁾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더 비관적인 예측도 있다. “모건스탠리은행은 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5% 감소해 1946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분기에는 38%라는 눈물 나는 수축이 예상된다. 모건스탠리은행은 영국이 단기적으로 1930년대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³⁶⁾

마찬가지로, 유로 지역 경제도 연간 10%씩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⁷⁾

2008-09년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공황은 제2의 제국주의 경제국인 중국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에 따르면 “2020년 첫 두 달 동안 중국 공업기업의 수익이 1년 전보다 38.3% 급감하였는데, 이 사상 최대의 하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다.”³⁸⁾ 중국에서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위협하게 하고 있다. 2월 도시 실업률은 2018년 4월 4.9%에 비해 사상 최대인 6.2%로 뛰어올랐다.³⁹⁾

하지만 이것들은 공식 수치일 뿐이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는 도시 노동인력(4억4200만 명)

32) OECD: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27 March 2020, p. 1

33) JPMorgan further lowers U.S. growth forecast for Q1, Q2 -report, March 28,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gdp-jp-morgan-idUSL1N2BL0B4>

34) Michelle R. Smith, Christopher Rugaber and Marina Villeneuve: 16.8M Americans thrown out of work as economic toll rises, 9 April 2020, <https://apnews.com/c06a37220e461922c61bdf18c3a20c3e>

35) Kimberly Amadeo: Unemployment Rate by Year Since 1929 Compared to Inflation and GDP, <https://www.thebalance.com/unemployment-rate-by-year-3305506>

36) Cate Cadell, Lisa Shumaker: With over a million coronavirus cases, economic freefall looms, April 2,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with-over-a-million-coronavirus-cases-economic-freefall-looms-idUSKBN21K38K>

37) Europe midday: Stocks slip as service sector surveys point to sharp GDP fall, 3 April 2020, <https://www.sharecast.com/news/market-report-europe/europe-midday-stocks-slip-as-service-sector-surveys-point-to-sharp-gdp-fall--7414895.html>

38) Orange Wang: Coronavirus: China's industrial firms' profits plummeted almost 40 per cent at start of 2020, South China Morning Post, 27 March,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77232/coronavirus-chinas-industrial-firms-profits-plummeted-almost>

39) Gordon Watts: China fears scourge of unemployment, Asia Times, April 2, 2020 <https://asiatimes.com/2020/04/china-fears-scurge-of-unemployment/>

만 포괄할 뿐, 경제 변동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이주노동자 2억9000만 명은 제외한다. 펀드매니저 업라이트 에셋의 류천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2억5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마찰적 실업”에 내몰렸을 수도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수치는 중국의 7억7천5백만 인력의 4분의 1 이상을 의미할 것이며, 정부 통계가 제시하고 있는 6.2퍼센트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⁴⁰⁾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비슷한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내린 21일간의 계엄령 식 록다운이 4억7천1백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중 19%만이 사회보장 우산 아래 있을 뿐, 3분의 2가 정식 고용계약이 없으며, 최소 1억 명이 이주노동자다. 그 중 많은 수가 인구 밀집 도시에서 황급히 도주하는 모양새로 고향마을로 돌려보내졌다. 논평가들이 말하기를,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할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⁴¹⁾

이러한 사태발전의 결과로 세계경제는 역대 급 침체의 한가운데에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유로 지역이 사상 최악의 연이은 분기 후퇴를 겪으면서 상반기에 세계경제가 전년 대비 2% 가까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골드만 삭스는 유로 지역 경제가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 분기 대비 11% 이상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⁴²⁾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비용이 4조1000억 달러, 즉 세계 GDP의 5%에 육박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⁴³⁾

이 모든 것이 세계무역의 전면적인 붕괴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절망과 당혹감 속에서 보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라. “트레이드시프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3월 8일 이후, 전 세계 기업 간 거래가 눈물 나게 62%나 감소했다.”⁴⁴⁾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예측에서 2020년 세계 상품 교역량이 최소 -12.9%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최대 -31.9% (“비관적 시나리오”)로 대폭락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⁴⁵⁾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현 공황의 역대 급 측면을 잘 짚고 있다. “코로나19발 세계경제 쇼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지어는 1929년 대공황보다 더 빠르면서도 더 심각하다. 이 앞서의 두 공황에서는 주식시장이 50% 이상 붕락하고,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대량도산이 뒤따랐고, 실업률이 10% 이상 치솟았으며, GDP는 연 10% 이상의 비율로 수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 3년

40) Frank Tang: Coronavirus: China's unemployment crisis mounts, but nobody knows true number of jobless, 3 April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78251/coronavirus-chinas-unemployment-crisis-mounts-nobody-knows>

41) Adam Tooze: The Normal Economy Is Never Coming Back, Foreign Policy, 9 April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09/unemployment-coronavirus-pandemic-normal-economy-is-never-coming-back/>

42) Fergal O'Brien: Global Economy Crashes on Mass Coronavirus Business Shutdowns, Bloomberg, 24.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4/europe-dragged-into-record-recession-in-battle-to-halt-virus?srnd=premium-europe>

43) Bloomberg: Coronavirus could slash global GDP output by almost 5 per cent amid 'severe financial turmoil', ADB says, 3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3/global-cost-of-coronavirus-could-reach-4-1-trillion-adb-says>

44) Liquidity Crisis Looms, as Tradeshift Reports 62% Drop in Global Trade Transactions, 17 March 2020 <https://www.cbronline.com/news/business-to-business-transactions-tradeshift-data>

45) WTO: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Press Release, 8 April 2020, p. 9

가량 걸렸다. 현 위기에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에서 비슷한 심각한 결과가 3주 만에 현실화되었다.”⁴⁶⁾

다른 경제학자들은 현 사태를 “물리적 자산 파괴가 없는 전쟁 같은 시나리오”로 성격규정한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 세대 내 세계경제의 가장 돌발적이고 심각한 충격이 국제무역 중심 허브를 비롯한 그 밖의 허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대침체, 2001년 9.11 테러, 1973년 오일쇼크 등 이들 현대의 위기 중 어느 것도 코로나19 질병만큼 빠르고 급격히 무역 흐름을 위축시키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도 이런 돌발적인 경제 폭락을 가져오진 않았다. 이 갑작스런 경제 대란은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있고, 또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에 복종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가장 복적거리는 도시들을 거의 적막강산으로 만들고 있다. 로버트 콕먼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물리적 자산 파괴가 없는 전쟁 같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⁴⁷⁾

경제학자 아담 토제는 “정상경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적나라한 제목을 단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총동은 역사적 유사성을 찾는 것이었다. 1914년, 1929년, 1941년? 몇 주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전면에 떠오른 것은, 우리가 거치고 있는 이 쇼크가 유례가 없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쇼크라는 사실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결과로, 미국 경제는 4분의 1이나 축소될 것으로 지금 널리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1929-33년 대공황 때 수준이다. 그러나 1929년 이후의 수축이 4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 데 반해 코로나바이러스 내파는 다음 3개월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급속히 추락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태양 아래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그것도 소름끼치는 새로운 것이 있다.”⁴⁸⁾

요컨대, 우리가 3차 대공황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873-96년의 1차 대공황과 1929-39년의 2차 대공황에 이어서 말이다.

지배계급은 어떻게 록다운 결정에 도달했는가?

당연히 우리는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앞에서 말했듯이, 지배계급의 의사결정에서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던 것은 2019년 하

46) Nouriel Roubini: A Greater Depression? Mar 24, 2020,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oronavirus-greater-great-depression-by-nouriel-roubini-2020-03>

47) Bryce Baschuk: World Trade Hit by Virus Sees Worst Collapse in a Generation, Bloomberg, 26.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6/world-trade-rocked-by-virus-sees-worst-collapse-in-a-generation>

48) Adam Tooze: The Normal Economy Is Never Coming Back, Foreign Policy, 9 April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09/unemployment-coronavirus-pandemic-normal-economy-is-never-coming-back/>

49) Michael Pröbsting: COVID-19 Crisis: When Bourgeois Sources Reveal the Truth. On the plans and motivations of the ruling classes behind the global mass lock down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tic rights, 3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crisis-when-bourgeois-sources-reveal-the-truth/> [코로나 정국: 부르주아 소식통들이 진실을 누설할 때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risis-when-bourgeois-sources-reveal-the-truth/>]

반기에 (막 시작된) 공황과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이 결합한 기초 위에서 펼쳐진 극적인 세계 정세였다. 많은 나라의 지배계급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도록 — 더 나은 표현으로는, 써먹도록 — 등 떠민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음모”의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즉 전 세계적인 반민주적 공격을 퍼는 데서 협력 조정을 위한 강대국들 간의 비밀 협약 같은 것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 위기에서 부르주아지는 오히려 더듬거렸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배층 내부의 좀더 영리한 부분들 (즉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같은 어릿광대들이 아닌)은 곧 이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식했다. 주도적 대국 중국이 확실히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주요 공업도시 우한에서 처음 출현했다.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계엄령 식 조치들을 배치하고 후베이 등지의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해 록다운을 내렸다. 정권이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억제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가능했다). 동시에 인민을 통제 아래 묶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정권이 최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에서 정권에 더더욱 중요했다. 반년여 동안 정권은 전 세계가 바짝 그 추이를 좇은 홍콩에서의 준 혁명 사태를 경험했다.⁵⁰⁾ 이것은 명백히 정권에 걱정스러운 사태전개였다. 이 홍콩의 예가 다른 도시의 중국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무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정권의 이 같은 두려움은 2019년 여름 우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보여주듯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⁵¹⁾

50) 홍콩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Solidarity with the General Strike in Hong Kong!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s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in Beijing prepares a brutal crackdown! 0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0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China: Mass Protests against Reactionary “Extradition Law” in Hong Kong.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to kill the bill and to bring down the Administration of Carrie Lam! 18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51) 2019년 여름 우한에서의 항의시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Corona Pandemic is not the Problem but only a Symptom of the Decay of the Capitalist System. What can we learn from China? 27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covid-19-and-decay-of-capitalism/>; Kendra Brock: Environmental Protest Breaks out in China’s Wuhan City, July 04, 2019 <https://thediplomat.com/2019/07/environmental-protest-breaks-out-in-chinas-wuhan-city/>; Keith Bradsher: Protests Over Incinerator Rattle Officials in Chinese City, July 5, 2019 <https://www.nytimes.com/2019/07/05/world/asia/wuhan-china-protests.html>; Thousands Protest Waste Incinerator Plans in China’s Wuhan, 4.7.2019,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wuhan-protest-07042019141304.html>; Robyn Dixon: First Hong Kong protested. Now it’s Wuhan, China. What makes it Beijing’s latest

베이징 정권이 계속해서 주민을 통제 하에 묶어놓을 수 있을지 아직은 더 봐야 한다. 3월 27일 후베이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동은 이 상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²⁾ 그러나 현재로선 시진핑 정권과 정권의 독재적인 방법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공으로 “중국식 방법”이 여타 자본가 정부들과 재계 리더들 —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의 정부들 및 재계 리더들을 포함하여 — 에게 모델로 되기까지 했다.

실생활에서는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선택지 — 즉 코로나19 사태가 지배자들에 의한 완전한 음모의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지배자들이 완전히 놀란 상태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 만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주, 그 둘 — 계획과 허 찔리기 — 의 혼란스런 조합이 일어난다.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계획한 정부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강대국의 지도층들은 군사 계획과 동원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예상했고, 그들의 힘을 증강하고 그들의 적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사라예보의 충격이 있는 후인 1914년 여름까지도 그 같은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적극적으로 앞당긴 사람들 — 베를린과 비엔나의 군 총사령부 — 은 전쟁을 보다 적은 수의 적들에게로 국한하길 희망했다. 그리고 대살육의 시작 이후에도, 모두가 1914년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다시피, 상황은 꽤나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다.⁵³⁾

현 상황과 일정한 유사점이 있다. 올해 초에 누구도 글로벌 록다운과 세계경제 급락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이 세계경제의 상태와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 둘 다에 대해 걱정했다. 게다가, 어떻게 팬데믹에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이 존재했다. 최근 발표된 알메디나 귀니치 동지의 기사에서 보듯,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러한 팬데믹에 대해 꽤 정확한 예측을 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구들은 지배계급들이 그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념을 개발했다.⁵⁴⁾

headache? Jul 05, 2019, <https://www.latimes.com/world/la-fg-china-protests-wuhan-environment-20190704-story.html>

52) 최근 후베이에서의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ina: Solidarity with the Mass Protests in Hubei! Thousands of Chinese workers clash with the police in protest against the state repression under the cover of COVID-19, 28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olidarity-with-the-mass-protests-in-hubei/> [중국 후베이성의 대중시위에 연대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mass-protests-in-hubei/>]

53) 1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관해서는 광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아주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책으로는 다음을 보라. James Joll: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House, New York 1984; 다음 책들도 보라. Fritz Fischer: Germany's Aims In The First World War, W. W. Norton & Company, 1967; Christopher M. Clark: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Allen Lane, London 2012; Sean McMeekin: July 1914: Countdown to War, Basic Books, New York 2013; Karl-Heinz Schlarp: Ursachen und Entstehung des Ersten Weltkrieges im Lichte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Alfred Metzner Verlag, Hamburg 1971; Die deutschen Dokumente zum Kriegsausbruch. Vollständige Sammlung der von Karl Kautsky zusammengestellten amtlichen Aktenstücke mit einigen Ergänzungen; Im Auftrage des Auswärtigen Amtes nach gemeinsamer Durchsicht mit Karl Kautsky herausgegeben von Graf Max Montgelas und Prof. Walter Schücking,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Geschichte m.b.H., Charlottenburg 1919, Vol. 1-5

그리고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9년 10월 뉴욕에서 조직한 팬데믹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었다. 악명 높은 “이벤트 201” 말이다. 이 가상 시뮬레이션에서는 ‘캡스’ (CAPS; Coronavirus Associated Pulmulum Syndrome)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 3개월 만에 이 가상의 질병은 3만 개의 질병과 2천 명의 사망자를 낳는다. 이 시나리오는 6천5백만 명이 사망하면서 18개월 만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⁴⁾ 그리고 <<포린 폴리시>>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 사태 직후, CIA는 이미 올해 1월에 팬데믹에 대해 경고했다.⁵⁶⁾ 요컨대 지배계급이 이러한 사태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지배계급 내에 그런 팬데믹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팬데믹이 일어나자 지배계급 내 보다 긴 시야를 가진 부분들은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 최악의 위기 시기에 반혁명적 공세를 펼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들은 그것을 협력 조정해서 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그것이 효과를 거두자 기회를 알아채고 이어서 글로벌 연쇄반응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주아지 가운데 패닉 상태에 빠진 부분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기 계급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상황에서 이 점은 특히 유의미한데, 왜냐하면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최초 감염자들 중에 엘리트층과 상류층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른 나라로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제이슨 보비엔 글로벌 보건·개발 통신원과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가르시아 나바로: 이 병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글로벌 확산이 사회의 특정 계층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 유람선을 탄 사람들 말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죠. 내 말은, 단지 그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보비엔: 맞습니다.

가르시아 나바로: 그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보비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1월 하순 프랑스의 스키 리조트에 있던 이들 21명의 사람들 중 일부가 유럽에서 첫 번째 주요 감염자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프랑스에 바이러스를 가져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 그룹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영국으로 갔고 일부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프랑스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들 21명 중 13명이

54) Almedina Gunić: How could WHO and World Bank exactly predict COVID-19? The shady role of the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26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how-could-who-and-world-bank-exactly-predict-covid-19/>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dam K. Raymond: Experts Simulated a Coronavirus Pandemic Last Year and It Killed 65 Million, 27.2.2020,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2/a-simulated-coronavirus-pandemic-in-2019-killed-65-million.html>

56) Micah Zenko: The Coronavirus Is the Worst Intelligence Failure in U.S. History. It's more glaring than Pearl Harbor and 9/11—and it's all the fault of Donald Trump's leadership, Foreign Policy, 25 March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3/25/coronavirus-worst-intelligence-failure-us-history-covid-19/>

양성반응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크루즈선에는 이런 다른 감염자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크루즈선이 전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크루즈를 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처분소득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발병 초기에 나는 홍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바로 첫 발병 사례들 중 일부는 포시즌스 호텔과 W 호텔에서 나왔는데... 이 호텔들은 홍콩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많은 발병 사례가 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일차적으로 유럽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발병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시아 나바로: 하지만 크루즈를 타거나 해외 휴가를 갈 수 있는 중상류층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보비엔: 네.

가르시아 나바로: 정말 놀랍군요. 정치인, 스포츠 스타, 배우 등 진짜 사회엘리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네요.⁵⁷⁾

우리가 “유명인사”와 부유층의 감염 얘기를 더 많이 듣는 또 다른 이유는 검사를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이들이 자기 돈을 들여 검사를 받고 더 나은 개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의 혼돈스런 글로벌 상황을 초래한 사건들은 패닉과 “음모”와 억압과 경제공황의 혼합물이다.

또 다른 논리를 보자. 많은 사람들 — 이른바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 이 자본가 정부가 일차적으로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와 록다운을 내리는 결정을 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프로이센 군사 이론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는 유명한 말로 모든 군사적 충돌의 본질을 요약한 바 있다.⁵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V.I. 레닌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던 이 명제는 보건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보건 정치가 다른 수단에 의한 일반 정치의 계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부르주아지의 보건 정책은 여타 분야의 정책들과 다른 특별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는커녕 지배계급의 일반 전략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배계급이 개시한 정치 반혁명 공세는 권력을 유지하고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오랜 정치의 계속이다. 그들은 현재의 비상한 상황 (2019년 하반기에 3차 대공황의 시작과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 그리고 2020년 1월 이래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춰 이 전략을 조절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세계화 시기의 최종 종언

현 3중 위기의 극적인 사태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 시기의

57) Jason Beaubien: COVID-19's Global Spread Among The Relatively Rich Has Been Remarkable, 14 March 2020, <https://www.npr.org/2020/03/15/815828858/coronavirus-and-the-rich-beaubien>

58)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1832), Hamburg 1963, p. 22; 영어본: Carl von Clausewitz: On War, <http://www.gutenberg.org/files/1946/1946-h/1946-h.htm>

최종 종말을 고한다. 이것 역시 놀랄 게 없다. 지난 몇 년간 RCIT는 자본주의 세계화 체제가 깊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 <세계 정세전망 2017년>을 비롯한 그 밖의 문서들에서 우리는 “세계화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⁵⁹⁾ 이 끝이 이제 확실히 왔다.

세계무역의 붕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경통제 실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으로 지난 세계무역전쟁 2년 동안 인상된 보호주의 관세 등 이러한 요인들이 세계화의 시기가 끝났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발전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에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 가속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들이다. 파이는 작아지고 모든 선수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더 빠르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국가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 경제 침체와 치솟는 실업률, 팬데믹 등의 결과로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해 — 이 또한 무역과 자본 흐름에 대한 국가 통제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 시기의 종언이라고 해서 보호주의적 아우타르키(자급자족 경제)로 전면 퇴각하고 세계무역이 종식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일국 시장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력이 대대적으로 발달해버린 현 단계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후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 예측했듯이, 세계시장의 붕괴는 그러한 전면 후퇴보다는 이 또는 저 강대국이 지배하는 더 큰 블록의 창출을 촉발시키는 쪽일 것이다.⁶⁰⁾

세계화 종식의 중요한 경제적 결과 하나는 상품 가격의 대대적인 상승일 것이다. 즉 세계화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억제되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세계경제의 중심 특징이 될 것이다. 노동자와 도시·농촌 빈곤층의 임금 인상, 물가 통제 등을 위한 투쟁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과거에 지적했듯이, 이러한 세계화 시기의 종언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미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다. 19세기 말에 세계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투자와 함께 무역도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그 고점은 1차 세계대전 발발이 첫 번째 세계화 시기를 종식시킨 1913년에 있었다. 두 번째 세계화 시기 — 지금 종말을 고하는 — 는 199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기 세계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예로 이 시기 세계무역의 성장을 들

59)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60)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예측했다. 우리의 책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에서 제시했듯이, 세계화 과정은 “세계화 = 국제화 + 독점 강화”라는 정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대한 액수의 축적된 자본, 생산력 발전 등은 명확히 세계시장을 요구한다. 아우타르키로의 후퇴는 오늘날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 또한 제시했다. “이윤 및 초과이윤 획득을 위한 향상된 조건을 만들어내는 동일한 세계화 과정이 동시에 거대한 모순과 위기도 만들어낸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민족국가에 기반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민족국가 없이는 자본주의 지배계급은 국내에서 착취를 위한 토대도 조직할 수 없고, 또 세계시장에서 지지해줄 무력 기반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강대국들 간의 증대하는 패권쟁투가 이 세계화를 약화시키고 있다. 독점체들은 가능한 한 큰 시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절대적 지배력, 스스로에게는 무제한의 접근권과 경쟁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최대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 결과로 보호주의와 지역화의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강대국은 자기 주위에 지역 블록을 형성하고 다른 강대국들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정의상 이것은 수많은 분쟁과 최종적인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Vienna 2013, pp. 389-390)

수 있다. 세계 GDP에서 무역의 비중은 1870년에 대략 18%였는데, 1913년에 30%로 증가했고, 1932년에 10%로 붕락했다.⁶¹⁾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이 세계 생산량의 9%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1913년에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고점이 있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비율은 1960년 4.4%, 1980년 4.8%로 크게 감소했으며,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1차 세계 대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⁶²⁾

끝으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 시기가 *진정으로*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 지배계급들의 배외주의적이고 반혁명적인 대응 — 에 의해 종언이 고해진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와 같은 “물리적 자산 파괴가 없는 전쟁 같은 시나리오” —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문구를 다시 인용한다면 — 가 이 역사적 분수령을 그은 최종 요인이 된 것이다.

미 해계모니의 종언 이후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새로운 단계

RCIT는 수년 전부터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태발전 중 하나는 패권국 미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중국이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⁶³⁾ 우리는 이 두 강대국 간 패권쟁투가 세계정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 요소임을 설명해왔다. 2018년 초 이래의 세계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미·중 간 냉전은 우리의 분석을 온전하게 확인시켜 주었다.⁶⁴⁾ 말 나온 김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태발전이 러시아의 부상이었다는 점을 밝혀둔다.⁶⁵⁾ 중국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또 다른

61) Mariko J.Klasing and Petros Milionis: Quantifying the evolution of world trade, 1870-1949, 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92, Issue 1, January 2014, p. 186

6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4, New York and Geneva 1994, p. 130

63)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러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우리 웹사이트의 [별도 하위 섹션에](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있는 문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 중국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Michael Pröbsting: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Michael Pröbsting: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64) 이에 대해서는 우리 웹사이트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모아놓은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RCIT의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65) 러시아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우리 웹사이트의 [별도 하위 섹션에](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언급되어 있는 문헌 외에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다음 글들도 보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몇 년간 중동에서의 사태발전이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글로벌 역관계에서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이제 전 세계의 눈에 가시화되고,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고 피해자 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반면, 미국은 팬데믹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그로 인해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유럽 정부들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의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을 본보기로 바라본다. 어느 누구도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며, 확실히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모델로 간주하는 정부는 없다.

미국의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쇠락을 인정하고 있는 부르주아 사상가들이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전형적인 예다. 30년 전 후쿠야마는 소련 붕괴 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유명한 책을 발표했다. 1992년 그는 서방 제국주의의 승리주의를 표현하면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사회구성체로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선언한다.⁶⁶⁾ 지난 몇 년 그는 이미 등을 보이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금 미 제국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애처로운 실력을 마주하고는 이렇게 비관주의적으로 말한다.

“팬데믹이 가라앉으면 단순한 이분법을 버려야 할 것 같다. 효과적인 위기 대응의 주요 구분선은 독재국가를 한 쪽으로, 민주주의국가를 다른 한 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식은 아닐 것이다. 그 보다는, 성과가 높은 독재국가도 있을 것이고, 참담한 결과를 보이는 독재국가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 비록 독재국가들 사이에서보단 작겠지만 — 결과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과에 있어 결정적인 규정 요인은 정권의 유형이 아니라 국가의 능력과,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국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권력을 행정부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권력을 위임하려는 의지와 그 권력의 효과적인 사용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행정부가 이 권력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불러일으킨 강한 불신, 그리고 그들이 지지자들에게 심어준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책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 나는, 팬데믹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독재국가에게 더 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국가에게 더 있는지에 관한 폭넓은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한국과 독일 같은 민주주의국가들은 위기 대처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설사 미국이 잘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권 유형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들 지도자들이 유능하고 효과적인 국가를 주재하는지 여부다. 그리고 이 점에서 는 미국의 심화하고 있는 부족주의가 낙관론의 이유를 거의 남겨놓지 않고 있다.”⁶⁷⁾

라.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Special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March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66)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Free Press, New York 1992

67) Francis Fukuyama: The Thing That Determines a Country's Resistance to the Coronavirus, 30 March 2020,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0/03/thing-determines-how-well-countries-r>

19세기에 부르주아 정치가들은 오스만 제국이나 합스부르크 군주정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병자”라는 문구를 즐겨 사용했다. 이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병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인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서 눈에 띄게 실패하고 있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도 보건 부문이 붕괴되고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는 등 명백히 위기에 압도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는 유럽연합이 여전히 국가별로 찢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대륙을 강타했을 때, 회원국들의 구호는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였다. 각국은 오직 자신만을 돌볼 뿐,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 받은 국가들 (처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 스페인)을 지원하는 데 전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정치·경제·보건 상의 비상사태라는 현재의 3중 위기가 유럽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둘 중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두 지배적 열강으로서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중심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보다 중앙집권적인 연합 (유럽 연방이든, 또는 보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서 더 부유한 회원국들에 기반을 둔 보다 작은 연방이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다 허물어져 단지 느슨한 경제시장으로 남느냐. 후자의 경우, 개별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 여기서는 유럽 국가들이 종속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팬데믹 채권 발행을 둘러싸고 EU 정부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협상 결과가 EU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지표가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코로나19 위기에서 서방 — 미국과 서유럽 — 의 기존 제국주의 열강이 보여준 한심한 대처 능력은 “서구의 몰락”에 대한 오스발트 슈팽글러의 유명한 말이 단지 문학적 수사만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실제 묘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⁶⁸⁾

코로나19 위기는 미 제국주의의 패권 종식을 알리는 정치적 전환점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강대국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이 이제 새로운 패권국이 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향후 세계정치의 발전 방향은 패권국 자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정치에 자신의 마크를 달 능력이 없다. 그리고 중국도 (그 밖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균형상태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 주로 미·중 간 — 가 더 한층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서막으로 성격 규정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흥미롭게도, 좀 더 영리한 부르주아 사상가들 일부도 그러한 발전 동학(動學)을 인정한다. 잘 알려진 미국의 베테랑 외교관이자 지배계급의 영향력 있는 대외정책 고문이었던 리처드 하스는 새로운 논문을 통해 기존의 미국 쇠퇴 추세가 가속화하고 글로벌 분쟁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세계가 1920년대/30년대와 닮은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espond-coronavirus/609025/](https://www.espond-coronavirus/609025/)

68) 말 나온 김에 적어둔다. 우리는 슈팽글러 책의 공식 영어본이 “*Decline of the West* (서구의 쇠퇴)”(translated by Charles Francis Atkinson and published by Alfred A. Knopf Inc. in New York in 1926)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본 원제는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서구의 몰락)”으로 공식 영어본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팬데믹 이전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 같지 않다. 코로나19는 세계사의 기본 방향을 바꿔놓기보다는 그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팬데믹과 그에 대한 대응은 오늘날 지정학의 근본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강화시켰다. 그 결과, 이 위기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가 여행해 온 도상의 전환점이기 보다는 중간기착지일 것 같다... 그래도 위기에서 나올 세계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울어가는 미국의 리더십, 비틀거리는 글로벌 협력, 강대국의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등장 이전의 국제환경을 특징지은 것들이고, 팬데믹은 그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켜놓았다. 그것들은 이후 세계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들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떠올려 볼 더 적합한 선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가 아니라 아마도 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 즉 미국의 관여가 감퇴하고 국제적 격변이 고조되는 시기일 것이다.”⁶⁹⁾

이러한 사태전개는 맑스주의자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 RCIT 출판물에서 그러한 사태발전을 예측해 왔다. 지금 혁명가들의 과제는 이러한 사태발전에 정치적으로 대비하고, 제국주의 히드라와 싸우는 데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국제 조직의 형성을 앞당기는 것이다!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의 대부분이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완고히 거부하면서 그러한 사태전개에 대비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것은 예상에서 역시 벗어나지 않는 그들다운 것이다. 그들은 중국을 미국에 대항하여 지지해야 하는 진보적 국가, “사회주의” 국가, “반제국주의” 국가로 보거나, 아니면 중국 (및 러시아)을 일종의 반식민지 또는 “아제국주의” 국가로 성격규정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분석은 미국에 반대하여 중국 (및 러시아)을 편드는 길을 연다. 요컨대,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는 데 실패할 때 이들 좌익이 친중·친러 사회제국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러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 실패할 때 결과는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정치의 이 핵심 특징 — 오는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해질 특징 — 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때는, 결과는 잘해야 완전한 혼란이고 최악의 경우는 이 또는 저 강대국에 대한 완전한 사회제국주의적 굽실 거림일 수밖에 없다.

69) Richard Haass: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7 April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4-07/pandemic-will-accelerate-history-rather-reshape-it>

2.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이 장에서는 현 글로벌 반혁명의 특징들과 그 방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시도의 한계를 심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당연히 이 같은 초기 단계에 세부적인 성격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주도적 부르주아지 서클들 자신들이 여전히 향후 진행방향을 놓고 전면적인 토론 중에 있다. 더욱이 향후 대대적인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며, 이 계급투쟁이 이후 발전방향에도 의당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객관적인 경향들을 볼 수 있는데, 세계정치의 지난 사태발전에서 비롯한 경향뿐만 아니라 현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에서 비롯한 경향이 있다. 모두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향후 계급투쟁의 도전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 경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20년대 스탈린주의 사상 단속 이전 소련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은 “맑스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전반적 발전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⁷⁰⁾ 실로 기본 동역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혁명가들은 정치적 방향 상실로 빠져버릴 것이다.

막 열린 새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의 발전에 대해 성격규정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의식하며 우리는 자본주의의 현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a) 독점 강화
- b) 국가자본주의
- c)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 d) 배외주의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자. 우리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1929년 수준의 경제적 파국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독점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큰 물고기가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특히 그 큰 물고기가 배고플 경우에는 말이다. 깊은 공황기에 대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의 더 많은 도움과 규제를 필요로 한다. 대자본가들은 잠재적으로 반란 기세에 있는 대중에 대한 “강한 주먹”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외의 자본가 라이벌들에 대한 “강한 주먹”도 필요하다. 이 모든 동역학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의 독점 부르주아지를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당연히 이 과정은 각국 상황 및 계급들 간 투쟁의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서로 다른 속도를 취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70)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Unter dem Banner des Marxismus, 1. Jahrgang (1925-26), p. 224 (영역은 저자)

신자유주의 이후의 독점 강화와 국가자본주의

첫째,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현 자본주의 세계경제 침체는 그 골이 너무도 깊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소부르주아 자영업 층과 나아가 중소 자본가들의 파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이를 확인해준다. 이 과정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자유시장”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강타하면서 1분기에 46만 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⁷¹⁾

이것은 한편,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즉 이 위기의 중요한 결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독점화에 더 큰 도약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훨씬 더 적은 수의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초과이윤을 전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독점체가 시장과 가격을 조종할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점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결과와 함께 중요한 정치적 결과도 있다. 상당 부분의 소자본가들 및 소부르주아 제 계층의 위기, 고통, 절멸은 부르주아 체제의 지배 엘리트 — 독점자본가들 및 그들과 연계된 정치가들·장군들 — 가 지금까지 자기 지배체제의 한 기반이 되어온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층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필사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자본가와 소부르주아 제 계층은 급진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좌우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틀 것이다. 전위가 노동자계급을 전장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면, 전위는 이런 층들에게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층들은 종교적 반계몽주의나 파시즘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둘째, 현재의 거대한 붕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본가 국가가 경제생활에 대규모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 장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대대적인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2008-09년 대침체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제한된 성격의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이 단순히 재현되는 수준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번 경제 파탄이 훨씬 더 혹독하기 때문이다. 3차 대공황은 불가피하게 많은 은행과 업체의 파산 임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국가가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그러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타 기업과의 합병을 강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붕괴를 고려할 때 국가들 간의 경쟁적 다툼이 — 따라서 국가들의 경제적 역할도 —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 수출 지원,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등이 있다. 리처드 하스 같은 부르주아 주류 사상가들도 이러한 상황 전개를 인식하고 있다. “세계 무역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그 중 더 많은 부분을 시장보다는 정부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⁷²⁾

이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르주아 진영의 영리한 관측자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물론, 좌파 자유주의자들과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를 망칠 것이라고 항상 선언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파탄을 피하기 위해

71) Sidney Leng: Coronavirus: nearly half a million Chinese companies close in first quarter as pandemic batters economy, South China Morning Post, 6 April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78581/coronavirus-nearly-half-million-chinese-companies-close-first>

72) Richard Haass: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7 April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4-07/pandemic-will-accelerate-history-rather-reshape-it>

서는 국가자본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당연히 이러한 논자들은 현 사태로 자신들의 옳음이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디언의 글로벌 환경 편집자 조나단 왓츠는 이렇게 썼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정치적 문제인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 절박성을 일깨웠다. 기후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 문제에서도 특히 부적합한 체제로 입증되고 있다... 이 팬데믹의 결과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가장 파멸적인 실패 중 하나로 판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⁷³⁾

코빈 식의 노동당 노선을 지지하는 영국의 저명한 진보 언론인 폴 메이슨도 현 글로벌 위기를 “새롭고 매우 다른 자본주의 모델”을 실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알 자지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근 논평에서 메이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좌파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정체와 높은 부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자동화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희소한 일자리가 되면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이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가에 직접 대출해주는 정책, 이윤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공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을 대규모로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 아주 드물게 과거에 이러한 정책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안됐던 경우 보통 반응은 정중히 머리를 가로 젓는 것이거나, 아니면 —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 격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 있다. 보편적 소득 지급, 국가 구제금융, 국가 부채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원 조달, 이 모든 조치가 그 주창자들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급속도로 채택되었다... 나에게,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언제나 상상 가능한 일이었다. 2015년 이래로, 나는 우리가 새로운, 매우 다른 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 고령화 인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비용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위협 때문이라도 — 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것을 단기적인 차원 안으로 가져왔다. 2020년대 중반에 이로부터 생겨나오는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억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항공사와 호텔 체인을 국유화시킨 자본주의일 것이다. 그리고 선진경제국들의 정부 부채는 GDP의 평균 103% 수준인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얼마나 더 높을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GDP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⁷⁴⁾

그러나 이렇게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가 파탄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류 부르주아 논자들도 더 이상 신자유주의 모델이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당 규모의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가로 복무하고 있는 마셜 아우어백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여 국가 산업정책과 함께 국가의 보다 강력한 역할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기사를 연재했다. 그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으로선,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과도

73) Jonathan Watts: Delay is deadly: what Covid-19 tells us abou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24 March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24/covid-19-climate-crisis-governments-coronavirus>

74) Paul Mason: Will coronavirus signal the end of capitalism? The peasants' revolt after the 14th-century plague saw off feudalism. After COVID-19, will it be the turn of capitalism? 3 April 2020,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coronavirus-signal-capitalism-200330092216678.html>

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소위 리던던시 [redundancy; 실제로 필요한 요소보다 더 많은 요소를 준비함으로써 보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운영 기법]을 우리 시스템에 더 많이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전시 기간이나 대규모 경제난 (대공황 같은) 때 나라가 일하는 방식 — 포괄적인 정부 주도 행동 (오늘날의 지배적인, 그리고 점점 더 구식이 되어가는 경제·정치 신학의 많은 부분에 역행하는) — 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일관성 있는 국가산업정책의 부활 말이다.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경제가 덜 필요하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균형이 후자 [공공부문]에 유리하게 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다국적 기반/ 일국적 기반도 마찬가지로 후자에 유리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이기 보다는, 그저 글로벌 자본주의가 겪는 일련의 재난 사슬 속의 또 하나 재난에 다름 아닐 것이다.”⁷⁵⁾

아우어백은 최근 발표한 또 다른 논설에서 그러한 보호주의적,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대 기술이 그러한 변화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팬데믹은 새로운 지배 모델 — 여러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 이 세계를 향해 작전 개시에 들어가는 디데이 같은 것으로 역할 할 것이다. 그 모델의 중심에 있는 선진 혼합시장경제국들은 그들의 시장에 더 밀접한 첨단 생산에 투자하는 것 대비, 국제 공급망을 유지해나가는 데 따르는 조건 위험과 증가하는 군사적 비용을 따져보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제품 수출을 늘려갈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노동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공급망에 스스로를 얽어매으로써 발전해온 수십 개 경제국들은 새로운 과정에서 점점 더 제외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파워를 둘러싼 경쟁은 탄소 에너지 자원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경제 모델을 떠받치는 데 아주 중요한 광물 및 부품 소재의 채광·제련 쪽으로 중심축을 점점 더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석유를 넘어선 "전략 비축물"과 "국가 비축사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이들 기술 [인공지능, 비 탄소 에너지원, 나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 인용자]의 집합적 힘은 한 나라의 국경이나 공동 시장 밖에서 더 값싼 노동을 찾는 매력을 — 그리고 이들 기술이 수반하는 비용도 —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따라 앞서 나가고 이러한 형태의 생산에 필요한 광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기존 소비 시장에 연결되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새로운 국제 수출입 사슬로 이어질 동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선들은 소매업과 서비스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많은 유럽 나라들과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나라들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엄격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들 나라들은 어떻게 국가의 역량과 방향이 더 한층 산업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온존한다면,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프쇼어링 [사업 해외 이전]으로 미국은 코로나19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오프쇼어링은 또한 세계화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도 야기했다. 한때 경제 민족주의자들의 이단(異端) 피난처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다시 존경받을 만한 것이 되었다. 이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미국 경제 모델의 토대는 실패하여 급속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질문을 해보자. 세계가 탈 탄소 미래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는 금융, 보험, 부동산 같은 지대 추출 부문이나 할리우드 영화, 스마트폰 앱,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같은 점점 지엽적인 것이 되고 있는 부문의 우위를 털어버리고 무리의 선두 집단에 합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코로나19는 더 치명적인 질병의 전조에 불과한 것인가?”⁷⁶⁾

75) Marshall Auerback: Covid-19 reveals the cracks in globalization, 11 March 2020, <https://asiatimes.com/2020/03/covid-19-reveals-the-cracks-in-globalization/>

현 위기 시작 전에 이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대신하여 국가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부르주아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자문위원이자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조이 호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019년 9월에 이렇게 썼다.

“시장 신호를 존중해 반세기 이상 변명을 견인해온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히 국가주의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민간 시장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일에 뛰어든 이후로는 거기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다. 번덕스러운 투자자들의 기본에 운명을 내맡기기보다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유혹적이다. 그냥 시진핑한테 물어보라. 아이러니하게도 현 세계무역 소동을 놓고 볼 때 서방과 중국이 그들이 신봉하는 경제정책 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적은 없다.”⁷⁷⁾

우리는 지배계급 서클들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방향전환 논의를 맑스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몇 부르주아 논자들을 폭넓게 인용했다. RCIT는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유일한 또는 가장 반동적인 형태로 여기는 많은 좌파 그룹들과 이론가들의 중대한 오류를 항상 비판해왔다. 두 가정 모두 틀렸고 이것은 이제 더욱 명백해졌다. 이는 20세기 자본주의 전 역사에 걸쳐 명백하게 드러난 바다. 1930년대에 다양한 형태의 에타티즘(국가주의)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시행된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그것이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유럽은 물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에 국영기업 부문이 꽤 많이 있었고, 복지국가 및 국가경제계획도 시행되었다.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도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큰 역할을 했다. 일부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친미 군사독재였고, 다른 일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했다 (일본).

이러한 종류의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는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1989-91년 이후 자본주의가 부활한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재기 무대를 가졌다. 중국(및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에서 특히 그랬고,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도 — 정도는 좀 덜하지만 — 그랬다. 실제로 이들 국가 중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국가인 중국은 오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

더욱이 과거에 우리는, 극심한 정치적 위기의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국가자본주의적 규제 방향 전환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아왔다. 예를 들어, 1914-18년 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규제하는 것이 절실했던 것이 그런 경우다. 이를 “전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노동자운동의 개량주의적 다수파는 이러한 사태발전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환영하며, ‘자’국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배외주의적 조국방위의 구실로 삼았다.

76) Marshall Auerback and Jan Ritch-Frel: Pandemic opens curtains on next economic model,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pandemic-opens-curtains-on-next-economic-model/>

77) Christopher Joye: Conventional capitalism is dead, Sep 20, 2019, <https://www.afr.com/wealth/personal-finance/conventional-capitalism-is-dead-20190920-p52t7w>

모델로서의 중국?

각종 개량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 “중국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 자본가들을 위한 부의 축적에 가장 잘 봉사하기 때문에 서방 부르주아지가 선호하는 모델이어 왔다고 주장했다. RCIT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모든 입수 가능한 사실들과 — 중국 측뿐만 아니라 서방 측 공식 소식통에서 나온 사실들과도 — 모순된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테제를 증명하는 데 국한하고 넘어갈 것이다. 독자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한 다양한 문서에서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⁷⁸⁾

지난 10년 동안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비상하게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기업 및 슈퍼리치 억만장자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부자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7%에서 14%로 두 배가 되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단지 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37%, 중국 41%, 러시아 46%, 미국-캐나다 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브라질 · 인도 약 55%에 각각 달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인 중동에서는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61%를 차지하고 있다.”⁷⁹⁾

이 결과는 중국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스탈린주의 신화를 허물 뿐만 아니라, 30년 전 까지도 중국과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점을 염두 한다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이 두 나라에서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오랜 자본주의국들보다 더 높고 복미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또 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이 가장 많은 (중국 자료에 따르면), 또는 두 번째로 많은 (서방 자료에 따르면) 수의 억만장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본사가 있는 <후룬 리포트> 2019년 호는 “중국이 억만장자 658명으로 4년째 세계 1위를 달리면서 584명인 미국보다 74명 앞서 있다”고 밝혔다.⁸⁰⁾

78)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책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외에 같은 저자의 몇몇 기사를 보라. 그 중 가장 최근 기사로 다음이 있다. China passes the US on Global Business Ranking for the first time. New data on global corporations reflects China’s rise as an imperialist Great Power, 2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hina-passes-the-us-on-global-business-ranking-for-first-time/>. [중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독점자본 순위에서 미국을 넘어서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passes-the-us-on-global-business-ranking-for-first-time/>]

79)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9

80) Loong Palace: Hurun Global Rich List 2019, 2019-02-26, <http://www.hurun.net/EN/Article/Details?num=24DD41EE3B19>. 우리는 중국의 슈퍼리치 문제를 많은 기사들에서 다루었다. 필자의 다음 기사를 보라. China’s Billionaire Lawmakers. A telling comparison of extremely wealthy Chinese lawmakers with their peers in the US Congress, 9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billionaire-lawmakers/>; Michael Pröbsting China: A Paradise for Billionaires. The latest UBS/PwC Report about the Global Super-Rich Delivers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Stalinist Myth of China’s “Socialism”,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s-a-paradise-for-billionaires/>; The Global Super-Rich Get Even Richer. UBS/PwC Publish their latest Report about the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자본주의 독점체들을 살펴볼 때도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발행한 글로벌 순위표 <포춘 글로벌 500> 2019년 호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오랜 패권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표 4 참조).

표 4. 글로벌 500대 기업 상위 10개국, 2019년⁸¹⁾

나라	기업 수	점유율 (%)
중국 (대만 포함할 경우)	119 (129)	23.8% (25.8%)
미국	121	24.2%
일본	52	10.4%
프랑스	31	6.2%
독일	29	5.8%
영국	17	3.4%
한국	16	3.2%
스위스	14	2.8%
캐나다	13	2.6%
네덜란드	12	2.4%

세계 2000대 기업에 대한 순위표인 이른바 <포브스 글로벌 2000>도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표 5에서 우리는 지난 20년 사이에 중국의 기업들이 다른 독점체들 대비 급부상한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미국이 여전히 최강국이지만 그 비중은 776개 기업 (38.8%)에서 565개 기업(28.2%)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의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 중국이 강대국 중 넘버 투가 되었다.

World's Billionaires,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lobal-super-rich-get-even-richer/>
 81) Geoff Colvin: It's China's World. China has now reached parity with the U.S. on the 2019 Fortune Global 500—a signifier of the profound rivalries reshaping business today, July 22, 2019 <https://fortune.com/longform/fortune-global-500-china-companies>

표 5. 국가별 세계 2000대 기업, 2003년 및 2017년 (Forbes Global 2000 List)⁸²⁾

	2003년		2017년	
	기업 수	점유율	기업 수	점유율
미국	776	38.8%	565	28.2%
중국	13	0.6%	263	13.1%
일본	331	16.5%	229	11.4%
영국	132	6.6%	91	4.5%
한국	55	2.7%	64	3.2%
프랑스	67	3.3%	59	2.9%
캐나다	50	2.5%	58	2.9%
인도	20	1.0%	58	2.9%
독일	64	3.2%	51	2.5%

요컨대, 중국 국가자본주의 모델은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없고, 반대로 신흥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강력히 봉사하는 모델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굴기와, 특히 현 코로나19 위기 동안 중국이 과시한 실력은 서유럽을 포함한 여타 자본가 정부들에게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하나의 모델로 점점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유럽 제국주의 정부들이 “중국 모델”을 모방하기를 원한다거나 모방할 수 있다거나 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두 지역의 역사적 배경도, 계급세력 관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신자유주의 모델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결코 같은 유형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존재한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해 보이는 것은, 더욱 더 많은 수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깊은 위기가 가하는 압박과 “중국 모델”이 준 인상 하에 상당히 더 많은 국가자본주의 정책 및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요소들을 실시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사태발전이 맑스주의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레닌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 최종 단계 — 제국주의 시대 —에서 자본주의의 자체 변환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⁸³⁾

82) Forbes Global 2000 List (2017), <https://www.forbes.com/global2000/list/45/#tab:overall>

83)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20세기의 진행 과정이 국가와 독점체의 구체적 관계는 세계적·일국적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자본가 국가와 독점체의 긴밀한 협력과 융합은 이 시스템의 핵심 특징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가 깊은 위기와 쇠퇴/부후화 상태에 있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결정적인 전환

셋째,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태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범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특징들을 담아내고 있다. 하나는 국가 억압기구의 증강과 자본가 국가 최고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민족주의 및 특히 배외주의로의 방향 전환이다.

후자부터 말하자면, 가속화하는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는 불가피하게 이미 배외주의가 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3차 대공황을 배경으로 더욱 창궐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서로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보고 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반복해서 “중국 바이러스” 운운하고 있고, 베이징은 “유행병을 우한에 가져온 것은 미군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⁸⁴⁾

그러나 배외주의의 부상은 미국과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국경 문제와 각 지배계급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오는 시기가 위기로 점철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억압기구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글로벌 록다운을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제한사항 준수를 통제하기 위해 거리에 많은 경찰들을 풀고 있다.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정부가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한다.⁸⁵⁾ 나아가 유럽과 북미의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387

84) Joseph Stepansky: Trump, coronavirus and the politics of a pandemic, 14 March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3/trump-coronavirus-politics-pandemic-200313174546799.html>

8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ark MacKinnon, Nathan Vanderklippe: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is making strongmen stronger, from Hungary to Serbia to the Philippines, 6 April 2020,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how-the-coronavirus-pandemic-is-making-strongmen-stronger-from/>; Sam Hamad: Coronavirus in service of authoritarianism, 25 March, 2020, <https://english.alaraby.co.uk/english/comment/2020/3/25/coronavirus-in-service-of-authoritarianism>; Luke Baker, Matthew Tostevin, Devjyot Ghoshal: In global war on coronavirus, some fear civil rights are collateral damage, April 10,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rights/in-global-war-on-coronavirus-some-fear-civil-rights-are-collateral-damage-idUSKCN21S1CZ>; Stanis Bujakera, Ayenat Mersie: In parts of Africa, police are accused of excess force amid coronavirus lockdowns, April 10,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frica-police/in-parts-of-africa-police-are-accused-of-excess-force-amid-coronavirus-lockdowns-idUSKCN21S0M9>; Richard Javad Heydarian: The wrong way to do a lockdown in the Philippines, 8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the-wrong-way-to-do-a-lockdown-in-the-philippines/>

제국주의 정부들도 그러한 국내 작전을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밖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민간인들로부터 임무 인계를 받았다. 4월 6일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이미 군 작전 조율이 논의되었다.⁸⁶⁾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증대되는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결코 과장된 불안 유포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부르주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험평가 문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극적인 결과에 대해 경계령을 발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사망률이 높아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폭력적 무질서가 격화되어 상당 병력의 미군 배치가 요구된다.”⁸⁷⁾ 이는 현 위기의 결과로 내란의 가능성이 이미 지배 서클들에서 현실적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주민 감시의 대폭적인 증가와 결합되어 있다. 많은 정부들이 현재 원거리 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중국은 주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돕는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 기술 발전의 선진적 모델이다. 서방 정부들은 중국 따라잡기에 애쓰고 있다. 이런 국내 감시조치를 위해 드론과 소형 이동로봇을 거리에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⁸⁾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일거에 '빅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말이다. 자본가 국가가 이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 없이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이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회를 비롯한 그 밖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들을 희생시키면서 자본가 국가 최고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과정도 본다. 정치적 위기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면목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부르주아 국가는 — 그것의 “민주적” 형태에서조차도 — 자본가계급 독재의 구현이라는 점을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강조하였다. 1919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1차 대회에 제출된 테제에서 레닌이 천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여전히 유효타당하다. “부르주아 문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계급적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사회

Samreen Mushtaq, Mudasar Amin: Kashmir: Coronavirus is a new tool for India to oppress us, 7 April 2020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coronavirus-kashmir-india-responds-more-violence>

86) “코로나19 전투 최전선에서 우리 군이 싸운다.... EU 국방장관들은 오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등대표가 주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장관들은 특히 위기와 싸움에서 군사 원조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어적 의미와 공통 안보 및 국방 정책 (CSDP)의 틀에서 EU의 군 및 민간 임무와 작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장관들은 수송과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배치하며, 경찰 및 그 밖의 국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런 맥락에서 EU 군 참모진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정보를 더 잘 교환하고 EU 회원국 간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Video conference of foreign affairs ministers (defence), 6 April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fac/2020/04/06/>; Video conference of Defence Ministers: Remarks by the High Representative/Vice-President Josep Borrell at the press conference, Brussels, 06/04/2020,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77151/video-conference-defence-ministers-remarks-high-representativevice-president-josep-borrell_en)

87) J. Stephen Morrison: Which Covid-19 Future Will We Choos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 April 2020, <https://www.csis.org/analysis/which-covid-19-future-will-we-choose>

88) 다음을 보라. Rebecca Fannin: The rush to deploy robots in China amid the coronavirus outbreak, March 2 2020, <https://www.cnn.com/2020/03/02/the-rush-to-deploy-robots-in-china-amid-the-coronavirus-outbreak.html>

주의자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최대의 과학적 정밀함을 가지고 정식화시킨 사상을 표현했다. 즉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계급 탄압을 위한, 한층의 자본가들에 의한 근로인민 탄압을 위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 말이다.”⁸⁹⁾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그 같은 본질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진영의 영리한 논자들도 의식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유명한 우익 보수 정치 이론가인 칼 슈미트는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다”⁹⁰⁾라고 솜씨 있게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체제의 전화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같은 인물들을 기능장으로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반동 어릿광대와 모험주의자가 한 인물 속에 결합된 자들이다. 그들은 “이념적 총자본가” (맑스)로서의 국가를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국가기구의 많은 부분을 상대로 끊임없는 파괴적인 전쟁을 벌인다. 우리 앞에 있는 시기처럼 도전적이고 격동적인 시기에 그러한 인물들이 자본가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한 현 국가비상사태 — 미국 언론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가 <<뉴욕 매거진>>에 썼듯이 “일시적인 그러나 무기한의, 전시 같은 국가 병커화(化)”⁹¹⁾ — 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지속될 수도 없는 극단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⁹²⁾

그러나 글로벌 록다운을 가져온 현 국가비상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바하우딘 포이지와 같은 일부 지정학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바이러스가 주민 사이에 퍼지는 것이 완전히 멈추거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인 봉쇄 조치를 —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 철회하는 것은 현명치 못할 것이다.”⁹³⁾

어쨌든,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와 주민에 대한 통제 조치의 중요한 요소들은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 팬데믹을 억제하고 예방한다는 명분을 엄폐물 삼아서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지배계급들이 주민 감시를 무기한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주민을 준

89) V. I. Lenin: Theses and Report on Bourgeois Democracy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LCW Vol. 28, p. 458

90) Carl Schmitt: Political Theology (1922), Cambridge, Mass., MIT Press, 1985, p. 5

91) There Is No Plan for the End of the Coronavirus Crisis By David Wallace-Wells
2 0 2 0 - 0 4 - 0 5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4/there-is-no-plan-for-the-end-of-the-coronavirus-crisis.html>

92)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한 것과 같은 특히 잔인하고 시니컬한 형태의 봉쇄 조치에 독자들의 주목을 요청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가족에게 돌아가지 말고 두 달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잘 곳을 찾아야 했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방 하나에 20명 썩 몰아넣었다. 이스라엘 보건부 자신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면서 말이다. 놀랄 것도 없이, 이들 팔레스타인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자지구 서안으로 탈출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ILO 대표 무니르 클라이보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 “인간이 거주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위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위생시설이 없다. 누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신은 금지하시니, 바이러스가 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질 속도가 무섭다.”
(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palestinian-labourers-fear-loss-income-coronavirus-200328123228881.html>)

93) Bahauddin Foizee: Lockdowns to fight virus should be stricter, longer, 3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lockdowns-to-fight-virus-should-be-stricter-longer/>

비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이 더욱 더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가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문명의 포괄적인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⁹⁴⁾ 기후변화와 대규모 생태 파괴가 인류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그래서다. 급진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가 없다면 지구상의 인간 생명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이 동물 생물권의 파괴가 확대된 데서 비롯한 간접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가 있다는 것을 명기해둔다.⁹⁵⁾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번과 같은 팬데믹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팬데믹들의 발병이 해당 주민에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질병 건수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인간 감염 질병들의 특징은 그것들이 매번 ‘신종’ 질병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진화를 겪은 질병들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거나,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새로 부상한 감염 질병의 수와 마찬가지로 발병 건수도 전체 원인질환의 수에서나, 풍부함에서나 모두 인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⁶⁾

지난 몇 주 동안,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미치는 생태적 결과를 고려할 때 팬데믹들이 인류에게 커져가는 위협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태학자들은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인간에 의한 잡식과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커지면서 초래된 대규모 팬데믹들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실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들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훨씬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⁹⁷⁾

“연구 결과, 에볼라, 사스, 조류독감,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동물전염성 질병을 비롯한 그 밖의 전염 질병들의 발병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균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건너가고 있고, 많은 병원균들이 새로운 곳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간에게 감염되는 신종 질병 또는 새롭게 부상한 질병의 4분의 3이 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⁸⁾

달리 말하면, 지배계급은 팬데믹의 위협을 억압기구 확대, 주민 감시, 국가비상사태의 무기한 연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 블룸버그 논평가의 말로 옮기면, “전능한 국가”⁹⁹⁾ — 의 형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

9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II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9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b Wallace: Big Farms Make Big Flu. Dispatches on Infectious Disease, Agribusiness, and the Nature of Science,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2016

96) Smith KF, Goldberg M, Rosenthal S, Carlson L, Chen J, Chen C, Ramachandran S. 2014 Global rise in huma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J. R. Soc. Interface 11: 20140950., <http://dx.doi.org/10.1098/rsif.2014.0950>, p. 5

97) Asoka Bandarage: Mindfulness, social action in Covid-19 crisis, April 6, 2020 <https://asiatimes.com/2020/04/mindfulness-social-action-in-covid-19-crisis/>

98) John Vidal: 'Tip of the iceberg': is our destruction of nature responsible for Covid-19? 18 Mar 2020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mar/18/tip-of-the-iceberg-is-our-destruction-of-nature-responsible-for-covid-19-aoe>

의 부정이다”라는 레닌의 테제를 확인시켜 준다.¹⁰⁰⁾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적했듯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역할 증대 —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 — 는 자본주의의 첨예한 위기와 쇠퇴·부후화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다.¹⁰¹⁾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군주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연동된 ‘국가장치’의 비상한 강화 및 관료·군사 기구의 전례 없는 성장”을 본다.¹⁰²⁾ 그 결과는 강력한 기계장치의 탄생이다. 볼셰비키당의 주요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이 국가장치를 “뉴 리바이어던”이라고, “토머스 홉스의 판타지는 거기에 대면 어린애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러한 뉴 리바이어던이라고 성격규정했다.¹⁰³⁾ <시국선언>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을 다시 한 번 보자. “이러한 제국주의 리바이어던이 지금 지배계급에 의해 — 팬데믹과 싸운다는 구실 하에 — 전속력으로 구축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의회제 내에 이미 존재해온 기존 제도들을 활용하여 보나파르트주의 지배 형태를 확립할 수 있다. 대통령, 군대, 경찰, 사법부 등의 역할, 각종 국가비상사태 법령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현 정치 시스템을 변환시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임무를 단순화시켜준다. 1930년대 프랑스에 대한 트로츠키의 관찰은 그 적실성을 잃지 않고 있다.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보나파르트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⁰⁴⁾

무엇이 “뉴 노멀”이 될 것인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적인 록다운이 종료된 이후의 부르주아 사회의 구체 상을 미리 그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배 서클들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엇을 바꿔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저들의 콘셉트에 대한 개괄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은 가능하

99) Pankaj Mishra: Coronavirus Will Revive an All-Powerful State. Much maligned in recent years, big government will come back—and with it, the potential for both greater good and evil, 17.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7/coronavirus-will-revive-an-all-powerful-state>

100) V.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Vol. 23, p. 43.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71쪽]

101) 2012년에 채택된 RCIT의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를 보라. “계급 사회의 꼭대기에 문어처럼 괴물 국가기구가 올라선다. 이 국가기구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그 정치적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민대중을 억압한다. 이 국가기구 —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리바이어던 (지배계급의 야수) — 는 여러 방식으로 자본과 융합한다.” (p. 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또 다음 팸플릿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102)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p. 415

103) Nikolai Bukharin: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p. 85,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104) Leon Trotsky: Again on the question of Bonapartism. Bourgeois Bonapartism and Soviet Bonapartism (1935),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4-35 (Edition 2002), p.288

고 유용하다. 다음에서 우리는 기존 서방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지배 계급들이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몇몇 인용문을 제시하겠다.

영향력 있는 미국 외교협회 (CFR; 리처드 하스가 2003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의 전 회원인 그레그 C. 브루노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반동 군주제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쫓아야 할 모범으로 칭송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면적인 디지털 감시에서부터 보건의로 노동자의 징용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이고 심지어 위험적이기까지 한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다....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버리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 전술을 빌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오만,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 이것의 한 버전을 보고 있다. 이들은 서구식의 자유분방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지적·문화적 개방성과 안전,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¹⁰⁵⁾

AP통신의 한 보도는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자본가 정부들이 때로 시키고 있는) 감시 기법의 성격에 대해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중국에서의 삶은 스마트폰 화면의 녹색 코드가 지배한다. 녹색은 폰 사용자가 무증상임을 말해주는 "건강 코드"로, 지하철을 타거나 호텔에 체크인 할 때 필요하다. 또는 지난 12월에 팬데믹이 시작된 인구 1100만의 중심 도시 우한에 그냥 들어가는 데도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중국 대중이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집권 공산당이 "빅데이터"를 수용해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넓힘으로써 가능해졌다. 의류 제조업체의 매니저인 우셴홍은 수요일 우한 지하철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신의 건강 코드 앱을 작동시킨 포스터의 바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녹색 코드와 신분증 넘버 일부가 화면에 나타났다. 마스크와 고글을 쓴 경비대가 통과하라고 손짓을 했다. 만약 코드가 붉은색이라면, 그것은 경비대에게 우셴홍이 감염된 것으로, 또는 발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진을 받아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노란색 코드는 우셴홍이 감염자와 접촉했는데 2주간 의무 격리 —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함 — 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 코드의 집중 사용은 노동자들이 공장, 사무실, 매장으로 다시 유입될 때 감염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당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화요일 사이언스 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른 정부들도 중국식 "디지털 접촉 추적"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전통적 방법으로 감염을 추적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이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이며 규모 있게 진행된다면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일단 지하철에 탑승한 우셴홍과 다른 통근자들은 당국이 나중에 자신들을 찾아야 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탄 전동차의 번호를 기록한 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한 안내원은 "목적지까지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코드를 스캔해주세요"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있었다. 좌석에는 승객들이 서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도록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한에 있는 쇼핑몰과 사무실 건물과 그 밖의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통상적 절차를 거친다. 방문자들은 자신의 건강 코드를 보여주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경비대가 열(熱)을 확인한 다음 입장이 허가된다. 건강 코드는 중국 시민들이 공공장소, 온라인,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첨단 감시 매트릭스에 추가된다. 수백만 대의 비디오카메라가 주요 도시들에서 작은 마을들에까지 거리를 뒤덮고 있다. 검열관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의 활

105) Greg C Bruno: No need for liberalism to surrender to authoritarianism, 7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no-need-for-liberalism-to-surrender-to-authoritarianism/>

등을 감시한다. 국영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고객들이 어디에 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신용체제로 알려진 방대한 컴퓨터 시스템은 공식 룰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범죄에서 쓰레기 투기까지 법 위반으로 별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표 구입이나, 대출 또는 정부 일자리를 얻는 것이나 출국하는 것이 막힐 수 있다....

이 코드는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의 인기 위챗 메시징 서비스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다. 베이징청년일보에 따르면, 약 9억 명의 사람들이 위챗의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알리페이의 총 사용자 수는 보고된 것이 없다.... 규정에 따르면, 붉은색 건강코드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신용체계 상의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북동부 헤이룽장성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기, 은닉 등의 행동"은 "그들의 미래 삶과 일에 큰 타격이 될" 처벌을 수반한다고 밝혔다."¹⁰⁶⁾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P. 골드만도 중국 감시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이 역시 서방 제약회사들에게 유망한 시장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은 재래식 공중보건 조치를 사상 최대의 정보기술 적용과 결합시켜 유행병을 막았다. 이러한 정보기술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예상 보균자 위치 추적, 감염 가능성 있는 로드 식별, 14억 인구 상당수의 생명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개인의 검역을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사용 등. 화웨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포함한 중국의 다른 거대 정보기술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정보기술의 의료 응용 분야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올라서는 데 수년을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는 놀라운 — 유럽의 모든 주요 제약회사들이 의료 분야에서의 이 공인된 차세대 대박 사업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할 정도로 놀라운 —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그 밖의 정보기술 자원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항하여 많은 디지털 자원을 결집해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디지털화된 건강기록 — 구글이 하려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포기했던 — 부터 생명 징후를 판독하고 심전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부착장치, 이 생명 징후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스마트폰 앱, 대규모 DNA 시퀀싱, 5G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한 원격 수술, 진단과 약물 개발에 대한 인공지능 응용까지 망라되어 있다.

중국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미 이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 및 광범위한 법의학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결합시켜 14억 주민 개개인 수준으로까지 위험을 식별했다.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종종 부정확하지만, 의료 당국이 인구 중 매우 큰 표본의 체온, 심박수, 혈액 산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¹⁰⁷⁾

이스라엘의 자유주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감시기술의 놀라운 진보와 그 잠재적 위협을 매우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정부는 당신의 손가락이 무엇을 클릭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관심의 초점은 이동한다. 이제 정부는 당신 손가락의 체온과 손가락 피부 아래의 혈압을 알고 싶어 한다.

감시기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감시되고 있

106) Associated Press: Chinese smartphone health code rules post-virus life, 2 April 2020, <https://apnews.com/88f837f24461c6e40480c96b55a4b6db>

107) David P. Goldman: Covid-19: Focus on what China did right, not wrong, 3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covid-19-focus-on-what-china-did-right-not-wrong/>

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 감시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공상과학소설처럼 보였던 일이 오늘은 낡은 뉴스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감시하는 생체 인식 팔찌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다시 정부의 알고리즘을 통해 다시 처리된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고 있다. 감염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고, 아예 확산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틀림없이 며칠 안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물론 단점은 이것이 무시무시한 새로운 감시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CNN 대신 폭스 뉴스를 클릭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까지 알려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볼 때 나의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가 어떠한지 감시할 수 있다면,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언제 화가 나는 지까지 당신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은 감기나 열처럼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침을 식별하는 기술은 웃음도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고, 조작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팔고 싶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팔 수 있다. 그것이 상품이든 정치인이든.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해킹 전술을 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모든 시민이 24시간 생체인식 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2030년의 북한을 상상해 보라. 위대한 수령의 연설을 듣는 중에 팔찌가 당신의 분노 감정을 식별하면, 당신은 그걸로 끝장이다.

물론 그러한 생체감시 기술을 비상 상황에서 임시 조치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바로 중단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임시 조치는 대개 비상 상황이 종료되어도 지속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특히 지평선 너머에는 언제나 새로운 비상 상황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고국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에서부터 푸딩 제조 특별 규정까지 다양한 임시 조치를 정당화했다.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하지 않았고, 1948년의 "임시" 조치 중 많은 것들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제로로 감소하여도, 데이터 수집에 굶주려있는 정부들은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생체감시가 필요하다고, 또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 에볼라가 진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생체감시 시스템 유지를 주장할 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전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양자택일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⁸⁾

적나라하게도, 독점자본가들의 노골적인 대변 매체 블룸버그 통신도 이런 사태전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권위주의 나라에서 인권 활동가가 어떻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사우스 캐롤라이나 클렘슨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리처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테러 방지 스파이웨어 전문 기술 회사는 코로나19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적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12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위치 추적을 배치했다. 그리고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는 미국의 빅 데이터 회사는 자신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108)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 March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정부에 문의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비상권력은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 절차가 된다.... 전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접촉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반대파의 확산을 추적하는 데 그 능력이 사용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감시기술과 강력한 치안유지가 통합되어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신원 공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8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후용신 미디어 비평가이자 베이징 대 교수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공중보건 감시 전술 중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으며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찰이 여전히 반정부 시위대를 단속하고 있는 홍콩에서도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월 27일 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시행한 후, 경찰은 식당 주인들이 테이블을 1.5미터 간격으로 유지하고 한 테이블 당 4명만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빈과일보는 저명한 반체제 인사 아들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경찰이 손님들의 이름과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이러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팬데믹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 권위주의 사회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항상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민운동가 갈릴레오 첩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친 민주파 식당을 조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사용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는 계엄령 식 법 시행의 제1단계에 들어섰다.""¹⁰⁹⁾

지배계급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어느 조치들을 배치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이것은 반동적 공격에 맞선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의 저항에도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국가기구를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방향으로 전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

예방 반혁명

지배계급이 어떻게 대량 록다운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간략한 연대기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예방적 반혁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배계급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대중투쟁이 진행되는 중에 이러한 공격의 파고를 높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 민중항쟁들이 완연한 혁명으로 전화하기 전에 그러한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는 이미 앞 장에서 지배계급이 일차적으로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속에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를 집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부르주아 정치가와 관측자들이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높아진 불안정과 소요, 분쟁"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바이러스로 촉발된 비상한 격변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보아온 상대적 평화에 실질적인 위협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질병은 "세상 모두에게 위협이자... 최근 과거 동안 아마도 유례가 없는 불황을 가져올 경제적 충격"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두 가지 사실의

109) Bloomberg: Coronavirus Surveillance Helps, But the Programs Are Hard to Stop, 6.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6/coronavirus-surveillance-helps-but-the-programs-are-hard-to-stop?srnd=premium-europe>

결합과, 이 결합이 높아진 불안정과 높아진 수요, 높아진 분쟁에 미칠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가 직면한 가장 도전적인 위기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¹¹⁰⁾

지배계급 관점에서의 이러한 고려는 특히 안드레아스 클루트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클루트는 현재 블룸버그 편집위원으로 독점 부르주아지 내 대표적 논자이며, 그 전에는 독일의 유수 자본가 신문 한델스블라트 글로벌의 편집장이자 이코노미스트의 논설위원이었다. 이 주의 깊은 부르주아 관측자는 지배 서클들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기간 계급투쟁의 극적인 상승과 이 위기의 폭발적 결과를 심분 인식하고 있었다는 우리의 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그릇된 상투적 논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주장이다.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는 그것이 다르다는 곳마다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머지않아, 이것은 봉기와 혁명을 포함하는 사회 대란을 야기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프랑스와 같은 부유한 나라의 질레 조누(노란 조끼) 폭동부터 수단, 볼리비아 등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에 대한 시위까지 약 100건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봉기 중 약 20건이 지도자를 실각시킨 반면, 몇몇 봉기는 잔인한 탄압으로 진압되었고 그 밖의 많은 봉기들이 폭발 직전 상태로 돌아가 다음 번 터질 때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는 민주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모두 강제로 주민들을 록다운 시킴으로써, 즉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거나 단체로 모이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요의 기세를 꺾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격리된 가정의 문 뒤에서, 길어져 가는 무료급식소 앞 대기줄에서, 교도소와 빈민가와 난민 수용소에서 — 이미 발병 전부터 사람들이 배고프고 아프고 한숨 쉬던 곳에서 — 비극과 트라우마가 쌓여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압력은 분출될 것이다.”¹¹¹⁾

또 다른 부르주아 경제학자도 자본주의 체제의 현 위험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표현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이제 17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뒤따른 패닉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질서 붕괴의 시작을 — 서방 국가들의 약점들이 모두의 눈에 분명해지면서 — 가져왔다.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부족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나라들의 정부한테는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다. 바이러스가 본성상 차별적이라서 주로 많이 아픈 사람들과 고령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온 세상을 들쭉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시스템이 취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¹¹²⁾

110) UN chief says coronavirus worst global crisis since World War II, 1 April 2020, <https://www.france24.com/en/20200401-un-chief-says-coronavirus-worst-global-crisis-since-world-war-ii>

111) Andreas Kluth: This Pandemic Will Lead to Social Revolutions. As the coronavirus sweeps the world, it hits the poor much harder than the better off. One consequence will be social unrest, even revolutions, Bloomberg, 11.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4-11/coronavirus-this-pandemic-will-lead-to-social-revolutions?srnd=premium-europe>

112) S. George Marano: Lessons from coronavirus pandemic will show that our economic models are deeply flawed, 1 Apr,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77879/lessons-coronavirus-pandemic-will-show-our-economic-models-are>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규모 시위의 발전에 대한 통계적 개요를 제시한 부르주아 싱크탱크의 새로운 연구에 주목을 요한 바 있다. 그들 부르주아 싱크탱크는 대중시위가 “세계의 모든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10년간 추세선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아랍 혁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대중시위 물결의 방아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아랍의 봄 사태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에 걸쳐 증가 하던 글로벌 추세의 특히 첨예한 표현이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 지난 10년을 그 이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태발전과 비교하며,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봉기 물결을 경험했다고 결론 내린다. “최근 시위의 규모와 빈도는 1960년대 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와 같은 대중시위 시대들의 역사적 예들을 무색케 한다.”¹¹³⁾

우리는 맑스주의자들이 이 모순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는 현대사에서 (적어도 194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대중투쟁 상승 물결을 경험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배계급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리더십의 결여 속에서 이 대중항쟁들은 대중이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실제 무장봉기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대중은 무장봉기 없이 전진하는 길이 있을 것 같은 각종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에 관한 논문에서 우리는 “인민대중이 뒤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전투에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¹¹⁴⁾

최근 민중항쟁 물결의 대규모적 성격과 전 세계적 확산으로 볼 때, 우리는 지배계급의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형태를 꺼내드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유추의 한계를 십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현 상황에 유효 적실성이 있어 보이는 레닌의 두 가지 사상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1907년 6월 3일 스톨리핀 쿠데타 직후 볼셰비키 당의 리더는 당시 러시아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성격규정 했다. “러시아의 현 정세는 간신히 봉기를 억누른 정세다.”¹¹⁵⁾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글로벌 계급투쟁 현주소에 대한 유용한 묘사로 보인다.

그리고 현 세계정치정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추를 참고해보자. 1917년 7월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정부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병사들의 자연발생적인 봉기에 대응하여 보나파르트주의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 성공적인 반혁명으로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성립됐다. 레닌은 이 새로운 지배체제에 다음과 같은 성격규정을 부여했다. “보나파르트주의는 민주 변화와 민주 혁명의 조건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본질에서 성장해 나오는 통치 형태다.”¹¹⁶⁾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성격규정과 현 정세와는 어떤 유사

113) Michael Pröbsting: A Powerful Confirmation. A bourgeois study on the revolutionary character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12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하며 걱정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보고: Samuel Brannen, Christian Stirling Haig, Katherine Schmidt: The Age of Mass Protests, Understanding an Escalating Global Tre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March 2020

114)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115) V. I. Lenin: Debate on Extension of Duma’s Budgetary Powers (1908), in: LCW Vol. 13, p. 438

116) V. I. Lenin: They do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1917), in: LCW Vol. 25, p. 259

성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또 현 사태발전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 정세의 비상함은 현 정세가 자본가 국가의 비상한 대규모 정치 개입에 의해 촉발되었다 — 그러한 개입이 현 정세를 야기한 ‘원인’은 아니지만 — 는 데 있다. 이것이 기획 조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에 의한 그러한 개입은 처음에 두 지배적 제국주의 강대국 중 하나에 의해, 이어서 서유럽 정부들에 의해 실행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것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몇 주 안에 전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연쇄반응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쳐두고 본다면 현 사태발전은 확실히 가장 글로벌화 된 세계정치정세다. 즉 서로 다른 대륙에서의 사태발전이 현대사의 여타 어느 정세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공황이 코로나19 위기를 원인으로 해서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심화되고 확대 고조된 것은 확실히 맞다. 그러한 이유로 지배계급들은 이 경제위기를 그것의 진정한 원인 — 자본 과잉축적과 이윤 저하 — 에 의해 설명하려 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이 경제위기는 과거 공황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 이유로 대중적 증오는 공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익명의 “시장의 힘” 대신) 보다 쉽게 부르주아 정부를 향해 조준될 것이다.

우리는 반혁명 공세의 현실성을 과대평가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아르헨티나 조직의 동지들이 RCIT의 정세평가에 반대하여 제기한 비판을 다루고자 한다. PST 쇄신 그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세계 반혁명 공세” 하에 있으며, 그것이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계급 역관계를 바꿔놓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 일부 좌파 조류들이 군대가 거리에 개입하고 대량 록다운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듯이 —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 지난해 전체가 홍콩에서 에콰도르, 칠레, 푸에르토리코를 거쳐 카탈루냐로, 이라크와 이란에서 아이티로 이어지는 혁명적 물결로 두드러졌다. 이 혁명들은 자본가 정부와 그들의 계획을 맹렬히 타격하며 전진했다. 팬데믹의 영향은 자본주의와의 싸움을 조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 국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대중에게 한순간의 혼란을 낳았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들이 한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혼란의 첫 순간에 편 책략들이 다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나 대중이 패배한 것은 없다. 그 반대다.”¹¹⁷⁾

우리는 이 동지들이 사회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좌파와는 대조적으로 부르주아 정부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일체의 기회주의적 투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환영한다. RCIT처럼, 이 동지들도 글로벌 록다운과 군사화 등 이들 자본주의 정책을 비난한다. 이와 같이 이 동지들과 우리는 중요한 공통 기반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더 이 동지들의 비판을 진지하게 취급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들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RCIT가 <시국선언>에서

117) Reagrupamiento Hacia el PST: LOS TRABAJADORES Y EL PUEBLO DEBEMOS TOMAR EN NUESTRAS PROPIAS MANOS LA LUCHA CONTRA EL CORONAVIRUS, March 2020, <https://revolucion56.webnode.es/coronavirus/> (영역은 필자)

이 문제에 대해 천명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19년에 시작한 계급투쟁과 민중항쟁들이 대폭 가라앉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투쟁들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칠레, 이라크, 알제리, 프랑스, 홍콩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여러 대담한 시위들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러시아-이란-아사드 점령군에 대항하여 이дли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해방투쟁은 또 다른 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이 그 힘을 증강함에 따라 이들 항의시위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준 혁명적 정세가 지금으로선 마감하고 글로벌 반혁명 정세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기본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칠레, 이라크, 프랑스, 홍콩 등에서 대중시위는 대폭 줄었다가 적어도 현재는 대부분 소멸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투쟁의 중대한 후퇴로서, 이 나라들 모두에서 매주 정기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수개월의 기간 뒤에 심각한 퇴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가들이 이 예방 반혁명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ILO의 가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인구의 약 81%인 27억 명의 노동자들이 현재 전면적 또는 부분적 록다운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들은 중상위소득 국가 노동인구의 87%와 고소득 국가 노동인구의 70%에 해당한다.¹¹⁸⁾

현 정세는, 동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전 세계의 부르주아 정부와 그들의 언론매체가 퍼뜨리고 있는 공포와 마비 효과로 인한 대중의 혼란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반혁명을 특징짓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구의 비상한 동원 — 국가비상사태, 거리의 경찰과 군대, 정권에 예외적인 권력 부여 등 — 도 반혁명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요컨대,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다른 문서들에서 강조했듯이, 배외 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대대적이고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전환, 명백히 이것은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반혁명적 힘의 동원·결집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질서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 제국주의 서구 나라들의 지배계급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형을 떠나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넘어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않은 채)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부후화 — 1929년 이후 최악의 공황과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와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 등으로 표현된 —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계급 역관계와 노동자 전위의 임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의 일부다. 그것은 혁명가들이 활동의 상당 부분을 비합법 조건 하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그러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해 노동자 전위를 정치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민주적 요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민중봉기를 준비할 필요를 설명하는 것 등등이 포함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계급투쟁 가능성도 없는 반혁명 '장기 암흑기'를 예견하는 것이

118) ILO Monitor 2nd edition: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7 April 2020, p. 2; see also ILO: COVID-19 causes devastating losses in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Press release, 7 April 2020,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40893/lang--en/index.htm

라고 동지들은 우려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의도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RCIT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시국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물론 다른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도 존재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박살내고 투사·활동가 층 전체를 파괴하는 반혁명적 정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07년 6월 스톨리핀 반동 이후의 러시아, 1933년 독일, 1973년 칠레, 2013년 7월 3일 군사쿠데타 이후의 이집트가 그런 경우다. 이들 반혁명 공격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인, 심지어는 역사적인 패배가 초래된 경우들이다. 현 정세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반혁명 공세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노동자·민중 운동의 상당 부문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공세다. 그것은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의 일시적 퇴조와 함께 억압적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공세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체로 크게 누적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자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들어올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몇몇 파업이나, 또는 룩다운 하에서 봉쇄 격리된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박수치고 노래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전도를 보여주는 사태발전의 예들이다. 또 강대국들 간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 간, 국가 간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했듯이 계급투쟁의 역사는 다양한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를 알고 있다. 케렌스키가 1917년 페트로그라드에서 7월의 날들의 패배 이후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을 수립했을 때도 반혁명적 정세가 존재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이 정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0월에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요약하면, 현 반혁명 공세가 지배질서에 대한 대중적 증오를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 뿐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민중항쟁 물결 — 팬데믹 이전의 — 은 ‘순진한 희망’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현 사태 — 경제파탄과 팬데믹과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결합 — 는 불가피하게 대중을 급진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환상이 깨지고 절박함이 커질 것이다. 자본가계급 자신들도 이것을 알아채고 “뉴 노멀”, 즉 뉴 리바이어던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자본주의 괴물에 대항하여 대중투쟁에 정세전망을 제공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3장. 뉴 리바이어던 시기 혁명 전략의 기본 원칙

위의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책은 그 자체로 목적인 학술적 작업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은 반혁명 공세에 맞서 계급투쟁을 위한 정세인식과 전략·전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여다. “맑스주의는 그 핵심 정수에서 혁명적 행동을 위한 일련의 방침이다”¹¹⁹⁾라는 트로츠키의 격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적 분석이 현 시기 혁명적 투쟁에 어떠한 결론을 가져오는지 논의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현 3중 위기가 혁명가들에게 비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는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공황의 결과들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동시에 부르주아 국가의 억압기구가 동원되고, 인민은 글로벌 록다운 때문에 집에 머물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나라들에서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두려움 아래 살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자본주의 반혁명 정치 쓰나미다!

이 반동적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가들의 으뜸가는 임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혁명적 노선의 중심축을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반혁명 노선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 반혁명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전략을 요구한다.

앞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3개의 재난 — 3차 대공황, 리바이어던, 팬데믹 — 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영역 각각이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적 대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혁명적 행동강령은 경제·정치·보건 요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팬데믹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자본가계급의 무능과 계급적 편협성과 싸우기 위한 일련의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보건 행동강령>에서 제시했듯이 (본서의 부록 참조), 그러한 일련의 요구는 무료 대량검사, 감염자에 대한 격리 및 위중한 경우 병원 무료 접근, 노동자 통제 하에 공중보건 부문 확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노동자 통제 하에 제약산업 몰수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¹²⁰⁾

또 쏟아지는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해고, 노동조건 악화, 임금삭감 등에 반대하는 요구와, 노동자통제 하에 기업 몰수, 부자들에게 대한 과세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 등,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은 록다운, 집회·시위 금지, 경찰·군대의 비상권력, 감시체계 구축 등에 반대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119) Leon Trotsky: Once Again, Whither France? Part I (1935), Monad Press, New Your 1979, pp. 70-71,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6/whitherfrance/ch01.htm>; 다음도 보라. Friedrich Engels: Letter to Friedrich Adolph Sorge, 29 November 1886, in: MECW Vol. 47, p. 532

120) RCIT: A Revolutionary Action Program to fight COVID-19! Workers and Oppressed: Don't trust the State of the Rich and Powerful! Trust only Yourselve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rcit/health-program-covid19>

요컨대, 3대 재난은 혁명가들에게 이 3대 영역 — 경제·정치·보건 요구들 — 을 모두 다루는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올바른 전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 세 영역의 내적 배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로 필요하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전 세계 지배계급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 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정치 반혁명, 즉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다.

정치적, 반민주적 공격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결집하고 단결하고 권리를 위해 싸울 가능성이 금지, 억압되고 있다.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와 파업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일부 경우에 실제로 했다 —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로 조직하고 싸우는 것은 현 반민주적 공격에 의해 사실상 전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급증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대항하는, 그리고 더 나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 능력을 대폭 저하시킨다. 사회적 쟁점이나 보건 쟁점에 대한 민중들의 그 어떤 진지한 투쟁도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적 법령들과 즉시 충돌할 것이다. 따라서 반동 리바이어던에 도전하는 정치적, 민주적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지 않고*는 경제나 보건 분야에서 그 어떤 진지한 — 위선적이지 않은 — 요구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현 위기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프로그램 (강령)에서 이 같은 접근법을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현재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들은 더 나은 건강 보호 대책에서부터 임금삭감·해고 반대까지 일련의 요구들을 열거한다. 당연히, 모든 요구 하나하나가 진보적이고 필요한 요구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강령들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 록다운 종식 요구, 집회·시위 권리 요구, 경찰국가/감시국가의 모든 측면에 반대하는 요구 말이다.

그러나 이 초보적인 결함은 그러한 강령들을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애처로운 구걸 편지로 전화시킨다! 노동자계급이 위기 때에 자본가들을 *대중투쟁 없이* 어떻게 양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노동자계급이 온라인 탄원서를 통해 “싸울”까?! 이런 초보적인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대중없이 “싸우는” 그런 개량주의적인 전략은 “무릎 꿇고 반항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아예 “엎드려서 반항하는” 것이다!

레닌은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사회주의자들의 의식에 깊은 혼란과 사고의 억눌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표명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연간이었다). “전쟁 때문에 사고가 억눌리고 전쟁의 끔찍한 인상과 고통스러운 결과나 양상의 무게에 짓눌려 판단과 분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사고의 억눌림”은 맑스주의 전략 내 민주주의 투쟁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결과할 수 있다.

“키에프스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의 모든 불행의 진정한 근원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논리상의 오류다. 이 오류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다 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핑크 난 자전거 타이어처럼 매 걸음마다 ‘터져나온다.’ 이때는 조국 방위 문제에서, 저때는 이혼 문제에서, 또 이때는 ‘권리’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해묵은 노예 제도의 파괴가 문제라고 하는 멋진 (‘권리’에 대한 심한 경멸로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한 무능력으로나 어느 모로나 멋진) 언사 속에서 그 오류는 ‘뜻하지 않게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사는 그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¹⁾

121) V.I. Lenin: Reply to P. Kievsky (Y. Pyatakov) (1916); in: LCW 23, p. 22 resp. p. 24 (강조는 원저자). [레닌 <키에프스키에 대한 회답>,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

민주주의 강령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같은 실패야말로 현 시기 대다수 좌파들의 거대한 실패의 중심 특징이다. 그러나 실로 맑스주의자들이 현 조건에서 리바이어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을 — 즉 정치적, 민주주의적 투쟁 — 선전·선동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 계급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록다운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 투쟁을, 반 리바이어던 투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단계에서 자본가 국가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집회·시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의 집회·시위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계급휴전 정치, 즉 개량주의적 투항 정치에 동의하는 것이다.

팬데믹 때 계급휴전 정치는 공공보건 방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킨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 문제로 나아가보자. 공공연하게든, 위장한 채로든 록다운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좌파들은 자신들이 민주적 권리 금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포스트-코로나19” 시기에는, 즉 현 팬데믹의 일정 조건들이 끝날 때는 이러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한다. 확실히, 몇몇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기회주의적 투항의 구실에 불과하고,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의 솔직한 반영이다. 투항주의자들과는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돌발적이고 일순 세상을 마비시키는 듯한 글로벌 사태에 압도되어 혼란스러워 하는 동지들과는 토론하고, 희망컨대 설득하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투쟁 일시 중단 정치를 위협한, 그리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예방 조치들 (손 씻기를 비롯한 그 밖의 표준 위생 조치들, 마스크 착용 —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 , 서로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등등)과 병행될 수 있고 또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거리로 나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부르주아 히스테리 선무행렬에 합세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다. 며칠 전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치사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간겔트 시에서 수행되었는데, 이 간겔트 시는 일종의 “독일 우한”으로, 본서 집필 시점에 독일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 (주민의 약 15%)이었다. 연구 결과, 전체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사율이 0.37%로 나왔다.¹²²⁾

셋째,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09년 H1N1 팬데믹 (“돼지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28만4천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5

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29쪽 133-4쪽
 122) Dr. Hendrik Streeck: Preliminary result and conclusions of the COVID-19 case cluster study (Gangelt Municipality), 9 April 2020. 이 연구는 다음 링크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내려 받을 수 있다
<https://www.land.nrw/de/pressemitteilung/uebergabe-erster-zwischenergebnisse-des-forschungsprojekts-covid-19-case-cluster-0>; 다음도 보라. KURIER: Coronavirus: 14 Prozent der Bewohner der deutschen Stadt Gangelt sind immune, 9 April 2020, <https://kurier.at/wissen/gesundheit/coronavirus-14-prozent-der-bewohner-der-deutschen-stadt-gangelt-sind-immun/400808312>

만 명에서 50만 명이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¹²³⁾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독재로 나아가는 조치들에 반대하며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문제는 팬데믹의 심각성에 달려 있지 않다. 과거에 20만 명이나, 30만 명, 또는 50만 명이 각종 팬데믹으로 죽었을 때 세계 어느 누구도 감히 민주주의를 문제 삼지 못했다. 왜 사회주의자가, 또는 민주주의자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2020년에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 50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을 때는 민주주의를 방어하지만, 그 보다 두세 배가 죽을 수도 있을 때는 부르주아 독재를 지지한다?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다시 묻는다. 혁명가들이 아프리카에서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는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챔피언이 되지만, 그러한 팬데믹이 유럽과 북미에 이를 때는 부르주아 국가비상사태 체제의 지지자가 된다?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노동 귀족-배외주의적 위선을 비추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모른다면, 맑스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심지어는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넷째, 팬데믹 때 계급투쟁을 중단, 연기하는 것은 생활수준을 방어하고 나아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건을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권위주의적 국가기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현 록다운을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공공보건 부문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물질적·위생적 생활 조건도 타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계급이 권좌에 더 오래 머물수록 반동적 프로그램을 밀어갈 시간이 자본가계급에게 더 많아지며 민중의 생활 및 보건 조건은 더 위험해진다.

다섯째, 계급휴전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지배계급에 대한 완전히 어이없는 신뢰를 드러낸다. 어째서 자본가 지배계급이 팬데믹과 싸우는 데 더 유능하다는 것인가?! 왜 노동자계급과 농촌·도시 빈민이 진보적인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보다 자본가계급이 더 잘할 거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하는 투쟁은 지금 솟아나오고 있는 반동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과 병행될 수 있고 또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모험주의인가, 체계적인 준비인가?

우리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안티 팬들이 대중이 거리에 나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모험주의적이고 초좌익적이라며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논리다. 첫째, 결정적인 문제는 혁명가들이 전위와 대중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다. 혁명가들은 록다운 정책이 반동적이라고 설명하는가? 혁명가들은 노동자·피억압자가 부르주아 국가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가? 아니면 노동자·피억압자가 록다운을 지지해야 하는가, 안타깝지만 록다운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한 채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현 시기에 결정적인 질문이다! 처음부터 RCIT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의 실체를 대중에게 밝혀주고 록다운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경

123) Robert Roos: CDC estimate of global H1N1 pandemic deaths: 284,000, 27 June 2012, <https://www.cidrap.umn.edu/news-perspective/2012/06/cdc-estimate-global-h1n1-pandemic-deaths-284000>

우에만 혁명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오직 대중의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만이 거리의 투쟁을 촉구할 때가 왔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록다운 정책에 맞서 거리에 나와 싸우지 않으면 또 한 번 후퇴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록다운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필요함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1차 세계대전 초기 국면에서 레닌과 볼셰비키가 취했던 것과 같다. 즉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요구하는 비타협적인 혁명적 노선에 깔려 있는 방법 말이다. 레닌은 1915년 제1차 치머발트 회의에 관한 글에서, 즉각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해야 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특수한 형태로 혁명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회의에서 제기된 바 없으며, 또 제기될 수도 없었다. 이를 위한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올바른 전술을 공동으로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운동의 *템포*와 큰 흐름 내에서의 (민족별, 지역별, 직종별) 변형을 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건들에 맡겨둬야 한다. 프랑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나키즘적 언사에 의해 타락했다고 한다면, 밀레랑주의에 의해서도 타락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언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채로 놔둠으로써* 이러한 타락을 *가중*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¹²⁴⁾

그리고 유명한 팸플릿 <<사회주의와 전쟁>>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임무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라는 슬로건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표현된다. 그리고 전쟁 중에 모든 일관되게 수행되는 계급투쟁과 모든 진지하게 행해지는 '대중행동' 전술은 필연적으로 이 슬로건에 이르게 된다. 강력한 혁명운동이 강대국들의 첫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아니면 두 번째 전쟁 중에 불타오를지, 전쟁 중일지 아니면 후일지 예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어느 경우든,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다.”¹²⁵⁾

나아가 우리는 전 세계 나라들에서 정치적 조건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중이 더 일찍 떨어져 일어서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우한이 성도(省都)인 중국 후베이 성에서,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나마 등지에서 이미 록다운과 반동적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폭동이 있었다. 브뤼셀에서는 경찰이 19세 청년을 록다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살한 뒤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났다.¹²⁶⁾ 계엄령 식 록다운 정책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중의 분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조만간 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조만간에 필연적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전위와 대중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124) V. I. Lenin: Revolutionary Marxists at the International Socialist Conference, September 5- 8, 1915, in: LCW 21, p. 391. [레닌 <1915년 9월 5-8일 국제사회주의자회의에서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10-11쪽]

125) V. 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The Attitude of the R.S.D.L.P. toward the War (1915); in: LCW 21, p. 313.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52쪽]

126) AFP : Dozens detained as rioting hits locked-down Brussels, 12 April 2020, <https://www.straitstimes.com/world/europe/dozens-detained-as-rioting-hits-locked-down-brussels>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의 해체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 뉴 리바이어던 — 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이 중심 고리로서 그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는 근거에는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평가가 놓여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역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는 떼어내도 상관없는 정치적 맹장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맑스주의자들”이 많다. 이것은 널리 퍼진 오해다. 우리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다.

자본주의는 (계급적) 대립물의 통일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경제적 생산관계와 정치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총체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서로 다른 층위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의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맑스가 — 그리고 그를 좇아 우리도 — 그냥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작업장에서의 잉여가치 착출에 조응하는 법적 관계를 보장해주고, 필요할 경우 폭력으로 이를 집행해주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작업장에서의 잉여가치 착출은 없을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다면 세계시장에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세계적 규모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관세와 대출 보증과 외교로, 심지어는 전쟁으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켜준다. 나아가 피억압 계급·계층을 지배 부르주아지에게 매어놓고서 착취와 억압에 어느 정도 타협하도록 만드는 촘촘히 짜인 이데올로기적 거미줄이 없다면, 계급갈등에 휩싸이는 사회의 모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 대학, 언론매체의 역할이 여기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자본이, 그리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가 상호 연관된 노동을,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자본은 상품 교환과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규제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법적 관계, 사회 등의 중요성이 나온다. 나아가 자본은 가치 창출 상품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어야만 — 사회적 활동 (여가, 가족 등)을 통해 회복되고,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으로 보전되어야만 — 존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국가의 규제·개입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식화가 나온다. ‘자본주의는 상품과 자본의 생산·재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의 생산·재생산을 또한 전제로 한다.’ 볼셰비키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1920년에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했다. “재생산 과정은 생산의 물질적 요소를 재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 자체를 재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확대 재생산은 기존 생산관계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기존 생산관계의 범위와 폭은 더 커진다. 기존 생산양식은 그 구성부분들의 내적 재편성과 함께 ‘확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은 그 내용물의 재생산이다...”¹²⁷⁾

따라서 자본가 국가의 사회적 기능은 “중립적 활동”이 아니라, 맑스가 <<프랑스 내란>>의 첫 초안에서 표현했듯이 “계급지배 기구”로서의 그 역할에 불매여 있는 기능이다.¹²⁸⁾

127) Nikolai Bukharin: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Transition Period (1920);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Kenneth J. Tarbuck, Routledge, New York 1979, pp. 83-84

128) Karl Marx: Drafts of The Civil War in France, in: MECW, Vol. 24, p. 486

러시아 볼셰비키 대표단은 1차 세계대전 중의 치머발트 운동을 위해 쓴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의 ‘본질’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억압 기능에 있다. 자본의 ‘본질’이 생산수단의 기능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¹²⁹⁾

국가의 중심 성격이 한 계급의 타 계급에 대한 지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이 말했듯이, “국가는 특별 무력 조직이다. 국가는 일부 계급의 억압을 위한 폭력의 조직이다.”¹³⁰⁾ 이러한 국가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국내의 적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뿐만 아니라 외국의 적 (다른 강대국 라이벌들과 남반구 피억압 인민)에 대해서도 방어한다. 부하린의 “제국주의 강도 국가” 범주는 이 (국가)기계애 아주 잘 들어맞는 성격규정이 다.¹³¹⁾

본서에서 개괄한 것처럼, 현 자본주의 3중 재난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일부 계급의 억압을 위한 폭력의 조직”이라는 자본가 국가의 핵심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파국적인 경계위기와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의 급가속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의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계에 대항하는 투쟁은 어느 혁명 조직의 정치 전략에서도 그 중심에 놓여야 한다. 즉 “국가권력의 강철주먹”¹³²⁾없이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면, 혁명가들은 이 반동적인 압제의 주먹을 깨부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혁명적 전략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다 환원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령은 이행강령의 모든 핵심 요소들 — 부르주아지에 대한 몰수·수탈과 은행·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하의 국유화, 노동자·민중의 무장봉기에 의한 자본가 국가 타도와 대중의 행동평의회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로의 대체 등 — 을 담고 있는 경우에만 혁명적 강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현 시기에 이러한 이행강령 내 특정한 추가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 분쇄를 위한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이 그것이다. 요컨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과 같은 것이 아니며, 같은 것일 수도 없다. (또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대체하지 않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한 투쟁을 맑스주의 강령의 핵심 요소로 배치하지 않고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 새로운 시기에 맑스주의 전략의 핵심 요소

129) Thesen über die sozialistische Revolution und die Aufgaben des Proletariats während seiner Diktatur in Rußland (1918), in: Angelica Balabanoff: Die Zimmerwalder Bewegung 1914-1919 (1928), Frankfurt 1969, p. 152 (영역은 필자). 문체로 판단할 때 이 테제는 부하린이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130)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in: CW Vol. 25, p. 407

131) Nikolai Bukharin and Evgenji Preobrashensky: A. B. C. of Communism, Vol. I, The Marxian Educational Society, Detroit 1921, p. 124

132) Nikolai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1915), Martin Lawrence Limited, London, p. 124

현 글로벌 반혁명 공세의 근본적인 반민주적 성격과 그에 따른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와의 투쟁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금 열린 새로운 시기에서는 민주주의 문제가 중심 지위를 점할 것이다. 최근의 사태발전이 민주주의 문제에 비중을 더 추가해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현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는 수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된 반민주적 사태발전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우리는 2016년에 채택된 RCIT 강령에서 이미 이 점을 지적했었다.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계급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제 권리를 침해, 유린하며 제한된 부르주아 민주주의까지도 자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와 독재로 대체하려고 애쓴다.”¹³³⁾

우리는 2015년에 발표한 팸플릿에서 이 사태발전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했다.¹³⁴⁾ 여기서는 그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요약하고 이 결론이 현 정세에 갖는 적실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 팸플릿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민주주의 문제는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21세기 제국주의 중심부에서도 계급투쟁에서 점하는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테제다. 위 인용문 중 하나에서 레닌은 “제국주의는 논란의 여지없이 민주주의 일반의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0년의 경험은 레닌의 테제가 제국주의 시대 전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옳지만, 이 시대 내 서로 다른 모든 시기들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 이유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는 확실히 대부분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된 시기였음을 우리는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2008/09년 자본주의 위기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시작과 함께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당연히 이 질적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행 발전의 결과였다. 우선 자본주의 위기가 질적으로 심화되었고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양보 여지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의 한 예로서, 우리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의 이주자 문제의 중요성과 이주자 및 난민에 대한 배외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우리가 거론한 다른 특징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주민 감시의 끝없는 확대, 민주적 권리의 침해 증가, 늘어나는 제국주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말리, 시리아 등)”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제국주의 강도 국가’는 국내와 국외에서 모두 지배계급의 점점 더 공격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몇 년 전에 RCIT는 2008년에 시작된 역사적 시기 이래로 어떻게 부르주아지의 반민주적 공세가 가속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또 민주적 권리에 대한 그러한 공격의 중대한 요소들을 확인해냈다. 우리는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예견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었지만, 배외주의와 보나파르트주의 국가의 역할 증대에 대해 경고

133) RCIT: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p. 1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rcit-manifesto-2016-korean/>]

134)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가 노동자·피억압자의 해방투쟁에서 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주의 문제의 현실 관련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맑스주의 고전들은 민주주의 문제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항상 강조해왔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작 몇 달 전에 레닌은 민주주의 문제의 현실 관련성을 과소평가한 동지들을 겨냥하여 논박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견해 [민족자결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의 견해 - 역자]는 민주주의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1)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없고, (2)일단 승리한 사회주의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공고히 하고 인류를 국가의 소멸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¹³⁵⁾

이로부터 혁명적 전략 내 민주적 제 권리 투쟁의 중심 지위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특히 제국주의는 민주주의를 환상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동시에 자본주의는 대중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열망을 낳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만들어내며, 제국주의의 민주주의 부정과 대중의 민주주의 지향 사이의 적대를 격화시킨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오직 경제적 혁명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지, 민주주의적 개조 - 가장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 에 의해서는 타도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훈련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적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¹³⁶⁾

다양한 비평가들은 RCIT가 민주주의 문제에 중점을 둬으로써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목표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사양해 왔다. 첫째, 민주주의 투쟁은 계급투쟁의 일부분이고 그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둘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 개량주의적 각도가 아닌 혁명적 각도에서 접근한다면 -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 참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문제를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배계급에게 청원하는 고립된 호소로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즉 노동자·민중을 모아내는 규합 슬로건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과거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혁명적 맑스주의자와 기회주의적 수정주의자 간의 주된 차이점은 양자 모두 민주주의 요구들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이 민주주의 요구들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그리고 이들 요구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팸플릿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수정주의자들과 우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i)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일관되게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제국주의 투쟁, 이주자의 권리 등을 지지하지 않는다).

135) V. 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23, p. 74.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28쪽]

136) V.I. Lenin: Reply to P. Kievsky (Y. Pyatakov) (1916); in: LCW 23, pp. 24-25. [레닌 <키에프 스키에게 보내는 회답>,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34쪽]

ii)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제기한다. 즉 그 슬로건을 부르주아 국가에게 청원하는 호소로 제출하며, 초점을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규합하는 데 두지 않고 의회 투쟁에 둔다. 수정주의자들은 또 제국주의 국가의 개혁 불가능한 반민주적 본질을 비난하지 않으며, 이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적 환상에 맞서 싸우는 데 힘쓰지 않는다.

iii)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요구들에 멈추며, 이러한 요구들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은 보통 이러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민주주의 단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계급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지에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첫 단계를 거치고 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이 훨씬 더 질 나쁜 배신적 범죄까지도 저지러 수 있다는 것을 위 진술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지배계급들이 감행하고 있는 현 특다운 공격 같은 사안들에서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민주주의 슬로건을 제기하는 데서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반민주적 반혁명을 공공연하게 지지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의, 일관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장 확고한 주창자여야 하며, 이러한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적 과제와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볼셰비키의 인식이기도 했다.

“모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제출된 식민지의 즉각적인 해방 요구 또한 일련의 혁명 없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가 이 모든 요구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단호한 투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거부하는 부르주아지와 반동을 이롭게 해줄 뿐이다). 반대로,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한 요구들이 개량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정식화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합법성의 경계를 넘어 나아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회 연설과 구두 항의를 넘어 대중을 결정적인 행동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공격으로까지, 즉 부르주아지를 수탈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어떤 대규모 파업이나 거리 시위나 기아 폭동이나 군사 반란이나 식민지 반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드레퓌스 사건이나 차베른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의 결과로도, 또는 피억압 민족의 분리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등과 연계해서도 터져 나올 수 있다.”¹³⁷⁾

요컨대, 민주주의 강령은 그 전체로서나, 핵심적인 부분들에서나 자본주의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는 사회주의혁명 이후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RCIT는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주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민주주의 대중운동이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이끌릴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 운동 내부에서 싸워야 하며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행동하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중 투쟁기관 (행동평의회, 정당방위대, 소비에트 등등) 구성을 내거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당면 요구/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노동자 통제 하에 대기업 몰수 △노동자의 무장 △노동자정부 수립과 같은 주요 이행기 슬로건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과 결합시켜야 한다.

137)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5

전체 민주주의 강령뿐만 아니라 이들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리더십을 획득해갈 수 있는 혁명적 노동자당의 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당은 엄격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하에서 남반구 노동자계급·피억압자와의 연대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제국주의 중심부 노동자들의 일차적인 의무임을 분명히 하는 당이다. 이러한 국제주의가 순수관념적인 립서비스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그러한 당은 혁명적 강령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일부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약하자면, 현 코로나19 위기는 민주주의 문제, 즉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 문제를 중심에 가져다 놓고 있다. 민주주의 강령은, 정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이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 즉 부르주아지 타도/ 자본가국가 분쇄 투쟁과 결합될 때에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를 공격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기계 일반을 공격하는 길을 연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현 3중 위기에 맞서는 행동강령은 경제적 요구·보건 요구를 정치적 슬로건, 혁명적 민주주의 슬로건과 연결시키고 이 후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연속혁명 전략의 현실성

민주주의 문제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 간의 밀접하고 필수불가결한 관계는 연속혁명론 — 처음 칼 맑스에 의해 표명되었고 나중에 레온 트로츠키에 의해 한 걸음 더 발전된 맑스주의 기본 이론 — 의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지적했듯이, 연속혁명론은 제국주의 시대에 맑스주의의 핵심 구성부분으로, 세계 각 나라에 두루 현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트로츠키는 혁명가들이 이 이론 없이는 계급투쟁 동역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부터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 1931년의 한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이 [연속혁명] 이론은 각 동시대 일국 혁명의 내적 동역학 및 그 일국 혁명이 국제 혁명과 맺고 있는 중단 없는 연결을 규명하는 유일무이한 올바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이론 속에 볼셰비키-레닌주의자들은 지난 30년간 대 사건들의 내용이 담긴 투쟁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에 근거하여, 좌익반대파는 개량주의자, 중도주의자, 민족공산주의자와 단호히 싸우고 있고, 또 싸울 것입니다. 이 공식의 가장 귀중한 장점 중 하나는 아류 모방자들의 온갖 수정주의와 연결된 이데올로기적 끈을 면도칼처럼 썰어 낸다는 것입니다.”¹³⁸⁾

여기서 우리는 연속혁명론의 세 가지 중심 측면을 간략하게 요약할 것이다. 첫 번째 측면 — 이 측면은 1923년 스탈린주의 관료와 트로츠키의 좌익반대파 간 분파투쟁 당시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 은 혁명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 즉 계급과 국가가 고사(枯死)할 만큼 생산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 — 가 일국에서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그 자신과 레닌의 전통적 입장을 끌어대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레닌과 트로츠키 모두 모든 일국 경제들은 세계경제와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일국에서 승리한 혁명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오른 노동자계급은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138) Leon Trotsky: Another Letter to Albert Treint (1931), Trotsky Writings 1930-31,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19

“일국 경계 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부르주아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낸 생산력이 더 이상 민족국가 틀과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유럽 합중국이라는 유토피아가 나온다. 사회주의혁명은 일국 무대에서 시작하고, 국제무대에서 전개되며, 세계무대에서 완성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은 연속혁명 — 그 말의 더 새롭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 이 된다. 사회주의혁명은 우리 행성 전체에서 새로운 사회가 최종 승리할 때 비로소 완성에 이른다.”¹³⁹⁾

둘째, 트로츠키는 프롤레타리아 해방 투쟁에서의 과제 — 민주주의 과제들을 포함한 — 는 그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실행될 수 없고,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많은 민주주의 과제들 — 민족독립, 토지혁명, 민주적 자유권들 — 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후진국들한테 특히 (그러나 오로지는 아닌) 적실성을 갖는다. 이로부터 혁명적 계급투쟁은 혁명의 분리된 단계들 속에서의 과제 실현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독재를 수립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혁명의 첫 삽화적 단계들이 개별 나라들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 간의 혁명적 동맹의 실현은 공산당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의 정치적 지도하에서만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는 농민과의 동맹에 기반을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혁명 과제들을 해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혁명의 지도자로 권력에 오른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르게 맞닥뜨리게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은 그것을 이행할 경우 부르주아 소유권을 깊이 침해해 들어 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과제들이다. 민주주의 혁명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화되며, 그럼으로써 연속혁명이 된다.”¹⁴⁰⁾

마지막으로, 트로츠키는 혁명적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확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계속적으로 혁명적 과정을 밀고 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내부적으로는 국내의 적에 맞서, 동시에 외부로는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계급투쟁 — 내전과 혁명전쟁을 포함한 — 을 조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은 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따름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오직 일국적·국제적 규모로의 계급투쟁의 기초 위에서만 상상할 수 있다. 이 투쟁은, 세계무대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압도적인 우세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폭발로, 즉 내부적으로는 내전으로, 외부적으로는 혁명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혁명의 연속혁명적 성격이 있다. 해당 나라가 뒤떨어진 나라인지, 즉 어제서야 자신의 민주주의 혁명을 성취한 후진국인지, 아니면 이미 오랜 민주주의·의회주의 시대를 뒤에 두고 있는 구 자본주의 나라인지에 상관없이 말이다.”¹⁴¹⁾

RCIT는 연속혁명 전략이 남반구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들한테도 적실성을 갖는

139)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97

140)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 277

141)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 297

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해왔다. 많은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하여 각종 수정주의자들의 결정적인 패착 지점이 바로 이 특징을 무시하는 것이다. 연속혁명 전략은 불균등·결합 발전 법칙 동전의 강령적 이면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중심 부들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연속혁명은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전략이 되어준다.¹⁴²⁾

트로츠키는 주로 소위 “뒤떨어진” 나라들 — 1917년 이전의 러시아와 같은 후진 제국주의 나라들이나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 에서의 혁명적 과제라는 맥락 속에서 연속혁명론에 대해 썼지만, 동시에 이 이론이 선진 제국주의 나라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히 했다. 1930년대 초에 그는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독일 — 그 당시 가장 선진적인 제국주의 나라 중 하나 — 을 예로 들었다. “이제 연속혁명의 문제는 이베리아 반도를 무대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독일에서는 연속혁명론이 — 그리고 이 이론 홀로 — “인민혁명”론에 맞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좌익반대파는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했다.”¹⁴³⁾

동일하게 트로츠키는 제국주의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에 대항하는 투쟁을 연속혁명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았다. “반파시스트 혁명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더 이탈리아 문제가 세계 공산주의의 근본 문제, 즉 이른바 연속혁명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⁴⁴⁾

또 그는 미국에서 흑인 소수자의 해방 투쟁과 관련하여서도 연속혁명 전략을 꺼내들었다. “흑인들의 ‘민족 자결’은 미국에서의 연속혁명 문제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웨이스보드는 옳다.”¹⁴⁵⁾

이 몇 개의 인용문이 이미 보여주듯이, 트로츠키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연속혁명론이 제국주의 사회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두루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음은 확실하다. 최근의 사태발전은 연속혁명론이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들 — 서유럽·북미와 함께 중국·러시아까지 포함하여 — 에도 실제로 매우 적실하다는 RCIT의 테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주의 문제가 혁명적 의의를 가지기 위한 유일한, 그러나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그 문제를 소부르주아 개량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혁명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에서 국제주의 없이 혁명적 전략 없다

RCIT는 국제주의적 접근 없이는 세계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서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되풀이해서 지적해 왔다. 자본주의 일반과, 특수하게는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정치적·경제적 세계체제로 이해되어야만 파악될 수 있다고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주장해 왔다. 각국의 정치·경제 관계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단지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할 수 없다. 제국주의는 함께 얽혀 있는 민족국가들 및 경

142) 우리는 다음 글에서 불균등·결합 발전 이론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143) Leon Trotsky: A Letter to Albert Treint (1931), Trotsky Writings 1930-31,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14

144) Leon Trotsky: Problems of the Italian Revolution (1930); in Trotsky Writings 1930, p.223

145) Leon Trotsky: The Negro Question in America (1933); in: Leon Trotsky: On Black Nationalism and Self-Determination, Merit Publishers, New York 1967, p. 25.

제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결정적 원동력이 되는 것이 제국주의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는 일국적 요인들의 용광로로 작용하며, 민족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독립적인 총체를 형성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결합 발전은 한 나라의 주어진 지역적 특성과 동조를 이루며, 그 국가의 정치·경제 관계의 특수한 일국적 동역학과 융합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같은 *세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맑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세계적* 관점을, 그에 따라 계급투쟁에 대한 *세계적* 관점을 세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 일반에, 그리고 특수하게는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반제국주의 전술에 심오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은 개량주의적인 “일국 사회주의”론과 완전히 상반된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이 “일국 사회주의”론을 레닌과 볼셰비키가 발전시킨 — 그리고 나중에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이 방어한 — 국제주의 전략에 대한 대항마로 세웠다. 이 스탈린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즉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번영된 사회인 사회주의가 일국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승리 없이 일국에서 건설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이제 소련의 대외정책은, 그리고 그에 따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정치는 더 이상 혁명을 국제화한다는 목표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야 했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에 관한 그의 책에서 두 이론 간의 대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상호 배제적인 두 관점, 즉 연속혁명이라는 국제혁명 이론과 일국 사회주의라는 민족개량주의 이론에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다. 후진적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일국 경계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일국 테두리를 넘어 성장한 고도로 발달된 생산력이 이에 저항한다. 불충분하게 발달된 생산력이 국유화에 저항하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중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마주칠 것들과는 성격상 다른, 그러나 결코 더 가볍지 않은 어려움과 모순에 마주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두 경우 모두 국제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적 변혁에 중국이 ‘성숙’했는가 ‘미성숙’했는가 하는 문제가 들어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중국의 후진성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과제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역사는 순서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으며,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¹⁴⁶⁾

우리가 이 책의 첫 장에서 지적했듯이,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특징으로 하는 현 정세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국제적 성격을 특히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것은 혁명적 투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또한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맑스주의자들이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스탈린주의 개념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일국에서 성공적인 혁명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급투쟁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다.¹⁴⁷⁾

둘째, 계급투쟁에 대한 일관된 국제주의적 인식은 강령과 당 건설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146)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255

14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특히 8장과 14장).

미친다. “일국 사회주의”는 ‘자’국에서의 계급투쟁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을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한 ‘자’국에서의 당 건설을 우선시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당 건설을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보통 ‘자’국 내 민족 소수자들과 이주자들에 대해 무지한 태도, 또는 심지어 사회배외주의적인 태도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일국 사회주의”는 이론·강령·조직 분야에서 민족 중심주의와 민족 개량주의로 귀착된다.

실제로, 우리는 혁명가로 행동할 의향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일국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된 많은 조직들이 국제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일국 사업에 강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본다. 그 결과 그들은 국제 계급투쟁과 혁명적 세계당 건설 문제를 제대로 취급하길 거부한다.

트로츠키는 1928년 스탈린주의 강령 비판 속에서 일국 정치는 국제적 맥락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므로 국제 강령은 세계당뿐만 아니라 그 어느 일국 조직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국주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즉 세계경제와 세계정치가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 있는 시대에는 공산당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국 내의 발전 조건 및 경향만 고려하여 활동해서는 자신의 강령을 수립할 수 없다. 이 점은 또한 소련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당에도 전적으로 해당된다. 1914년 8월 4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 일국 강령에 영원히 조종이 올랐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당이 자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 및 붕괴의 시대인 현 시대에 조용하는 국제 강령뿐이다. 국제 공산주의 강령은 어떤 경우에도 일국 강령들의 총합이나 일국 강령들의 공통 특징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국제 강령은 전체로서의 — 즉 그 개개의 부분들이 적대적인 상호의존을 이루고 있는 —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체제의 조건 및 경향을 그 모든 연관과 모순 속에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 현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정도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각국 운동방향은 세계 운동방향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또 그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 반대는 아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적 국제주의와 온갖 종류의 민족 사회주의 간의 기본적인 일차적인 차이가 있다.”¹⁴⁸⁾

같은 이유로 인해, 오직 일국 지형 위에서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혁명적 조직은 국제적 조직으로서 동시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국제 조직 건설을 “시기상조”로 간주한 혁명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볼 때 국제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인터내셔널을 일국 지부들의 합으로, 또는 일국 지부들의 상호영향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면적이고, 비변증법적이며, 따라서 인터내셔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만약 전 세계를 통틀어 공산주의적 좌파가 단지 5명뿐이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마땅히 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국 지부 건설과 동시적으로 국제 조직을 건설할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일국 조직을 토대로, 인터내셔널을 지부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여기서의 상호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유형의 관계입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1847년에 국제 문서와 국제 조직 창설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1 인터내셔널의 창설에서도 같은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준비 과정에서 치머발트 좌파도 그 바로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맑스 시대보다 훨씬 더 고압적으로 이 길을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경향이 이 또는 저 일국에서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립된 일국에서 번성하고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148)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4.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22쪽]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경향은 그 형성 바로 다음날에 국제 유대, 국제 정강, 국제 조직을 찾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국 정책의 올바름에 대한 보장은 오직 이 길을 따라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일국적으로 자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조직은 자신을 돌이킬 수 없이 타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문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제반대파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접근법을 순 형식적이고 생기 없고, 정치적이지 않은, 그리고 혁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정강이나 강령은 일련의 공통의 사상과 방법에 기초한 폭넓은 공동활동 경험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925년 정강은 여러분이 정파로 존재한 바로 첫날에 탄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러시아의 반대파는 그 투쟁 5년차에 정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정강이 여러분의 정강보다 2년 반 뒤에 나왔지만, 그 또한 여러 면에서 구식이 되었습니다.”¹⁴⁹⁾

요약하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세계적 체제로서 존재하며, 또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투쟁은 국제적 계급투쟁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사회주의 세계경제와 전 세계 노동자·농민 공화국 연방*의 창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한 투쟁은 *세계당*, 즉 *일국적으로 고립된* 그룹들이 아닌 *국제* 조직을 요구한다.

149) Leon Trotsky: To the Editorial Board of Prometeo (1930); in: Writings 1930, pp. 285-286

4장. 다가오는 계급투쟁 - 혁명적 전술과 슬로건

앞 장들에서 설명했듯이, 현 3중 위기 — 3차 대공황, 리바이어던, 코로나19 — 는 지배계급에 의한 글로벌 반혁명 공세로 결과했다. 우리는 이 반혁명의 *정치적 노선*이 핵심 측면이라고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이후 그들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싸울 능력을 이 반혁명이 심각하게 공격하고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이 자신의 생존 및 투쟁 조건을 방어하는 것을 돕는 데 가장 적합한 전술과 슬로건을 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벼락에 그린 낙서로 퍼지기 시작한 훌륭한 슬로건이 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다. 자본주의가 팬데믹이다.” 실로,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다.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대량빈곤을 초래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인간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기 쉽게 하는 것은 가난과 열악한 생활조건이다. 공중보건 서비스의 삭감 및 폐쇄를 가져온 수십 년간의 긴축 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한줌의 슈퍼리치·권력자 엘리트가 인민대중을 지배하며 경찰과 군에 비상권력을 부여하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다. 즉 노동자·민중에게 주된 위협이자 생명의 주된 위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지속적 존재다.

이 모든 이유로 계급투쟁 전략·전술은 노동자·피억압자가 현 조건 하에서 어떻게 주 위험과 주적 — 자본가 지배계급 — 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현 정세와 그것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결과

현 정세가 글로벌 계급투쟁 조건에 물고 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성격규정으로 시작해보자. 이미 밝혔듯이, RCIT는 현 3중 위기가 노동자·민중 투쟁의 전망에 미칠 영향이 극히 심대하다고 본다. 경제 침체는 실업을 단번에 3,4배 이상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은 정부 권력을 확대하고 경찰국가·감시국가를 구축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 축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전 세계에 공포를 퍼뜨리는 심각한 건강 위협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공격을 덮어 가리는 엄폐물로 이 팬데믹을 이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계급투쟁에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 요인은 한편으로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조건들을 복잡하게 만든다. 높은 실업과 빈곤은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가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농촌 및 도시 빈곤층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훨씬 더 많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된 억압기구, 민주적 권리의 제한, 완벽한 첨단기술 감시방법 등이 조직하고 투쟁할 조건을 또한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조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쪽 면일 뿐이다. 다른 면은 바로 그 동일한 3중 위기가 조만간 대중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록다운 정책은 기아와 빈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생활조건에 직접적이고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첫 번째 기아 폭동

(예들 들어 콜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짐바브웨 등)이 있었고, 더 많은 것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3중 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의 심대한 위기의 시기를 열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배 서클들이 억압 조치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비상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현 위기의 극적인 성격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제시했듯이, 코로나19 위기가 즉각적으로 글로벌 반혁명 정세를 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몇 주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치적 이용으로 국가 비상대권의 대대적인 강화가 가능해졌고, 그와 동시에 홍콩에서 칠레에 이르는 많은 나라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부르주아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있던 모든 대중운동 및 투쟁들이 거대한 퇴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말했듯이,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체로 크게 누적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자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또 강대국들 간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간, 국가 간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동·서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즉 현 반혁명 정세는 “긴 암흑기”를 열지 않으며, 열 수도 없다. 지배계급의 공세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어떠한 동력도 공급하지 못한다. 정반대로, 이러한 비상조치들은 거대한 모순을 일시적으로 덮어 가리고 엄청난 폭발을 잠시 지연시키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요컨대 현재의 반동 공세는 향후의 정치적 폭발을 준비한다. 즉 중대한 혁명적 위기를 성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치적 폭발은 자본주의 현 단계가 쇠퇴·부후화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 역사적인 시기 — 2008년 대침체로 시작된 — 에 자본주의의 쇠락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 생태 재앙 등 문명의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참상, 고통이 확산되고 한쪽의 자본가와 다른 한쪽의 노동자·빈민 간의 적대가 더욱더 첨예해지고 가시화되고 있다. 또 남반구에서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이 증가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 특히 미·중 간 — 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10년간 계급투쟁의 극적인 증가 — 1945년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증가 — 를 가져왔다. RCIT가 이 역사적인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계무대에서의 기본적인 균형 결여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09년 1월에 이 시기에 대한 그와 같은 평가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많은 문서에서 우리의 분석을 더욱 더 정밀하게 다듬어나갔다.¹⁵⁰⁾

150) 다음을 보라. chapter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지난 몇 년 동안 RCIT가 발간한 연례 <세계 정세전망> 문서들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영리한 부르주아 관측자들도 현 3중 위기의 진행 속에서 다가오는 시기의 폭발적 성격을 알아차려 가고 있다. 여기 몇몇 예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일단 록다운이 끝나면 있게 될 “사회적 소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당하게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사회적 소요의 물결이 일부 나라들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IMF가 수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엄격한 록다운이 계속 실시되는 한 대중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기가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불만이 솟구칠 수 있다고 비토르 가스파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도의 상업 수도 뭄바이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3억 주민에 대한 록다운 기간을 연장하자 수천 명의 실직 이주노동자들이 화요일 기차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시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IMF 수석경제학자 기타 고포나스는 이전의 위기와 재난은 연대를 키워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포나스는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람들을 돕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 사회적 소요로 끝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¹⁵¹⁾

블룸버그 통신 — 독점 부르주아지의 대변 매체 — 의 안드레아스 클루트도 같은 경고를 받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11 January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RCIT: Escalation of Inner-Imperialist Rivalry Marks the Opening of a New Phase of Worl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April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2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14/>; RCIT: Aggravation of Contradictions, Deepening of Crisis of Leadership.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9.9.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september201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151) Andrea Shalal: Pandemic could trigger social unrest in some countries: IMF, 15 April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imf-worldbank-coronavirus-protests/pandemic-could-trigger-social-unrest-in-some-countries-imf-idUSKCN21X1RC>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의료 비상사태가 일단락되면 개별 나라들이나 세계가 이전처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할 것이다. 분노와 쓰라림은 새로운 배출구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나타난 조짐들이 있다. 수백만 명의 브라질인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창문에서 냄비와 팬을 광광 두드린 일이나, 레바논의 재소자들이 과밀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그런 예다. 때가 되면, 이러한 걱정은 그들이 적으로 규정하는 구체제를 일소하기로 작정한 새로운 포퓰리즘 운동이나 급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20년의 대 팬데믹은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그것은 불평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그러나 여전히 실용적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단지 코로나바이러스에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 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비상벨이다.”¹⁵²⁾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오랜 대변인 헨리 키신저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기사에서 지배 엘리트들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국가들은 그들의 기관이 재앙을 예견하고, 재앙이 가져온 타격을 막아내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협력하고 변창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단락되면, 많은 나라의 기관들이 실패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한지는 중요치 않다. 현실은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주로 일국적 기초 위에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사회 해체 효과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 건강에 대한 공격은 — 바라건대 — 일시적이겠지만, 그것이 촉발한 정치적·경제적 격변은 수 세대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획기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 지도자들 앞에 놓인 역사적인 도전과제는 미래를 건설하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실패는 세계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될 수 있다.”¹⁵³⁾

역사를 통틀어 유행병은 보통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위기의 반영이다. 따라서 유행병은 정치 불안정과 민중 소요로 —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 결과하는 경우가 많다.¹⁵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흑사병”이 일련의 농민봉기로 결과한 14세기 유럽의 경우가 이미 그러했다. 이 농민봉기들은 최종적으로 혁명적 대중봉기와 서유럽에서의 봉건제 쇠락으로 결과했다. 또 19세기에도 많은 유행병이 있었는데 모두 유럽에서의 혁명적 위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다.¹⁵⁵⁾

글로벌 반혁명 공격이 계급투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위기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몇몇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아직도 대중이 일정한 충격 단계에 있는 것 같다. 만약 거의 모든 자본가 정부와 그들의 언론이 — 그리고 노동자·민중 운동의 비겁한 지도부들이 — 코로나19 팬데믹의 치명성에 대해, “사

152) Andreas Kluth: This Pandemic Will Lead to Social Revolutions. As the coronavirus sweeps the world, it hits the poor much harder than the better off. One consequence will be social unrest, even revolutions, Bloomberg, 11.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4-11/coronavirus-this-pandemic-will-lead-to-social-revolutions?srnd=premium-europe>

153) Henry Kissinger: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Wall Street Journal, 3 April 2020,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11585953005>

15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J. Evans: Epidemics and Revolutions: Cholera in Nineteenth-Century Europe, in: Terence Ranger and Paul Slack (Ed.): Epidemics and Ideas. Essays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pestil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p. 149-173

155) Yossi Schwartz: The 2019 Corona Virus and the Decay of Capitalism,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d-decay-of-capitalism/>

회적 거리두기”와 록다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대대적인 기습공격, 즉 국가 비상사태 실시와 집회·시위 금지가 덧붙여진다. 이와 같이 혼란과 두려움이 만연한다. 다른 한편으론, 이 같은 극한적인 조건이 기아와 함께 증오도 낳는다. 이미 후베이,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파나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폭동들이 그것이다. 이 폭동들이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집단시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이 미래의 전령이라고 생각한다. 혁명가들이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위를 전면 지지해야 하며, 조직하고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분석은 맑스주의자들이 현 정세에서 제출해야 할 전술과 슬로건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가? 한편으로 경제적 공격, 정치적 공격, 보건 공격, 이 세 공격의 거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대응의 성격은 불가피하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문서에서 밝혔듯이, 우선적인 것은 해고·임금삭감 반대, 사회보장 방어,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 무상 의료 접근권, 집회·시위의 권리, 국가비상사태 법 철폐 등이다. 혁명가들이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건 행동강령>을 보라. 또 우리의 <시국선언> 말미에 있는 요구안도 보라. 두 문서 모두 본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그래서 정세의 성격상 혁명가들은 일련의 *방어적* 슬로건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고도로 “폭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말했듯이, 이는 혁명가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탄원하는 청원 식 요구 제기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호소,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조건 하에서 이러한 투쟁은 *고도로 혁명적인 투쟁 형태*인데,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대중시위를 금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을 어겨서 깨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방어적인 경제적·민주적 요구 투쟁은, 그 투쟁이 현재의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에 도전한다면 고도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담게 된다. 이는 그러한 슬로건 — 청원 사항이 아니라 투쟁 요구로 정식화된 — 이 대중이 실제로 그것을 위해 투쟁한다면 상대적으로 급속히 혁명적 권력 투쟁으로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혁명적 리더십의 위기가 — 즉 진정한 혁명적 세력의 취약함으로 인해 배반적인 개량주의 관료들이 노동자·민중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조건이 —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더 긴 계급투쟁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다수의 준 혁명적, 혁명적, 반혁명적 정세들로 결과할 격렬한 계급투쟁의 보다 장기화된 국면 말이다.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할 것이다. 레닌은 이미 사회주의혁명이 한 차례의 행위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시대 전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주의혁명은 한 차례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의 전선에서 치러지는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참여한 계급층들의 한 시대 전체, 모든 전선에서, 즉 경제와 정치의 모든 문제에서 치러지는 긴 일련의 전투들, 오직 부르주아지의 수탈로만 끝날 수 있는 전투들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 유리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사회주의혁명을 못 보도록 감추고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다.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 없이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¹⁵⁶⁾

156)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44

주 슬로건: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어느 전술이든 혁명가들에게 전술의 출발점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며 “단합”을 촉구하는 부르주아 선전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아닌 그러한 “국민 통합”을 엄폐물 삼아 자본가들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몰며 사회보장을 삭감하고 있다. 지배계급이 국가비상사태를 때리고 억압기구를 증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반동적 “국민 단합”을 명분으로 내걸고서 한다.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지배하는 개량주의 관료의 “국민 통합” 지지는 계급휴전에 준한다. 즉,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것에 다른 아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는 우리 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무장 해제를 가져온다. 대중투쟁 없이는 노동자·민중은 정치적·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국민 통합”을 엄폐물 삼은 지배계급의 공격에 대항하여 투쟁한 많은 경험이 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볼셰비키는 거대한 애국주의 물결에 직면했다. 총력 전쟁에서 정부를 약화시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요구에 부딪혔다. 잘 알려진 대로, 맑스주의자들은 그 어떤 투항도 거부하였고, 오히려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1914년 8월 개전 직후 볼셰비키는 <중앙위원회 선언>을 통해 ‘내란 전화’를 중심 슬로건으로 제기했다. “단 하나의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은 현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⁷⁾ 1910-11년 러시아에서 콜레라 유행병과 기근이 창궐하던 때 볼셰비키는 같은 정신으로, 맑스주의적 선전은 “혁명 없이는 기근에 대항하는 진정한 투쟁은 상상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보라).

혁명가들은 현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노선을 총괄하는, 그와 비슷한 슬로건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를 현 단계 해방투쟁 앞에 놓인 핵심 장애물로 지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순이 급격히 첨예화하고 당면 요구 투쟁이 쉽사리 정권과의 격렬한 충돌로 결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기는 폭발적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다가오는 시기의 전략 노선에 대한 총괄요약으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비상사태를 민중봉기로 전화하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혁명가들은 당면 행동에 필요한 슬로건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나라에서의 대중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비상사태 정권에 맞서 싸우고, 봉기로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필요를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뉴 리바이어던에 대항하는 투쟁을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러한 슬로건은 우리의 <시국선언>이나 <보건 행동강령>에 제시된 구체적인 요구들을 비롯한 그 밖의 <<이행강령>>상의 적절한 요구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정부를 신뢰하지 말 것, 정부가 공격을 엄폐하기 위해 퍼뜨리는 여론 조작을 믿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긴급하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와 피억압자여,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국가를 믿지 말자! 오직 자신만을 믿자!” 이러한 슬로건은 지배계급과 협력하여가 아니라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팬데믹과 싸울 필요성을 표현한

157) V.I. Lenin: The War and Russian Social-Democracy (1914); in: LCW Vol. 21, p.34. [레닌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레닌 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41쪽]

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체 안(案)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보건 조건을 개선하는 안, 민중 보건 발의를 조직하는 안, 탄압에 맞서 정당방위대를 조직하는 안,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여, 가능할 경우는 노동조합 안에서, 필요할 경우는 밖에서 싸우는 안 등등.

위에서 말했듯이 혁명가들은 자연발생적인 대중시위들을 지지하고 이 시위들에 방향과 조직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직장과 지역, 주민, 학교에 행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혁명가들이 남반구에 살고 있는 피억압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선동을 긴급히 조직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기아와 전염병 같은 모든 끔찍한 결과들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들 피억압 인민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조직들이, 특히 제국주의 나라의 이들 조직들이 *남반구 인민들을 위한 대규모 국제 원조와 함께 모든 부채의 즉각 무효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여기서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남반구 우리 인민의 부와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갔다!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빛을 갠야 할 때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라이벌 강대국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RCIT가 반복해서 제시했듯이, 맑스주의자들은 그러한 경우에 혁명적 패전주의 정책을 내걸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半)식민지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은 피억압 인민의 방위·방어와 제국주의 적들의 패전을 내걸 것이다.

나아가 “국민통합” 및 계급휴전 정책, 긴축 프로그램, 록다운 정책, 민주적 권리 억압 등등을 지지하는 관료들에 맞서 혁명가들이 노동자·민중 운동 내부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민중 운동 내 지배계급 반혁명 공세의 지지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없이 반혁명 공세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은 이러한 방향을 요약 총괄한 슬로건이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와 싸우자! 록다운 좌파와 단절하자!”*

이것이 혁명가들이 올바른 투쟁방향을 위해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에서 싸우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혁명가들은 “진보적인” 의회 대표들에게 록다운, 국가비상사태, 집회·시위 금지, 자본가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가능케 하는 모든 반동적인 법에 반대투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어떠한 참여나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모든 노동자·민중 조직들에게 그 어떤 계급휴전 정책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리고 부르주아지의 이 모든 정치적·경제적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대중시위를 준비하고 조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명가들은 글로벌 반혁명 공세뿐만 아니라 일체의 강대국 배외주의(대국 쇼비니즘)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적 총괄조정과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요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 초동 국면에서의 계급투쟁은 기본적인 당면 요구로 국한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건강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거나, 도시 빈곤층이 록다운을 깨고 식품을 얻기 위해 슈퍼마켓을 약탈한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우리는 주민 자위위원회를 만들려는 첫 이니셔티브를 보았다.¹⁵⁸⁾

당연히 혁명가들은 이러한 투쟁들을 지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이들 투쟁에 조직과 방향을

15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SV: COVID-19 Crisis in Nigeria: State Repression and the Left, 13th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port-on-covid-19-crisis-in-nigeria-13-4-2020/>; Fidelis Mbah: Nigeria: Lagos residents defend homes against curfew bandits, 15 April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nigeria-lagos-residents-defend-homes-curfew-bandits-200414165917113.html>

가져오기 위해 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지배계급의 정치 반혁명 의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그리고 모든 당면 요구들을 국가비상사태 정권을 패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슬로건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명가들은 정치활동을 급격한 조건 변화에 맞춰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건하에서 비교적 제약 없이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제약과 다른 형태의 탄압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 활동에 대한 법적 조건이 악화,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본다. 가까운 장래에 좀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팬데믹을 구실로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시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 팬데믹의 진실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처벌 될 수 있을 때까지 감시가 지속될 지도 모른다.

이는 맑스주의자들이 반합법 또는 비합법 조건 하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나라들(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에 혁명가들의 경험(예를 들어 차르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근과 역병: 레닌과 볼셰비키로부터의 몇 가지 교훈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접근법은 매우 분명했다. 맑스주의자들은 그러한 재난이 흔히 “자연적” 원인(예를 들어 흉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희생자를 돕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정부 정책에 종속됨으로써 희생자를 돕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맑스주의자들은 차르 정권의 조치들에 대해 그 어떤 지지도 거부했다. 정반대로, 레닌은 그러한 상황에서 맑스주의자들은 현존 사회질서 내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에도 도달할 수 없으며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혁명적 정권 타도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그렇다고 볼셰비키가 수동적, 숙명론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볼셰비키는 그러한 기근과 콜레라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자와 빈농의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이러한 지지가 자선적 원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 속에서의 정치 선동·선전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기근과 역병의 시기에 대중투쟁 호소/요구를 자제한다는 것은 레닌과 볼셰비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대로 볼셰비키는 이러한 재난은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농민들이 차르 정권 타도를 위해 싸워야 할 추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볼셰비키는 투쟁을 늦추기는커녕 주어진 상황에서의 시위와 파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예로 1910-11년 러시아를 파탄 낸 기근과 콜레라 대참사를 들 수 있다. 콜레라는 1910년 6월에 시작되어 궤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전체적으로 23만여 건, 11만여 명의 사망자가 이 대유행 기간 동안 발생했다. 사망률이 무려 45퍼센트에 달했다. 약 2천만 명이 기근으로 고통 받았다.¹⁵⁹⁾

15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rlotte E. Henze: Disease, Health Care and Government in Late Imperial Russia. Life and death on the Volga, 1823-1914, Routledge, New York 2011 (chapter 5); George Childs Kohn: Encyclopedia of Plague and Pestilenc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ird Edition, Facts On File, New York 2008, pp. 327-329; John P. Davis: Russia in the Time of Cholera: Disease under Romanovs and Soviets, Bloomsbury Academic, 2018 (Chapter IV)

레닌은 여러 기사에서 맑스주의자들이 혁명적 전제정 타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권에 대한 대중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11년 말에 발표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농민들의 토지 갈구에 대한 충족 없는, 짓누르는 세금 압력으로부터 구조 없는, 그들의 문화 수준의 향상 없는, 그들의 법적 지위의 결정적인 변화 없는, 지주 소유지 몰수 없는, 즉 혁명 없는 진정한 기근과의 투쟁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흉작은 기존 정치체제 전체를, 6월3일 군주제를 기다리고 있는 파멸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신호탄이다.”¹⁶⁰⁾

석 달 뒤 발표된 또 다른 기사에서 같은 생각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새 농업 정책의 혜택에 대한, 촌락 공동체를 떠난 농가들의 변영에 대한 차르 정부의 그 많은 허풍스런 연설이 있고 난 오늘 러시아의 기근은 농민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 확실하다. 기근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할 것이지만, 또한 필연적으로 차르 군주제와 지주에 대한 혁명적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못 보도록 막아온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노예적인 차르에 대한 신앙의 마지막 잔재도 파괴할 것이다. 농민들은 대토지 소유를 폐지해야만 그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저 지주들의 방벽 차르 군주제 타도만이 인간다운 삶을, 기아와 절망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모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와 모든 계급의식적인 농민의 의무다. 이것이 기근과 관련된 우리의 주 임무다. 노동자들 속에서 굶주리는 농민들을 위한 모금을 조직 — 가능한 데서는 어디서든 — 하고 그러한 모금을 사회민주주의의 두마 의원들을 통해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¹⁶¹⁾

그리고 1912년 1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 당시 볼셰비키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 제6차 (프라하) 대회 결의는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근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임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레닌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야당들의 미약한 대응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결의는 3가지 중심 결론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전문을 인용해본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 모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참여하여 광범한 주민 대중 사이에서,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선전·선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근과 차르 정권의 정책 전반 사이의 연관을 설명하고, 선동 목적상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트루도비키의 두마 연설뿐만 아니라 마르코프 2세 같은 차르의 벗들의 두마 연설도 촌락에 배포하며,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요구 — 차르 군주제 타도, 민주공화제 수립, 지주 소유지 몰수 — 를 대중화시킨다.

(b) 기근 희생자들을 최대한 원조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기부금을 오직 두마의 사회민주주의 의원단이나 노동자 언론, 또는 노동자 문화·교육 등의 단체에게만 보내도록 조언하고, 노동자들이 기근 희생자 원조를 위한 단체나 위원회에 가입과 동시에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특별 중핵을 구성한다.

(c) 기근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 대중의 분노를 시위와 대중집회, 그리고 그 밖의 차리즘에 대항하는 대중투쟁 형태들로 표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¹⁶²⁾

160) V. I. Lenin: *Famine and the Reactionary Duma*, in: LCW Vol. 17, p. 449

161) V. I. Lenin: *Famine*, in: LCW Vol. 17, p. 528

162) V. I. Lenin: *The Tasks of Social-Democracy in the Struggle against the Famine, Resolution of the Sixth (Prague) All-Russia Conference of the R.S.D.L.P., January 5-17* (18

우리는 1910-11년 러시아의 기근 및 콜레라의 구체적 조건과 코로나19 팬데믹 간의 차이를 십분 인식하고 있지만, 볼셰비키의 접근방법은 오늘날 혁명가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1917년 10월 권력 장악 후 소련에서 볼셰비키의 경험도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상세히 다루는 것은 본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이 주제에 관한 유익한 저작들을 추천하고¹⁶³), 간단한 요약으로 넘어가보자). 10월 혁명 후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혁명정부는 비상한 도전에 직면했다. 4년간의 제국주의 전쟁과 이어서 또 3년간의 내전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나라의 경제 자원 대부분을 파괴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공중보건은 급격히 후퇴했고 각종 역병으로 피해를 입었다. 1921년/22년에는 끔찍한 기근을 겪었다.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유행한 발진티푸스는 250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 콜레라 발병으로 약 13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여기에 이른바 “스페인 독감”까지 가세했다. 당연히, 이 유행병들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역병이었다. 발진티푸스의 사망률은 8~10%로 농촌 지역에서는 더 높았다. 공공병원에서 발진티푸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사망률이 50%나 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계획경제와 함께 노동자·농민 국가 건설의 일부로서 공공보건에 대한 완강한 노력을 통해 소비에트 정부는 이 재앙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로, 그리고 언급한 이 모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정부는 기대수명을 32세(1913년)에서 44세(1926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소련 보건 정책의 초점은 이러한 질병들이 확산될 기반을 허물기 위해 인민대중의 사회·위생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1921년 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소련공산당은 질병의 발전을 막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일련의 보건·위생 조치에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를 둘 것이다.” “1920년에 말라리아가 발병하자 모스크바의 열대 의학 연구소는 말라리아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과시키며, 환자와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치료와 임상 및 실험실 작업을 제공하는 말라리아 관측소를 설치했다.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가 면세유통 되었다.... 1919년 4월에는 한 걸음 나아가 천연두에 대한 의무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지구, 촌락, 공장, 병영에서의 보건 교육 캠페인이 수많은 포스터 캠페인과 함께 펼쳐졌다. 1920년 3월까지 공중보건 인민위원부는 학령기 아동들, 특히 결핵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건강에 주의를 쏟았다. 미생물학·역학 남동 러시아 지방연구소가 1919년 사라토프에서 개원했다. 전염병 발병 기간 동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 연구소 역학 팀이 파견되었다. 1925년까지 10개 도시를 관할하는 의료 관측소와 페스트 방역 연구실 및 병원 네트워크는 위생·방역 팀들이 이끄는 위생 프로그램들을 조직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직장 및 노동자 숙소 청소, 주거 소각, 부검 실시, 장례 조직, 격리 구역 시행, 설치류 및 벼룩 퇴치, 건강 교육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다.”¹⁶⁴

-30), 1912, in: LCW Vol. 17, p. 475

16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ristopher Williams: Health and Welfare in St. Petersburg, 1900-1941: Protecting the Collective, Routledge, New York 2018; Sir Arthur Newsholme and John Adams Kingsbury: Red Medicine: Socialized Health in Soviet Russia, William Heinemann (Medical Books), London 1934; Dorena Caroli: Bolshevism, Stalinism, and Social Welfare (1917-1936), i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2003, Vol.48(1), pp.27-54; Susan Gross Solomon: The Limits of Government Patronage of Sciences: Social Hygiene and the Soviet State, 1920-1930, in: Social History of Medicine, Vol. 3: Issue 3 (1990), pp. 405-435; Barbara Khwaja: Health Reform in Revolutionary Russia, 26 May 2017, <https://www.sochealth.co.uk/2017/05/26/health-reform-revolutionary-russia/>; Prof. Dr. P. Mühlens: Die russische Hunger- und Seuchenkatastrophe in den Jahren 1921-1922, Verlag von Julius Springer, Berlin 1923, <https://www.springer.com/de/book/9783642940422>

소련 정부의 보건 정책은 당시 전파된 다음과 같은 공식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염병에 맞선 투쟁에서부터 더 건강한 노동·생활조건을 위한 투쟁까지”.

그러나 당시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전염성 높은 치명적 역병들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가 주민 록다운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일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소련 정부는 대규모 집회도 금지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개인주의적이고 후진적인 조치는 볼셰비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한 조치에 의지하기를 거부했던 것은 발진티푸스 (특히 반점열)와 같은 질병의 전염성을 몰라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소련 보건당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20년대 초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일 의학교수 뮐렌스 박사는 1923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팸플릿을 발간했다. 그의 보고서는 볼셰비키가 대규모 집회가 질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모든 대규모 기념행사 후에, 이미 감염된 노동자들의 집회 후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¹⁶⁵⁾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볼셰비키는 그러한 전염병과 싸우는 주된 도구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조건을 질병이 발견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동시에 소련 정부는 노동자·민중이 집단행동으로 단결할 경우에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주의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만 어떤 사회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들이다. 오늘 이른바 좌파가 대중행동 금지와 함께 록다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반동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1920년대 초의 볼셰비키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했지만, 그러한 질병과 싸우기 위한 사회적·의료적 자원은 오늘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었다. 그럼에도 볼셰비키는 오늘 대부분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민에 대한 대량억압 조치들에 결코 의존하지 않았다.

당시 공산주의운동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1918년 1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전 세계에 창궐했던 이른바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당시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켰다. 약 1천7백만 명에서 5천만 명, 나아가 1억 명까지 사망자 추정치가 다양하다.¹⁶⁶⁾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대응은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촉구하거나, 대중행동과 계급투쟁을 중단시키거나, 록다운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 조치들을 요구하거나, 확실히 이런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과 집단적 대중 활동을 강화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 — 즉 가난과 비참을 극복하고, 그와 함께 그러한 치명적인 팬데믹 확산의 조건을 극복할 사회 — 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고자 자본가계급의 타도를 위해 싸웠다. 초기 코민테른의 전통에서 있다고 자처하는 그룹들이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 때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 억압에 전면 반대하고 대중투쟁을 요구했는데, 오늘 코로나19 때 그러한 좌파 그룹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억압을 지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오늘 RCIT와 모든

164) Barbara Khwaja: Health Reform in Revolutionary Russia

165) Prof. Dr. P. Mühlens: Die russische Hunger- und Seuchenkatastrophe in den Jahren 1921-1922, p. 28 (영역은 인용자; 강조는 원저자)

16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ime Breitnauer: The Spanish Flu Epidemic and its Influence on History. Stories from the 1918-1920 global flu pandemic, Pen and Sword Books Ltd, Philadelphia 2019

진정한 혁명가들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룩다운의 반동적 반대자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룩다운 정책의 좌파 지지자들은 룩다운 정책에 반대하는 반동 세력들을 들어서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길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데마고기를 퍼며 비난한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성격규정 한다면 환각성 우매함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다.

혁명가들을 제국주의 강대국 등 사악한 권력의 “대리인” 또는 “첩자”로 비방하는 것은 반맑스주의 데마고그들의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볼셰비키는 “독일 제국주의의 첩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볼셰비키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난은 1917년 여름 케렌스키 정부의 “좌파” 정당들, 즉 멘셰비키와 사회주의혁명가당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스탈린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도 1930년대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히틀러의 첩자”이자 “파시즘의 객관적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독일에 대하여 연합국(영·불·미) 제국주의를 방어하길 — 즉 스탈린의 ‘훈령’을 — 거부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이런 비난은 잘 알려진 반동적 비방 방법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부르주아 정부의 이러저러한 프로젝트가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반동 세력들에 의해서도 반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르주아·소부르주아 계급 내에는 언제나 차이들 (때로는 작은, 때로는 큰)이 존재한다. 1914-16년에 차르 지배 도당 내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열강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독일 서클들이 있었다. 러시아 사회제국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은 반대는 그 주체가 어느 세력이든 다 똑같은 “친독파”의 반대였다. 즉 볼셰비키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반대했고, 페테르부르크의 친독 귀족들도 그랬다. 비슷하게, 1939-40년에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계급 내에도 히틀러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친 나치 서클들이 있었다. 보다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르펜 (아버지 르펜)의 극우파 당은 1991년 이라크 침공 제국주의 전쟁에 프랑스가 참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당연히, 우리 또한 이 전쟁에 반대했지만, 르펜 때문에 반대하는 데 지장 받지 않았다. 물론 우리로서는 국제주의적·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반대였지만 말이다. 미 제국주의가 데마고기를 퍼며 중국에서 민족 억압을 받는 위구르인들의 권리를 “지지”할 때, 우리가 무슬림 형제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국제주의적인 지지를 줄여야 할까?! 또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난하면, 이것이 트럼프의 제재와 무력 과시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줄여주는가?! 때때로, 야당으로 있는 우익 세력은 데마고기적 “친 인민” 연사로 정부의 이 또는 저 긴축 안에 반대한다. 이것에 혁명가들이 오도되어 그러한 긴축 공격에 대한 반대를 중단할까? 물론 아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의 경우 사정은 아주 명백하다. RCIT가 이 국면의 시작 때부터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혁명가들은 모든 긴축/삭감 반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무료 대량검사 등을 내건다. 이런 요구를 결코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일 뿐인 룩다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룩다운의 우익 반대자들이 긴축과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 대중 동원을 요구하지도,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가 처음에 룩다운에 반대했고, 트럼프, 보우소나로의 경우

에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다른 여러 사안들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는 전략적 사고자라기보다는 어릿광대다. 그들의 정부는 매우 불안정하고 그들의 고려 사항은 어떻게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오직 꽂혀 있어 지배계급의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해외 미군의 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방부 예산으로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적으로 말해서, 이 광대들은 “이념적 총자본가” 대표로 역할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와 연관된 것으로서,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같은 류의 우파 세력들은 보통 독점 부르주아지 내의 단지 소수 파벌을 대표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 부르주아지의 여타 파벌들보다 더 —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중소 자본가들의 지지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경영주들과 중소 자본가들,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은 경제 섀다운으로 강력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들 소득의 물질적 기초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은 정치가들이 특히 이러한 층들의 지지에 의존하므로 다른 정치가들보다 록다운을 지지하길 더 꺼리는 이유다.

맑스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소부르주아 층들을 독점자본가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의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들 층의 경제적 이익도 방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공황 시에 그러한 소부르주아 층들을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 (대자본가들에 대한 더 높은 과세로 재원을 조달하는)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와 같은 우익 반동 세력들의 정책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우익 반동 정부가 록다운에 반대하는 경향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주저하고 있거나 주저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우익 정부들 —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못지않게 반동적인 — 은 록다운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모디, 이스라엘 네타냐후, 헝가리 오르반을 보라.

향후 대중투쟁에서 아군과 적군

위의 분석에서 제시했듯이, 현 사태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이전 몇 년 사이에 이미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젊은 활동가 층의 출현을 가져온 계급투쟁의 상승을 보아왔다. 이들 투사들은 한편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론 과거의 보수적인 정치적 걸치레로부터 자유롭다.

게다가 자본주의 위기가 가중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도 고조됨에 따라 공식 노동자·민중운동 내 모순이 심화되었다. 그리스의 시리자 (급진좌파연합)와 같은 개량주의 당들이 ‘집권’하여 인민대중에게 수년간 잔혹한 긴축과 민영화 강요하는 정부를 이끌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통합사회당 (PSUV) 같은 볼리바르주의 당들은 중·러 제국주의에 나라를 종속시키는 몰이꾼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과 함께 장 뤼크 멜랑송도 2013년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개입을 지지했다. 한편으론 공식 노동자·민중운동에서 주도적인 개량주의·민중주의 당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지난 10년대 (2010-2019년)의 혁명적 봉기 속에서 활

동한 새로운 세대의 투사들이 있다. 이 양자 간에 거리가 눈에 띄게 벌어져 가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들 개량주의 당들이 아랍 세계에서 해방투쟁을 야비하게 비난한 것을 상기해보면 될 것이다. 아랍 혁명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많은 경우 반혁명에 대한 철면피한 지지(예를 들어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바르주의자들이 시리아 아사드와 2013년 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쿠데타를 지지한 것 등등)로 이어졌다.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거나 그러한 대립·충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많은 스탈린주의자들과 볼리바르주의자들,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라이벌 미국에 대항하여 러시아 또는 중국 제국주의를 — 공공연하게든, 위장한 방식으로든 — 편들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지지하길 거부한 각종 좌파들도 있다.

이 모든 사태발전이 작금의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의해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또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놓여졌다.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의 거의 모든 지도부들과 이른바 좌파의 상당 부분들이 록다운 정책과 현 시기 집회·시위 금지를 지지한다. 요컨대 이들 세력은 최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반혁명 부르주아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뉴 리바이어던 시기의 사태발전이 노동자·민중운동 내 양극화를 더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건강한 분자들 — 이들 세력 중 소수파일 가능성이 높은 — 은 다수파와 단절하고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파는 계속해서 우경화하여 급속히 반혁명 진영으로 향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래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노동자운동 내 개량주의자들을 “사회배외주의자” 또는 “사회제국주의자”로 성격규정 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현 위기의 주요 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반혁명적 전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지지하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을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로 성격규정 해야 한다. 이러한 록다운 좌파(또는 리바이어던 좌파)가 바리케이드의 다른 편, 반혁명 편에 합류한 것이다.

RCIT와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노동조합 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노동자·민중운동 내 사회보나파르트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분석과 결론을 공유하고 록다운 좌파와 단절할 의사가 있는 좌경화하는 사회주의 세력과의 어떠한 관계 회복도 환영한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 프로젝트에도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목표는 토론과 긴밀한 협력의 과정을 여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을 향한 투쟁을 전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러한 좌측으로 이동하는 세력에 대해 말할 때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한테로 국한시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혁명적 운동의 잠재적 동반자는 제2 인터내셔널 내 맑스주의 세력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찾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그는 생디칼리스트들 사이에서 잠재적 동맹군을 찾았다. 이후 초기 코민테른 시절에도 혁명가들은 토론을 열어 ана키스트들과 중국·인도·조선의 민족주의자들 및 미국의 흑인 민족주의자들(예를 들어 “아프리카 혈통 형제단”)을 전취하려고 — 몇몇 경우에 성공했다 — 노력했다.¹⁶⁷⁾

16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mes P. Cannon: First Ten Years of American Communism: Report of a Participant, Pathfinder, New York 1973; Hakim Adi: Pan-Africanism and Communism: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frica and the Diaspora, 1919-1939, Africa World Press, Trenton 2013

마찬가지로 오늘 혁명가들은 “트로츠키주의” 환경 외부의, 심지어는 “맑스주의” 환경 외부의 진보 세력들에게 개방적이어야 하며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계정치의 현 결론이 마오주의, 범아프리카주의, 각종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운동 등에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놀랄 일이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강령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그리고 융합이 가능하지 않은 세력과 협력하는 데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억압과 제국주의 전쟁과 긴축 공격 등의 면에서 공통의 지반이 있다면 공동 활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러한 협력은 엄격한 통일전선 전술, 즉 정치적 기치를 섞지 않은 공동 실천활동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명가들은 중간계급과 자유주의 지식인과 노동귀족에 주파수를 맞추는 행태를 일절 거부해야 한다. 소위 좌파의 대부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지향이다. RCIT는 언제나 좌파의 이러한 노동귀족적 지향을 비판해 왔다. 실제로 좌파가 현재 사회보나파르트주의로 추락해버린 것은 이 소부르주아적 환경에 좌파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되어버린 결과다. 혁명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중·하층과 피억압자를 향해야 한다. 바로 이들 층이 현 자본주의 3중 위기에 가장 혹독히 타격 받고 있다. 반혁명 공격에 먼저 반기를 드는 것도 이 층들일 것이다. 모든 스탈린주의적·개량주의적 편견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도 이 층들이다. 요약하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에서 혁명가들의 슬로건은 이른바 “좌파”와 단절하고 노동자계급·피억압 대중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지향은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레닌과 트로츠키의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¹⁶⁸⁾ 여기서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단 세 개의 인용문을 제시하겠다. 1916년에 레닌은 기회주의자와 맑스주의자 간의 근본적인 지향 차이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기를 원한다면,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모든 의미이며 모든 내용이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 사상과 영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의 동맹자이며 하수인이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이익을 분간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휴전의 모든 길고 고통에 찬 정세 변전을 거쳐 사회주의를 위해,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가르친다.”¹⁶⁹⁾

또 트로츠키도 불세비즘의 전략적 지향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세비즘의 강점과 의의는 노동자계급의 상층이 아니라, 피억압·피착취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있다.”¹⁷⁰⁾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의 유명한 창립 강령인 이행강령에서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회주의 조직들은 바로 그 본성상 주로 노동자계급의 최상층에 주의를 집중하고, 따라서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모두 무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는 임금노동자로서, 그리고 주부로서의 여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제4인터내셔널 지부들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착취 받는 층들 속에서,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 속에서 지지 기반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헌신과 이타성과 희생할 용의의 마

168)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RCIT Books, Vienna 2014

169) V. I. Lenin: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in: LCW Vol. 23, p. 120.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20-21쪽]

170) Leon Trotsky: Perspectives and Tasks in the East. Speech on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University for the Toilers of the East (21 April 1924); in: Leon Trotsky Speaks, Pathfinder 1972, p. 205

르지 않는 저장소를 발견할 것이다.”¹⁷¹⁾

몇 년 전, RCIT는 세계정세에 관한 주요 문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요약 제시했다. 우리는 거기서의 결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늘 적실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중도주의·좌익개량주의 계열 대다수가 비관주의, 회의주의, "좌파 통합"이 부재하다고 투덜거리기, "레닌주의적 초중앙집중주의"와 "전위당" 개념의 신경질적인 폐기 선언, 청산주의 칭찬 등에 의해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 세력이 노동관료와 소부르주아 지식인에게 지향을 두고 있고 그들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가들은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강령과 전략을 찾고 있는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새로운 전투적 층에 지향을 맞춘다. 우리의 낙관주의와 확고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혁명적 방향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자들은 중도주의·좌익개량주의 늪을 향한 지향과 단절하고 건강한 전투적 프롤레타리아 환경에 뿌리를 내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혁명가들이 개량주의 당들이나 중도주의 그룹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일 전선 전술은 노동자 전위에게서 이들 수정주의자들의 영향을 벗겨내야 하는 힘든 투쟁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유효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RCIT는 노동자·피억압자 대열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투사들과 새로운 주도력에 지향을 맞춘다. 이러한 층으로부터만 새로 촉망 받는 세력과 새로운 역동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좌익개량주의·중도주의 대열의 보다 건강한 분자들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수정주의자들의 썩은 방법과 단절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거대한 불안정과 급격한 전환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자운동도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없다. 이 시기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과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은 점점 더 타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거듭 우경화를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기의 첨예한 적대적 본질에 대한 이해에 근접해오고 있는 세력들, 투쟁하는 대중 — 특히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하층 — 의 “후진적 의식”을 거만하게 비웃는 것 없이 이들 대중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는 세력들, 그러면서 동시에 혁명적 강령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싸우고자 결의하고 개량주의·중도주의 배반자들을 가차 없이 공격하는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스스로를 바꿔낼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 투쟁에서 건강하고 완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적 유추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현 시기가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의 연간과 유사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 시기에 노동자운동은 첨예한 위기와 분열과 전변을 거쳤다. 이 시기에 제2 인터내셔널 중도주의 다수파의 부패 — 이미 1914년 이전에 존재했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덜 명백했던 — 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났다. 레닌과 그의 지지자들의 지향과 전술은 오늘 볼셰비키-공산주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준다.”¹⁷²⁾

171) Leon Trotsky: The Death Agony of Capitalism and the Task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Transitional Program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218. [트로츠키,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 강령>>, 김성훈 옮김, 풀무질, 115 쪽]

172)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March 2013).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p. 4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5장. 록다운 좌파: 비판

레닌은 “전쟁은 종종 썩은 것을 드러내고 인습적인 것을 버리는데 유용하다”¹⁷³⁾고 평한 적이 있다. 현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주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에게서 “썩은 것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우리가 앞 장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전 세계의 자본가계급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공격을 개시했다. 수백,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던져졌고, 도시 및 농촌 빈민들은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많은 소 상점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해 공식 노동자·민중 운동의 저항은 거의 없다. 또 개량주의자들은 경찰·감시국가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감행치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개량주의자들의 이 모든 투항은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아서 일어났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의 스탈린주의·좌익개량주의 집행자들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과 민중 단체 지도부들은 부르주아 정부가 내린 비상 경제·사회·보건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몇몇 경우에는 개량주의 당들이 심지어 긴축 프로그램과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 논설에서 보여주었듯이, 포데모스와 스페인공산당 (PCE; 스페인 스탈린주의의 역사적인 당), 그리고 그 우군인 통합좌파 (IU) 등과 같은 “좌파” 정당들은 사민주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¹⁷⁴⁾ 그들은 모두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을 전면 지지해 왔다. 스페인공산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공공행정 조치 및 기능을 조정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줄 국가 경계태세 선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¹⁷⁵⁾

1994년 이후 공산당이 정부 연정의 중요한 일부로 있는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경우다. 군이 순찰하는 전국 규모의 록다운이 인민에게 내려지면서 대량 궁핍과 기아 사태가 초래됐다. 남아공공산당(SACP)은 이 록다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고립된 한 두 예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스탈린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은 록다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스탈린주의 당이 보수당 주도 정부에게 민

173)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22, p. 115

174) Michael Pröbsting: COVID-19 and the Lockdown Left: The Example of PODEMOS and Stalinism in Spain, 24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lockdown-left-podemos-and-stalinism-in-spain/> [“자본가국가의 폐쇄격리에 찬동하는 좌익들: 스페인 스탈린주의와 포데모스의 사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and-the-lockdown-left-the-example-of-podemos-and-stalinism-in-spain/>

175) PCE: In light of the situation created by the expansion of the COVID-19 epidemic and its impact in Spain, 16 March 2020, <https://www.pce.es/in-light-of-the-situation-created-by-the-expansion-of-the-covid-19-epidemic-and-its-impact-in-spain/> (이 성명은 스페인공산당 자신이 영어로 발표한 것이다.)

주적 기본권을 너무 오래 동안 침해하지는 말아달라고 감히 호소할 뿐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합리적이지만, 우리는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제약과 개인의 시민적 권리 및 자유와 노동권에 대한 대규모 간섭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⁷⁶⁾

아직 록다운과 민주적 권리 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즉 엄폐물 삼아서 말이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공산당(PCB)이 집회와 대중적 활동에 대한 금지를 뜻할 뿐인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사회적 격리”를 찬양, 요구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서, 나라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사회적 격리가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채택되고 있다.”¹⁷⁷⁾

심지어 록다운이 아주 눈에 드러나게 인민대중에게 급격한 결과를 불러온 나라들에서도 스탈린주의자들은 록다운 종식을 요구하길 삼갔고, 투쟁을 호소, 요구하는 것도 일절 삼갔다. 인도공산당(맑스주의자) 정치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록다운의 잔혹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주간의 록다운 경험은 우리 인민의 상당 부분에게 기아와 주거 부족 사태가 대규모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 모디 정부가 록다운 기간 동안 어떠한 대량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록다운 기간은 팬데믹 확산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해 감염자 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는 매우 낮은 수준에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에 — 머물러 있다.” 놀랍군! 마치 이것이 언제 모디 정부의 의도였던 것처럼! 록다운의 전체 목적은 인민을 원자화하고 약화시키는 것이지,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명백한,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록다운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인도공산당(M)은 우익 모디 정부에게 더 잘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 “총리가 사회공동체의 양극화를 격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를 비난하지 않은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파괴적인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완전한 단합으로만 이번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20일 상황을 검토한 후 일정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수송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도공산당(M) 정치국은 중앙정부에 이 문제들을 즉각 처리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¹⁷⁸⁾ 국가비상사태를 타도하는 것에 대해서나, 대중이 반격할 필요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다!

176) Kämpferische Arbeiterfront statt „Team Österreich“! Stellungnahme des Parteivorstands der Partei der Arbeit Österreichs (PdA), 19. März 2020, <http://partiederarbeit.at/?p=5937>. 다음은 독일어 원문이다. „So sinnvoll viele Maßnahmen, die derzeit zur Eindämmung der Ausbreitung des Coronavirus COVID-19 in Kraft sind, sein mögen, so sehr ist auch festzuhalten, dass diese Einschränkungen der Versammlungsfreiheit und der massive Eingriff in persönliche Freiheitsrechte und ins Arbeitsrecht nur von befristeter Dauer sein dürfen.“

177) Brazilian CP: It is time to save working people, not capital! 8 April 2020, <http://www.solidnet.org/article/Brazilian-CP-It-is-time-to-save-working-people-not-capital/>

178) Polit Bureau of the CPI(M): Extended Lockdown: Poor & Marginalised Will Continue to Suffer, 14 April 2020, <http://www.solidnet.org/article/Marxistindia-Extended-Lockdown-Poor-Marginalised-Will-Continue-to-Suffer/>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응원하는 “트로츠키주의” 치어리더들

많은 자칭 “트로츠키주의” 조직들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앨런 우즈가 이끄는 국제맑스주의경향(IMT)은 “트로츠키주의” 옷을 걸친 사회보나파르트주의의 한 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IMT의 중앙 성명은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엄격한 계엄령 식 록다운 정책을 예로 들어 찬양하고 있다. 성명은 심지어 이탈리아 콘테 정부의 록다운 정책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중국의 비판을 지지하기까지 한다! “주민위원회와 직장위원회에 의해 비상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및 전국 수준으로 연결되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완전하게 효과적인 록다운을 조직해야 한다.... 오늘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나라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중앙 계획 및 국가통제 산업의 요소들을 일정 정도 아직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다. 현 팬데믹과 싸우는 데 있어 중국에 엄청난 이점을 —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 부여한 것이 바로 이들 요소다. 이러한 사실은 통상 중국에 동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평한 내용이다. 중국이 우한 발병 사태에서 발휘한 강점은 약 5천만 명 인구의 거대한 지역을 록다운 하면서 나라의 여타 지역들의 자원을 록다운 된 지역의 사람들을 원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른 지역 출신 간호사와 의사들을 보낼 수 있고, 나라 전체로부터 자원을 끌어내 보낼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이탈리아는 나머지 유럽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매우 단기적인 견지에서, 자국 일국적 견지에서 사고하며 마스크 같은 용품들의 수출을 막았다. 국제적으로 조율된 작전이 있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 의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탈리아 상황을 관찰한 뒤,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한 경험으로부터, 거리에 여전히 사람들의 이동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줄곧 말해왔던 것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비필수적 생산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머지 유럽이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을 퇴치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적 자원을 보냈다면, 이탈리아는 전면 록다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록다운 기간은 더 짧아지고 더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결과로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 다른 속도로 행동했다.¹⁷⁹⁾

IMT 웹사이트의 편집자는 또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는 중국에서 이동 제한이 완화되고 있지만, 일단 새로운 발병이 시작되면 제한이 다시 시행될 것 같다. 덴마크와 이탈리아가 록다운 중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정부들은 “무언가 하고 있는” 듯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들이 취한 조치들 중 어떤 것들은 역학적으로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민족국가의 존재 등으로 그 장점이 훼손되고 있다.”¹⁸⁰⁾

나이지리아에서 IMT는 록다운이 기아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아 없는 록다운을 원한다!’가 IMT의 결론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충분한 식량과 적절한 주거와 그 밖의 필수품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록다운으로 가중되는 기아 반대! 록다운 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식량 및 가계 필수품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¹⁸¹⁾ 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

179) IMT: COVID-19 pandemic: the threaten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20 March 2020, <https://www.marxist.com/covid-19-pandemic-the-threatening-catastrophe-and-how-to-combat-it.htm>

180) Hamid Alizadeh: Coronavirus pandemic opens a new stage in world history, 13 March 2020, <https://www.marxist.com/coronavirus-pandemic-opens-a-new-stage-in-world-history.htm>

고 망상적인 요구인가! 침대에 코브라 뱀을 받아들이지만 날 내버려두라고 코브라 뱀에게 요구하는 격이다! 나이지리아의 RCIT 동지들이 설명했듯이, 대중투쟁 없이는, 즉 록다운과 집회·시위 금지를 어겨서 깨지 않고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¹⁸²⁾

IMT 사회보나파르트주의의 극히 기회주의적인 본질은 그 구체적인 실행을 보면 매우 명백해진다. 오스트리아에서 세바스찬 쿠르츠 총리의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가 3월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중심 요소는 가장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보건부 장관의 법령이다. 같은 법령으로 집회와 시위도 일절 금지된다. (나중에 정부는 이 집회·시위 금지를 6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또 군대와 공익근무자 (병역 대체복무자)의 배치도 지시했다.¹⁸³⁾ 당연히, RCIT 오스트리아 지부는 즉각 이 국가비상사태와 민주적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개성명을 냈다.¹⁸⁴⁾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IMT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정부 법령에 열성으로 반응했다. 지도부 공식 성명에서 IMT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라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용과 실천에서 이 대책을 지지한다.... 예측 가능한 보건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금 사람들이 공익근무자로 징집되고 있다. 우리는 징집 대상 연령 집단들에게 징집에 빨리 따르고, 재난과 싸우기 위한 자원 봉사과 공익 복무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¹⁸⁵⁾

181) Oke Ogunde: The impact on Nigeria of the coronavirus pandemic: socioeconomic pandemonium! 14 April 2020, <https://www.marxist.com/the-impact-on-nigeria-of-the-coronavirus-pandemic-socioeconomic-pandemonium.htm>

182) 이에 대해서는 RCIT 나이지리아 지부의 다음 성명을 보라. RSV: COVID-19 Crisis in Nigeria: State Repression and the Left, 13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port-on-covid-19-crisis-in-nigeria-13-4-2020/>; WHAT DOES THE INVITATION OF CHINESE MEDICAL PERSONNEL MEAN FOR THE NIGERIAN HEALTH SECTOR? 10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what-does-the-invitation-of-chinese-medical-personnel-mean-for-the-nigerian-health-sector/>; Nigeria: Against State Repression! For a Mass-based Alternative To The Pandemic! Cancel All Local and National Debt! 8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against-state-repression/>; Nigeria: Oppose the Lock Downs! 1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oppose-the-lock-downs/>

183) Bundesgesetzblatt Für Die Republik Österreich, Jahrgang 2020, Ausgegeben am 15. März 2020, Teil II,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20_II_98/BGBLA_2020_II_98.html

184) RKOB: COVID-19: Nieder mit dem Ausnahmezustand! Für ein ernsthaftes Gesundheitsprogramm statt Polizeistaat! 16 März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home/deutsch/covid-19-nieder-mit-dem-ausnahmezustand/>

185) Gesundheit vor Profite! - Erklärung der Funke-Redaktion zur Corona-Krise, Stellungnahme der Funke-Redaktion zur aktuellen Lage und den Aufgaben der Arbeiterbewegung, 15 March 2020, <https://derfunke.at/aktuelles/oesterreich/11329-gesundheit-vor-profite-erklaerung-der-funke-redaktion-zur-corona-krise> (영역은 필자). 다음은 독일어 원문이다. „Europa ist mit der größten Notsituation seit dem 2. Weltkrieg konfrontiert. Es gilt den Aufforderungen der Gesundheitsbehörden, sich körperlich zu isolieren, Folge zu leisten. Wir unterstützen diese Maßnahme inhaltlich und praktisch. (...) Jetzt werden Zivildienstler eingezogen, um den absehbaren Gesundheitsnotstand bewältigbar zu machen. Wir appellieren an die eingezogenen Jahrgänge, der Einberufung schnell Folge zu leisten, sich freiwillig zu

우리는 IMT가 이 성명을 발표하던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사망자 수는 3명을 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사망자 수는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 숫자에 비할 때 여전히 그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기서 제쳐둔다. 또 IMT가 1992-95년 보스니아 전쟁 동안 20만 명 이상 (그 대부분이 보스니아 인이다)이 살해당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재앙” 운운하는 시니컬한 제국주의적 오만도 제쳐둔다. 이 사망자들은 발칸 출신일 “뿐”, “문명화된” 서유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IMT에게는 확실히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 중도주의자들이 당시 집단학살범 세르비아 배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보스니아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 — 우리 운동 및 모든 진정한 혁명적 국제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 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¹⁸⁶⁾

어쨌든, 보수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조치들 (집회·시위 금지를 포함하는)을 전심전력으로 지지해 달라는 IMT 오스트리아의 공개 요구는 비굴한 사회보나파르트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다. 청년들에게 군 복무와 비슷한, 자본가 국가를 위한 저임금 근무인 공익근무에 자원하라는 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 사민주의자들은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정부에 애국적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하자 같은 정신으로 IMT는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정부에 애국적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했다.

불행하게도 IMT는 록아웃 정책을 지지하는 유일한 자칭 트로츠키주의 조직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윈프리트 울프 같은 유명한 만델주의 제4 인터내셔널 지식인들이 록다운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보수당 주도 정부가 “두 주나 늦게” 록다운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¹⁸⁷⁾ 이들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역시도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이들은 부르주아 정부에게 반민주적 공격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헌법적 권리의 제약은 그 경계가 분명해야 하며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¹⁸⁸⁾ 의심의 여지없이, 지배계급은 그런 “비판”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투항주의 정책의 또 다른 예로 “제5 인터내셔널 동맹”이 있다. (영국의 “노동자권력”이 그 가장 두드러진 지부로서, 5년 전부터 노동당에 입당주의를 시작하면서 조직명을 “적기 (Red Flag)”로 개칭했다). 제5인터 동맹은 부르주아 정부가 록다운을 더 일찍, 더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무엇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느라 대응을 지연시킨 정부는 이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록다운을 실시했다. 이 록다운은 몇 주 전에 했어야 했고, 또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¹⁸⁹⁾ 노동자계급을 원자화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5인터 동맹은 그 정책을 중단기적 해결책으로 지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이동과 서로간의 접촉에 제약을 두는 조치들이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한 그 조치들을 지지하고 요구하지만, 그 조치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리는 결코 양도하지 않는다.”¹⁹⁰⁾ 제5인터 동맹은 록다운 정책을 더 장기간 실시할

melden und sich in den Dienst der Bekämpfung der Katastrophe zu stellen.“

18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the Bosnian Muslims a Nation? March 199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snian-muslim-nation/>

187) Verena Kreiling, Winfried Wolf und Christian Zeller: Corona. Kapital. Krise für eine solidarische und ökologische Alternative, 4. April 2020, p. 1 (영역은 필자)

188) 같은 책, 54-55쪽 (영역은 필자)

189) Red Flag: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24 March 2020, <https://www.redflagonline.org/the-impending-catastrophe-and-how-to-combat-it/>

190) Jeremy Dewar: Why the government is lying about coronavirus, 16 March 2020,

것을 제안한다. “전염병의 제한적 통제로 수개월 동안 생산이 상당 부분 폐쇄되겠지만, 그리고 나면 노동인력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채로 생산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다.”¹⁹¹⁾ 명백히 이들 전(前)혁명가들은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1929년 식의 공황과 경찰·감시 국가의 전격 구축한 가운데서 투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입게 될 치명적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제안하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설사 그것이 무지의 소치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멍청함은 정치적 범죄행위에 가깝다!¹⁹²⁾

자본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

자본가 국가에 대한 IMT 등의 범죄적 환상은 우연이 아니다. 이 환상은 자본가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그에 따른 혁명가들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다. 앞의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국가가 “특별 무력 조직, 일부 계급의 억압을 위한 폭력 조직”(레닌)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은 평화적인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기계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폭력·무장 봉기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과 같이 레닌이 선언했듯이 말이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의 대체는 폭력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¹⁹³⁾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국가기계의 강제적인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다.”¹⁹⁴⁾

그러나 중도주의 조직들은 — 테드 그란트, 피터 타페, 앨런 우즈의 전통 전반과 마찬가지로 — 언제나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접근법이 부르주아 국가 일반에 대한, 그리고 특수하게는 개량주의 관료에 대한 중도주의자들의 평화주의적·기회주의적 영합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앨런 우즈는 IMT의 국가 이론을 제시하는 한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수중에 있는 거대한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회의 평화적 전환은 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¹⁹⁵⁾ 우즈에 따르면, 자본가 국가의 부르주아 제도들이 사회주의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https://www.redflagonline.org/why-the-government-is-lying-about-coronavirus/>

191) Markus Lehner: Covid-19: From pandemic to global economic crisis (Part 2), translated from Neue Internationale 245, April, 2020, <https://fifthinternational.org/content/covid-19from-pandemic-global-economic-crisis-2>

192) 말 나온 김에 제5인터내셔널 동맹의 정치적 사고 유형을 잘 보여주는 작은 일화 하나를 언급하겠다. 제5인터 동맹 오스트리아 지부는 계획되어 있던 공개 모임을 오스트리아에서 록다운이 시작하기 이미 며칠 전에 취소했다. 그들은 웹사이트 상의 성명에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에 비추어 국제여성의 날 우리 모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은 오스트리아에서 수만 명이 감염되었고 의료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임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우리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바이러스 차단에 기여하길 원한다.” („Angesichts der derzeitigen raschen Ausbreitung des Coronavirus haben wir uns entschieden unsere heutige Veranstaltung Frauenbewegungen International abzusagen. (...) Die derzeitige Lage deutet auf eine Infektion von Zehntausenden allein in Österreich und eine Überlastung des Gesundheitssystems hin. Wir wollen damit Verantwortung übernehmen und zur Eindämmung des Virus beitragen.“ [AST: VERANSTALTUNG: Frauenbewegung international (ABGESAGT), 11 March 2020, <http://arbeiterinnenstandpunkt.net/?p=4078>]) 이 동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늘리는 대신 취소함으로써 공중보건을 위한 투쟁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맑스주의 조직이라면 자신의 활동을 더 높게 생각할 텐데!

193)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in: LCW Vol. 25, p. 405

194) V. I. Len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in: LCW Vol. 25, p. 237

때문에 이러한 평화적 전환은 더더욱 가능하다. 그러므로 IMT의 꿈의 세계에서는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르투갈 혁명이 평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데에 조금의 의문도 없다.”¹⁹⁶⁾

이러한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무장해제 된) IMT가 자본가 국가를 진보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자본가 국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 코로나19 위기의 경우에서처럼)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유리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IMT는 자본가 국가의 보건 정치가 그것의 일반적인 반동 정치의 계속이라는 것을 무시한다. 레닌은 “이런 상황에서, 전례 없이 널리 퍼져 있는 맑스주의의 왜곡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맑스가 국가라는 주제에 대해 실제로 가르친 것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¹⁹⁷⁾ IMT의 거대한 이론적·실천적 혼란을 볼 때, 이 과제는 그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혁명적 정치에서는 아니다!

다른 중도주의자들은 그 정도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록다운과 민주적 권리 금지에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피터 타페의 CWI(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에서 갈라진 ISA(국제사회주의 대안)¹⁹⁸⁾은 장문의 국제 지도부 성명을 통해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의 록다운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격리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접”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식량 등 필수 품목의 분배를 공개적으로 조직해야 한다.”¹⁹⁹⁾

ISA의 전 동료들[CWI]도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몇몇 긴 성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CWI는 임금 방어, 건강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록아웃 그 자체에는 도전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 모든 요구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 그 자체에도 도전하지 않는다.

“록다운 시 CWI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즉각 보호하고,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유지하며, 사회의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²⁰⁰⁾ “이 위기 동안 노

195) Alan Woods: Marxism and the State, December 2008, <https://www.marxist.com/marxism-and-the-state-part-one.htm>

196) Alan Woods: Marxism and the State

197)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in: LCW Vol. 25, p. 391

19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risis in the CWI: For a Marxist Way Out! A proposal to all current members and former members of the CWI to discuss the way forward in these tumultuous times. Open Letter from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29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to-cwi/>; The Crisis in the CWI - Background and Perspectives, Special Double Issue of Revolutionary Communism (New Series No.20&21) <https://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olutionarycommunism-new-series-20-21/>

199) ISA: Socialists and the Covid-19 Pandemic. How the virus is used by the ruling class and big business in their interests, and what should we demand? Statement from the 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International Socialist Alternative, 4 March 2020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0/03/coronavirus-international-statement>

200) CWI: An emergency programme to fight Covid-19 and protect working people, 18 April

조 지도자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록다운을 견디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공세에 나서야 한다.”²⁰¹⁾ CWI의 “모(母)지부” 격인 잉글랜드·웨일스 지부가 낸 “위기 타개를 위한 노동자 헌장”은 록다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²⁰²⁾

이것은 CWI가 인민대중에게 록다운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다. CWI는 그 국제지도부가 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억압 또한 록다운의 한 측면인데, 록다운 조치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무력과 벌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²⁰³⁾ 그러나 그들은 현재 인류의 3분의 1에게 타격을 주고 있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민주적 공간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있는 록다운 정책의 종식을 요구하길 거부한다!

프랑스의 POID(독립민주노동자당)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랑베르주의자들한테서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많은 요구와 자본가에 대한 많은 비난...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와 록다운 정책에 대항하는 대중투쟁에 대한 요구는 없다!²⁰⁴⁾

이러한 중도주의 정책은 1차 세계대전 중에 각종 러시아 사회배외주의자 그룹들이 제국주의 전쟁에 보낸 반쯤 은폐된 지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플레하노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공공연히 당당하게 제국주의 조국 방어를 요구했지만, 다른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또는 보다 교묘하게 조국 방어를 지지했다. <<나샤 자리아>> 신문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한 영향력 있는 멘셰비키 개량주의자 조류는 노동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대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노동자 정치가들은 본질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 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조금 완화된 형태로지만 — 행동하고 있다. 자유주의 노동자 정치가들은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다. 먼저 인민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전쟁에 대한 반대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나샤 자리아>>가 있다.”²⁰⁵⁾

2 0 2 0
<https://www.socialistworld.net/2020/04/18/cwi-emergency-programme-to-fight-covid-19-and-protect-working-people/>; 다음도 보라. Coronavirus plunges capitalism into global turmoil - The need for a socialist alternative, Statement from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CWI, 23 March 2020, <https://www.socialistworld.net/2020/03/23/coronavirus-plunges-capitalism-into-global-turmoil-the-need-for-a-socialist-alternative/>;

201) Covid-19: Organise to fight for health and safety - socialist planning not capitalist chaos, 10 April 2020, The Socialist, weekly newspaper of the Socialist Party (CWI England & Wales), <https://www.socialistworld.net/2020/04/10/covid-19-organise-to-fight-for-health-and-safety-socialist-planning-not-capitalist-chaos/>

202) Coronavirus - A workers' charter to tackle the crisis, 17 March 2020, Socialist Party (England and Wales section of the CWI), <https://www.socialistworld.net/2020/03/17/coronavirus-a-workers-charter-2020/>

203) Covid-19: Economic catastrophe spurs state intervention and workers' resistance, 9 April 2020, Statement by the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the CWI, <https://www.socialistworld.net/2020/04/09/covid-19-economic-catastrophe-spurs-state-intervention-and-workers-resistance/>

20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A threat and the means of combatting it. Editorial of La Tribune des Travailleurs (Workers' Tribune) Issue n°230, 11 March 2020, in: IWC Newsletter No. 154, 13 March 2020; Wage war on the epidemic, give oneself the means to do so, Statement by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Workers Party (POID), 20 March 2020, in: IWC Newsletter No. 155, 27 March 2020

205) V. I. Lenin: How Servility to Reaction is Blended with Playing at Democracy (1915), in:

위에서 언급한 중도주의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록다운을 칭찬하지는 않지만, 록다운 종식을 요구하지도, 대중에게 록다운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조언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적 정치에는 낯선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전제조건인 혁명적 정치에는 말이다!

이 모든 수정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특징은 현 자본주의 경제·정치적 위기와 자본주의 보건 위기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세 위기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 세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은 하나의 동일한 반혁명 노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 세 영역을 *하나의 동일한 총체*의 일부로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레닌은 헤겔에 관한 노트에서 “현실의 계기들의 총합, 그 총체”를 인식하는 것이 “변증법적 인식의 본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⁰⁶⁾ 불행히도 수정주의자들은 현 세계체계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 시기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필요한 강령적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⁰⁷⁾

현 시기 개량주의·중도주의 정치의 몇 가지 쟁점을 다루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위기에서 맑스주의자와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간의 주요 차이점을 도표 형태로 요약해 본다.

명백히 이것은 주요 특징의 *일반적* 경향을 망라한 도식이다. 모든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들이 반드시 그러한 정책의 *모든 측면*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맑스주의자와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간의 차이에 따른 실천적 결과>

맑스주의자: 록다운 정책과 집회·시위 등 민주적 제 권리 억압의 종식을 요구한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이러한 종식 요구에 반대한다

맑스주의자: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펼쳐 일어설 때 맑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지하며 그러한 투쟁에 방향과 조직을 부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펼쳐 일어설 때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거나, 아니면 단지 대중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에 국한할 것이며 그러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거부할 것이다.

LCW Vol. 21, p. 268. [레닌 <반동에 대한 굶신거림과 민주주의 놀음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레닌 전집 59권 (“제2 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321쪽].

206) V. I. Lenin: *Conspectus of Hegel's Science of Logic* (1914); in: *Collected Works* Vol. 38, pp. 157-158

207) 소련 철학자 아브라함 데보린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한 바 있다. “한 시대와 그 시대의 전쟁들 및 모든 가능한 과정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모든 외적 현상들을 결정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시대의 ‘참된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현상들을 — 외적 현상의 다면성과 관계없이 — 통일적인 총체와 연결시켜야 한다.”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Nikolai Bucharin/Abram Debo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a.M. 1974, p. 79 [영역은 필자])

맑스주의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감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투쟁을 요구한다. 유일하게 지지하는 투쟁은 직장에서의 투쟁인데, 왜냐하면 이들 사업장도 폐쇄시켜야 하기 때문에.

맑스주의자: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반(半)합법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 국가 탄압의 위험을 무시하며 반합법 정치활동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에 대한 “노동자 통제”?

일부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세력들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을 지지한다는 불유쾌한 사실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 통제”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들이 주창하는 “노동자 통제”는 록다운에 대한 노동자 통제이며, 모든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노동자 통제다. 미국의 트로츠키주의 조직 “사회주의 부활” 그룹 — 일련의 올바른 비판에 근거하여 좌익 만델주의 그룹 “사회주의 행동”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뒤 지난 해 결성한 그룹 — 이 그 한 예다. 이 그룹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성명에서 적극적으로 록다운을 요구하지는 않고, “모든 이동 제한에 대한 공적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실행!”²⁰⁸⁾을 슬로건으로 제기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5인터내셔널 동맹도 록다운 정책에 대한 지지를 “노동자 통제” 슬로건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 록다운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비필수 작업을 중단시킬, 그리고 계속 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관철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당장 노동자계급의 행동과 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다.”²⁰⁹⁾

우리는 이러한 슬로건이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를 은폐하려는 부실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온전한 “노동자 통제” 사상은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있는 자본가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에 있다.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계획경제로 넘기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의 도전 말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 통제 슬로건을 부르주아 탄압 기구와 섞는다는 생각을 언제나 강하게 거부해 왔다. 만약 제5인터내셔널 동맹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혁명적인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면, 우리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노동자 통제”를 요구하는 CWI의 초 기회주의 슬로건을 항상 강하게 비난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탄압 기구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그것을 분쇄할 것을 요구한다. 또

208) Statement by Socialist Resurgence on COVID-19, By the National Committee of Socialist Resurgence
<https://socialistresurgence.org/2020/03/24/statement-by-socialist-resurgence-on-covid-19/>

209) Bernie McAdam: Workers Must Take Control of the Lockdown, 31 March 2020,
<https://www.redflagonline.org/workers-must-take-control-of-the-lockdown/>

한 맑스주의자들은 이민이나 제국주의 전쟁, 또는 동성애자 권리의 제한에 대해 “노동자 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²¹⁰⁾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이민 통제에 대항하여,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동성애자의 모든 민주적 권리를 위해 언제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싸운다.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을 집안에 가두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할 권리를 금지하는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조치들을 “통제”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이래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이 가장 심대한 공격을 분쇄하고자 한다!

이 슬로건은 현재의 혼란된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피억압자가 독점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언론, 그리고 노동자·민중운동 관료 지도부들의 신성동맹이 몰아치는 흉포한 공세를 맞고 있는 지금 특히 위험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혼란과 공포가 만연한 조건 아래서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노동자계급에서의 다수가 집회와 시위 등 민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노동자·피억압자 전위가 조직하고 시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싸울 권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민 다수가 거대한 부르주아 언론 캠페인에 노출되어 당장은 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노동자 통제”의 실제 의의는 중도주의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그것이 제공한다는 데 있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과 민주적 권리 억압을 규탄하지 못하는 중도주의자들의 그러한 기회주의를 정당화해 줄 이론적 허점을 말이다. 록다운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대한 “노동자 통제” 슬로건은 아파 죽는 배치기 다이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지적 줄타기다.

사회보나파르트주의: 경제주의와 멘세비즘의 자식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는 이러한 기회주의는 경제주의 — 즉 정치적 요구보다 경제적 요구를 우선시하는 정책 — 의 고전적 특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록다운 좌파는 *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와 분리시킨다. 록다운 좌파는 *지금* 경제 및 보건 조치들 — 긴축 반대, 공공의료 등 — 을 요구하면서, 오늘 민주적 권리 방어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는 *잠시 뒤*로,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난 뒤로 미룬다. 이것이 언제일지, 또 다른 팬데믹이 안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이들 세력이 경제적 요구, 보건 요구를 정치적 요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시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의 반영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적 억압을 깨지 않고는 단 하나의 경제적 요구 또는 보건 요구도 달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시에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는, 긴축에 대항하는, 또는 팬데믹에 대항하는 요구 프로그램을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회주의는 *사회보나파르트주의적 경제주의*에서 비롯한다.

2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이와 관련, 정치적 요구와 정치권력을 위한 투쟁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노동자계급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고전적인 경제주의적 오류가 또한 여기에 있다. 혁명적 민주주의 없이는 혁명적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자본가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 팬데믹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 것 없이는 혁명적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레닌은 “경제주의는 노동자들을 자유주의자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애쓰는 부르주아적, 기회주의적 조류”²¹¹⁾라고 성격규정 한 바 있다. 오늘 특히 그렇다. 동시에 정치적, 민주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없이, 단지 경제적 요구, 보건 요구만을 강조하는 것은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계의 손아귀에서 노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동서 대부분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적” 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양쪽에 봉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좌파가 현 정세에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역사적인 글로벌 반혁명 공세의 순간에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기력 상태를 반영한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시류를 탈” 때는 독재와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인기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한 혁명가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전쟁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가 그렇듯이 어떤 사람들은 억누르고 망가뜨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련시키고 계몽한다.”²¹²⁾ 이른바 좌파의 대부분이 현재의 역사적인 시험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혁명당에 대한 맑스주의 이론의 바로 그 토대를 상기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자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혁명당에 대한 기본 사상은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각성한 분자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혁명당이 계급 전체의 당이 아니라 오직 전위의 당인 것은 그 때문이다. 강령상의 명확성, 철의 규율 등도 여기서 나온다. 계급 전체와 전위의 이러한 분리는 부르주아 매체의 영향 아래 더 쉽게 들어가 버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다 뒤떨어진 부분의 압력을 전위가 견뎌낼 수 있게 한다.

레닌과 트로츠키 시절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1920년 2차 대회에서 채택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테제>에서 맑스주의의 교훈을 요약 총괄했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으로, 가장 앞서 나간, 가장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따라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다. 자연선택의 과정에 의해 공산당은 최량의, 가장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노동자로 구성된다. 공산당은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이익 이외에 다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길 전체를 그 총체성 속에서 명확히 볼 수 있고, 이 길의 굽이마다 개별 집단이나 직종의 이익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방어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계급 전체와는 구분된다.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반프롤레타리아 대중 전체를 올바른 길을 따라 안내해가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적·정치적 지렛대다.”²¹³⁾

211) V. I. Lenin: Adventurism (1914); in: LCW Vol. 20, p. 356

212) V.I. Lenin: Reply to P. Kievsky (Y. Pyatakov) (1916); in: LCW 23, p. 22. [레닌 <키에프스키에게 보내는 편지>, 레닌 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29쪽]

213)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pproved by the Second Comintern Congress (1920); in: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Selected and edited by Jane Degras, Volume I

코민테른은 당과 계급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리하여 전위를,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부르주아·소부르주아 영향력에 맞서 싸우고, 뒤떨어진 노동자의 의식에 영합하지 않는 별개의 당으로 꾸려낼 필요를 강조했다.

“당 개념과 계급 개념 간에는 극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독일과 영국과 그 밖의 나라들의 기독교 노동조합과 자유주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다. 여전히 사이데만과 곰퍼스와 그 비슷한 경향을 따르고 있는 많은 노동자 집단은 의심할 여지없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다.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아주 많은 반동적 분자들을 포함하는 경우조차도 족히 있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이런 뒤떨어진 부분들에 장단 맞추지 않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공산주의 전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공산당의 임무다. 당과 계급 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뒤섞는 것은 최대의 오류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전쟁 중 노동자계급 특정 부분의 정서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이익 — 프롤레타리아 당에게 전쟁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 을 옹호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한 정서와 편견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하자, 모든 나라의 사회배반자 당들은 '자'국 부르주아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이 언제나 그리고 일관되게 노동자계급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노동자 다수자의 정서를 거스르고 또 무릅쓰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당의 임무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다. 같은 식으로 20세기 초 당시의 러시아 멘셰비키 (이른바 경제주의자들)는 전체 노동자계급이 아직 정치투쟁에 대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차리즘에 대한 공공연한 정치투쟁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우파는 당이 있는 것은 대중을 인도하고 대중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라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길 거부한 채,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하게 행동할 때 언제나 “대중의 뜻”이라고 주장한다.”²¹⁴⁾

리바이어던 좌파가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고전적인 단계론 — 처음에 멘셰비즘이, 그 다음에 스탈린주의가 내걸었던 — 에 영합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준다. 먼저 경제적 요구와 보건 요구를, 그리고 나중에야 민주주의 요구, 반 보나파르트주의 요구를 내건다는 사상을 록다운 좌파가 띄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승리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강화를, 그에 따라 보건 부문에서 긴축·삭감이라는 반혁명적 프로그램의 승리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록다운 좌파의 접근방식은 1980년대 스탈린주의 당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론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NATO 핵무장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모스크바 측의 평화 캠페인을 띄우기 위해, 한편으로는 계급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가 노동자계급에 관계된 문제라면, 후자는 “전 인민”에 관계된, 즉 부르주아지 부분들에게도 관계된 문제다. 그리하여 스탈린주의자들은 “평화 애호 부르주아지”와 인민전선 동맹을 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개량주의·중도주의 좌파의 많은 부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에게 몰아친 위협이며, 따라서 그러한 팬데믹과 싸우는 데는 지배계급의 “합리적인” 부분들 (시진핑, 메르켈, 마크롱, 산체스 등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이들 좌파가 “제한된 시간 동안” 록다운 정책과 민주적 권리 억압을 받아들이는 (또는 주창하는) 이론적 기초

1919-1922, p. 128
214) 같은 책, 129쪽.

다. 부르주아지 부분들 중 영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경제적·정치적 반혁명을 밀어가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영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칭 사회주의 자들과의 동맹을 위한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영리한 사회주의자들과는 말이다!

룩다운 조건에 대항하는 자연발생적인 대중행동: 좌파의 리트머스 시험지

현 정세에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현 식량폭동과 반(反)경찰 항의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인 것 같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와 청년과 빈민들이 억압적인 룩다운 조건에 대해 항의하는 자연발생적인 대중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있었다. 중국의 후베이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 북오세티아에서 러시아 정부가 내린 룩다운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행동이 있었다. 파리와 브뤼셀에서 경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폭동이 있었다. 더 많은 대중시위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모든 항의행동들은 룩다운 조건을 깨는 반기를 든 것이며 이 리바이어던 체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증오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집단행동들은 자본주의 위기와 룩다운 정책이라는 준 계엄령 조건이 빚은 기아와 억압 상태로 인한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대중행동이다.

객관적으로 이 대중행동들은 글로벌 룩다운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시위다. RCIT와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이러한 자연발생적 대중행동들을 열렬히 지지한다. 당연히 이 대중행동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더 많은 조직화와 더 많은 정치적 방향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이 항의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자칭 좌파 조직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이 대중행동들을 지지할 것인가? 만약 지지한다면, 이들 대중시위가 이러한 억압적인 조건에 근본적인 반기를 드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중시위 지지가 룩다운 정책을 지지 또는 용인하는 자신들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룩다운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자 — 또는 최소한 무비판자 — 로 남는다면, 그들은 그러한 대중시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관된 것이긴 한데, 일관된 반혁명적 입장이다!

각종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십중팔구 이러한 항의행동을 “후진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대중들의 우려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팬데믹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룩다운 좌파는 대중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등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룩다운 정책에 대한 지지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폭동과 항의행동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대중을 “후진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지난 연간의 경험은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이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대중시위를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예로 2011년 영국에서 일어난 8월 봉기 (“토틀넘 폭동”)를 들 수 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경찰이 여섯 아이의 아버지인 마크 더간에게 총을 쏜 뒤 노동자계급의 하층과 민족·인종 피억압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3만여 명의 노동계급 청년과 흑인과 이주자들이 거리에서 경찰과 싸우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태로 보수당/자유민주당 정부는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1만6천 명의 경찰을 거리에 동원하고 심지어는 자국 주민에 대한 군대 사용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내몰렸다. 모든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8월 봉기는 분명 1984/85년의 광부 파업 이후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투쟁 중 하나였다. RCIT는 이 봉기를 환영하고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개량주의자·중도주의자들 — 영국공산당/모닝스타, CWI, IMT, 제5인터 동맹 등등과 같은 — 은 이를 지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봉기 청년들을 비난했다. 슬라보예 지젝 같은 사이비 맑스주의 학자들은 청년들을 심지어 “폭도”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²¹⁵⁾ 파리 교외의 방리유 청년 봉기에 대한 프랑스 개량주의·중도주의자들의 접근방식도 나올 것이 없었다.

이 모든 자칭 좌파들은 개량주의 관료와 자유주의 학계의 중간계급 환경에 너무도 깊이 통합되어 가난한 피억압 대중의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중은 먼저 “진보적”,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습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투쟁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부르주아 주지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중이 투쟁 속에서 배우며, 종종 원시적이거나 뒤떨어진 사상을 가지고 투쟁에 합류하여 투쟁 과정에서 배운다는 것을 망각한다 (또는 망각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러한 투쟁 중에, 그리고 그러한 투쟁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혁명적 조직의 임무라는 것을 망각한다!

레닌은 — “후진적” 민족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접근 태도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 혁명가들은 그러한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민지와 유럽의 소 민족들에 의한 봉기 없이도, 모든 편견을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지 일부에 의한 혁명적 분출 없이도, 지주와 교회와 군주제에 의한 억압 및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반(半)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운동 없이도 사회혁명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사회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 쪽의 군대가 어느 한 장소에 정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의 군대가 다른 한 장소에 정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회혁명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스꽝스럽게 현학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만이 아일랜드 반란을 ‘폭동’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사회혁명을 기대하는 자는 누구든 살아서는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혁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이 없이 혁명에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주민 가운데 모든 불만 계급들과 집단들과 분자들이 참가한 일련의 전투들로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가장 조야한 편견에 물들어 있는, 가장 모호하고 가장 환상적인 투쟁 목적을 가진 대중들이 있었다. 일본의 자금을 받은 소 집단들이 있었고, 투기꾼과 한탕주의자 등등이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중운동은 차리즘의 기반을 타격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닦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들이 그 대중운동을 이끈 것이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억압받고 불만을 가진 모든 분자들의 대중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불가피하게 소부르주아지와 후진적 노동자 부분들이 그것에 참가할 것이며 — 그러한 참가가 없이는 *대중투쟁은 불가능하며*, 그것 없이는 어떠한 혁명도 가능하지 않다 —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반동적 환상, 자신들의 약점과 오

215) 2011년 영국의 8월 봉기 동안의 RCIT의 분석과 전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N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These are not “riots” - this is an uprising of the poor in the cities of Britain! The strategic task: From the uprising to the revolution!, 10.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uprising-of-the-poor-inbritain/>; Michael Pröbsting: The August uprising of the poor and nationally and racially oppressed in Britain: What would a revolutionary organisation have done?, 18.8.2011, <http://www.rkob.net/new-english-language-site-1/august-uprising-what-should-have-been-done/>; Bericht der RKOB-Delegation über ihren Aufenthalt in London 2011, <http://www.rkob.net/international/berichteuprising-in-gb/>; Michael Pröbsting: Britain: “The left” and the August Uprising, 1 September 201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ain-left-and-the-uprising/>

류를 운동 속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들은 *자본*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계급적으로 각성한 혁명 전위인 선진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잡다한 색조와 갖가지 불협화음이 뒤섞여서 의견상 파편화 되어있는 대중투쟁의 이러한 객관적 진실을 표현하면서, 이 대중투쟁을 하나로 묶어세워서 지도하고, 권력을 잡고, 은행을 접수하고,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일지라도!) 모두가 증오하는 트러스트를 몰수하고, 그 밖의 독재적 조처들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조처들은 하나의 총체로서 부르주아지의 타도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 결코 대중투쟁에서 소부르주아적 잔재를 즉각 '털어내'지는 못하겠지만 - 구성할 것이다.”²¹⁶⁾

소부르주아적 좌파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민중이 사회주의 의식을 습득하는 것은 제한된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위에 바탕을 두고 대중에 뿌리내린 혁명당의 지도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레닌은 왜 개량주의·중도주의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지 설명했다.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그들의 현 시기 최고 대표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및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노동인민이 자본주의 하에서 높은 수준의 계급의식과 확고한 결기와 자각, 폭넓은 정치적 시야 - 노동인민이 오랜 투쟁 경험 없이도 그저 투표하는 걸로, 또는 모든 사태 시에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줄 자질들 - 를 습득할 수 있다고, 따라서 노동인민이 특정 계급, 또는 특정 당을 따를 것이라고 상상하는 착각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현학자들과 카우츠키, 롱게, 맥도날드 형의 감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발명해낸 감상 소설이다.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대중을 억눌리고 짓밟히고 겁에 질린 생존 상태로, 분열 (농촌!)과 무지의 상태로 몰아넣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농민 대중을 속여 그들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허위와 기만의 기구를 부르주아지의 손에 들려주는 등,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²¹⁷⁾

현재의 역사적인 변화가 좌파의 상당 부분들 사이에서의 광범위한 사기 저하로 결과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많은 좌파가 반혁명 공세와 팬데믹 위험을 핑계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서 철수하여 소셜미디어 상의 논평에 스스로를 제한할 것이다. 이들은 보건상의 위험을 들어 스스로를 변명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러한 사기 저하로 인한 후퇴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자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칭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인용한 제5인터 동맹 그룹의 회의 취소에 대한 설명을 상기하라).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좌파들 사이에서 공개 표명을 기꺼이 삼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비춰준다.

“그 사이에 좌파적 반대운동의 주 전술이 불가능해져버렸다. 공개 표명 말이다. 그저 정부가 위기 때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가 왔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우리가 수십 년의 긴축에서 한 가지를 배웠어야 한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인스주의·신맑스주의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고려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굳혀줄 실질적인 정치적 배경막이 없다면 역사 기록에서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좌파가 이 계기를 잡지 못한 채 상황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러한 계기는 평소와 다른 없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떠다니는 SNS 활동을 뛰어넘는 반대운동을 편안히 집

216) V. I. Lenin: The Discussion On Self-Determination Summed Up (1916), in: LCW Vol. 22, pp. 355-356 (강조는 원저자).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 전집 64권 (“맑시즘의 혁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6-98쪽].

217) V. I. Lenin: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LCW 30, pp. 266-267

에서 어떻게 조직하는가? 좌파는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기고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을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²¹⁸⁾

분명하게도, 계급투쟁은 취미 혁명가들로 가장한 전문가 겁쟁이들에게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요컨대 이 모든 정치적·이론적 실패는 좌파의 상당 부분이 진보적 요구를 위해 미적지근한,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을 넘어, 팬데믹과 싸운다는 명분을 방패삼아 아예 반혁명을 지지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결과했다. 노동자운동·좌파의 이들 부분의 실패는 제2 인터내셔널 다수파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길 거부했던 1914년의 그 실패 못지않게 심각한 실패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18)Tim Christaens: Must Society be Defended from Agamben?, 26 March 2020
<https://criticallegalthinking.com/2020/03/26/must-society-be-defended-from-agamben/>

6장. 맺음말

이 책은 역사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서 나왔다. 그만큼 이 책은 비상한 상황 하에서 썼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 책이 6개월이나 12개월 지나서 나왔다면, 확실히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몇몇 경향에 대해 더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 것이며, 이 또는 저 사태발전에 대한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책의 목적은 이 격동의 사건들 속에서 전 세계의 투사들을 도와 혁명적 노선을 발전시키고, 그리하여 계급투쟁에 개입할 준비를 더 잘 갖추는 데 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림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소부르주아 학술주의적 접근방식일 것이다.

우리가 사태의 정확한 진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현 정세의 객관적,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 이 또는 저 정부 지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 아주 분명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반혁명 공세 — 선제 반혁명 — 다.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조건을 급격히 악화시킬 거대한 경제적·반민주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록다운과 집회·시위의 권리 억압이 그리도 위험한 이유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권리를 억누르는 완벽한 구실이다. 지배계급이 공포와 패닉을 퍼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배계급은 이 구실을 지금뿐만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지배계급은 반드시 그것의 귀환에 대해 경고할 것이다.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고를 반복한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을 혼란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해 수년간 이러한 팬데믹의 위험을 이용할 것이다.

“팬데믹 때문에” 록다운과 민주적 제 권리 억압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도 위험한 이유다. 부르주아지는 수년간 공황과 권위주의 통치를 위해 우리의 손을 묶고 싶어 한다. RCIT가 록다운과 집회·시위의 권리 억압을 지지하는 모든 좌파들을 날카롭게 비난하는 이유다. 이들 세력은 객관적으로 반혁명에 봉사한다. 이들은 현대판 사회배외주의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배외주의의 현대적 버전인 것이다.

우리가 대 사건들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이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뒤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질 수도 없다. 지배계급이 반혁명 공세를 펴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체제의 파멸적인 위기 앞에서 필사적인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가 지금 더 세계 철수록, 노동자·민중으로부터의 대응은 더 강하고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여주었듯이, 새로운 시기는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의 질적 격화를 불러올 것이다. 새 시기는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향들을 대대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 및 생산력의 쇠퇴·부후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 특히 미·중 간 — 의 패권쟁투, 계급투쟁과 노동자·피억압자의 혁명적 봉기 등이다.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이러한 사태발전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맑스주의적 관점을 공급해왔다. 현 3중 위기 — 1929년과 같은 새로운 공황,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리바이어던의 대두, 코로나19 팬데믹 — 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태발전이다.

트로츠키는 “제4인터내셔널의 힘은 그 강령이 대 사건들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²¹⁹⁾ 이 발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전 세계의 혁명가들은 맑스주의의 기치를 드는 조직들을 그들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RCIT는 새로운

사태발전을 인식하고 혁명적 대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다년간에 걸쳐 증명해 왔다. 우리는 2008년에 열린 현 역사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인식했다. 당시 많은 조직들이 비관주의에 압도되어 후퇴를 거듭했다. 우리는 2010년 이래로 아랍 혁명의 정당성을 방어했다. 많은 조직들이 아랍 혁명을 지지하길 그만 두거나, 아예 아사드 대통령과 시시 장군 같은 반혁명 도살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는 중국·러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을 인식했다. 대부분이 그러한 입장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비웃었을 때 말이다. 우리는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그 어떤 강대국 갈등에도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적용할 필요를 일찍부터 강조했다. 그리고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는 거의 홀로 글로벌 록다운 정책에 맞서 일관된 혁명적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는 RCIT의 방법, RCIT의 강령과 정세전망이 대사건들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새 시기는 노동자·민중 운동 및 “좌파” 내 위기와 모순의 질적 악화를 또한 불가피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 시기는 제 조직의 정치적·조직적 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새 시기는 기회주의자들을 훨씬 더 우측으로, 부르주아지에게 견인되는 중간계급 사회제국주의적 자유주의 진영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그러나 새 시기는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다시 생각하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또한 열어젖힐 것이며, 이것은 혁명적 세력들의 재편성으로 결과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RCIT는 원시적이지만 전투적인 대중을 지향하며, 그러한 혁명적 관점을 공유하는 맑스주의자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한다.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 레닌은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를 몇 마디 말로 적절하게 요약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내란을 설교하고 준비하라. 목사가 되는 대신 비합법 선전가 대열에 합류하라!”²²⁰⁾ 마찬가지로 오늘 혁명가들은 어려운 조건하에서 더 긴 기간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세계가 오랫동안 보게 될 가장 큰 정치적 폭발을 낳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시기에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임무는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을 위해 힘을 결합하고 노력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RCIT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이 임무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최근 공개장 댁음말을 외쳐본다. “지금 행동하라.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219) Fourth International: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23,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220) V. I. Lenin: Plan for a Pamphlet „The European War and European Socialism (1914)“, in: LCW Vol. 41, p. 340

부록

<시국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우리는 세계정세의 전환점에 있다. 지배계급이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시 분위기를 불러내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 시국선언, 2020년 3월 21일

들어가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의 이해를 방어한다고 하는 조직이라면 자신의 전략을 세계정치의 기본 동역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계급 세력관계와 국가들 간의 역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 없이 전진하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의 전 역사에 걸쳐 우리는 여러 번 중요한 사태발견들을 확인하여, 이를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성격규정 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전환점으로 2001년 9/11 사태, 2008/09년의 대침체, 2010년 이래 장기간에 걸친 아랍 혁명 과정 (그 모든 부침과 함께), 중국의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 하나하나가 세계정치에 중요한 장기적인 파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이 사건들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이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한 조직들은 정치적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고, 더는 혁명적 세력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현재의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도 비슷한 역사적인 비중을 가진 주요 사건이다. RCIT는 그 발병 첫 날들부터 이 코로나 사태의 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했다. 거의 모든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즉각 이 사태의 *정치 반혁명 성격*을 인식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일련의 성명과 기사 속에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패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전위투사들이 민주적 권리 방어와 의료 서비스 확대, 모든 긴축 공격 분쇄를 내건 행동강령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강령적 대응의 옳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리케이드 반대편에서도 지배계급의 좀 더 영리한 분석가들은 곧 코로나19 위기의 의미를 인식했다. 적나라하게도, 블룸버그 통신 —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주요 대변매체 — 의 한 부르주아 논평가는 현 사태의 역사적인 의의를 “격동하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시대의 시작을 알린” 1차 세계대전에 비교했다.¹⁾

1)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진적인 변혁을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변혁 말이다. 실제로 마지막 그러한 대변동은 거의 꼭 1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세상을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변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과 과학, 철학에서의 혁명이 필요했다.” (Pankaj Mishra: Get Ready, A Bigger Disruption Is Coming. The Covid-19 pandemic reflects a systemic crisis akin to the seminal crashes of the 20th century, 16.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6/coronavirus-foreshadow-s-bigger-disruptions-in-future>)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본질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실히 중대한 보건의로 위기다. 그러나 사물·사건은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유행했던 유행성독감 전염병들은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까지 사망자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그 어떤 주요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불러일으킨 바 없었다.²⁾ 2017/18 시즌 유행성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럽에서만 약 152,000명으로 추산되었다!³⁾ 2009년 돼지독감 [‘신종플루’] 팬데믹으로 최대 20만 3천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섯다운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1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글로벌 섯다운은 필시 다른 원인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원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원인들이다. RCIT가 <2020년 세계 정세 전망> 문서 속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최근 몇 년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사태발전은 2019년 가을에 개시된 *준 혁명적 세계정세*의 출현으로 결과하였다.⁴⁾ 이 새로운 글로벌 정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작년 하반기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29년 이후 최악의 침체에 진입했다.⁵⁾

-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O: Up to 650 000 people die of respiratory diseases linked to seasonal flu each year, 14 December 2017 <https://www.who.int/en/news-room/detail/14-12-2017-up-to-650-000-people-die-of-respiratory-diseases-linked-to-seasonal-flu-each-year>; Iuliano AD, Roguski KM, Chang HH, Muscatello DJ, Palekar R, Tempia S, et al. Estimates of global seasonal influenza-associated respiratory mortality: a modelling study. Lancet. 2018;391:1285-300. Medline:29248255 doi:10.1016/S0140-6736(17)33293-2; Paget J, Spreuwenberg P, Charu V, et al. Global mortality associated with seasonal influenza epidemics: New burden estimates and predictors from the GLaMOR Project. J Glob Health. 2019;9(2):020421. doi:10.7189/jogh.09.020421
- 3) J. Nielsen et al: European all-cause excess and influenza-attributable mortality in the 2017/18 season: should the burden of influenza B be reconsidered? in: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Volume 25, Issue 10 (October 2019), pp. 1266-1276
- 4)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 글로벌 수준의 대중투쟁 파고가 전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났다.⁶⁾

* 세계무역전쟁과 미·중 간 냉전이 보여주듯이 지난 몇 년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대대적으로 고조되었다.⁷⁾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주도권을 되찾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글로벌 패닉과 국가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다.

물론, 우리는 글로벌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반혁명 공격을 가릴 엄폐수단을 찾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발명해냈다”는 식의 어리석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식의 음모론도 당연히 거부한다. 그것은 배외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일 뿐이다. 처음에는 글로벌 부르주아지도 이 보건 위기에 놀라서 당황한 채로 사태 속에 빨려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이 “위기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 같은 어릿광대 트리오보다는 좀 더 발 빠른 자들이 그랬다). 중국 정권이 이 과정을 시작했고, 곧 글로벌 연쇄반응이 그 뒤를 따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글로벌 코로나19 위기의 정치적 성격을 빠르게 인식하고는, 2월 2일 이래 일련의 기사와 성명에서 우리의 분석을 전개하며 업데이트 했다. 이미 2월 5일 RCIT 성명에서 우리는 부르주아지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했다.

“RCI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히스테리가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a)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지배계급들이 자국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통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b) 또 각국 지배계급들은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애국주의 물이와 의심 물이를 위해 이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c) 중국 정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모든 희망을 걸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또한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d)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은 반중 배외주의를 조장하고 강대국들 간 현재 진행 중인 패권쟁투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일버 로스 미 상무

6) 이들 사건에 대한 개괄과 성격규정으로는, 개별 나라들에 관한 관련 성명들에 더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은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여러 RCIT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미국에게 기회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e) 마찬가지로 중국 밖의 반동 세력들도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인 이주자들에 대한 의심과 증오를 조장하고자 위기를 이용한다.

f) 지배계급은 최근 시작된 대공황의 '주범'을 찾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한다면서 취하고 있는 글로벌 대책들이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공황에 들어갔다. 진실은,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거의 다른 모든 대공황들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광란적인 이윤 물이가 거둬 되풀이해서 세계경제의 붕괴를 촉발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 성명이 발표된 이래 전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의 경고를 일백프로 확인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공격을 개시했다.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급격한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했다.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이 공격받고 있고, 국경이 폐쇄되고 있으며, 이주자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이 치솟고 있다.

지배계급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거대한 정치적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잘 알려진 경제학자 제임스 보튼은 며칠 전, 노동자·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공격의 촉매가 되었던 과거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위기 ("IMF 사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기 때 비로소 정부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개혁을 받아들일도록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⁸⁾

향후의 사태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배계급들이 몇 달은 아니더라도 몇 주 동안 글로벌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들의 목표는 이 시기 이후에 급격한 정치·경제적 '개혁'(개혁!) 실시를 노동자·민중에게 기정사실로 던져놓을 수 있도록 이 참에 반혁명 공격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밀고나가는 것이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뉴 리바이어던

역시 그들답게도 몇몇 국가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전시 상태에 비교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촉구했다.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6일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선포하며, "우리는 다른 군대나 다른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명백히 있다.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힘들지만, 진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¹⁰⁾ 각종 부르주아 매체들도 "우리는 공격 받고 있다"고 전시 분위기를 띄우고

8) 다음에서 인용. Bloomberg: The worldwide coronavirus pandemic will change the way we shop, travel and work for years to come. History shows us how, 15 Mar,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13/coronavirus-will-change-how-we-shop-travel-and-work-for-years?srnd=premium-europe>

9) Global Times: Fighting coronavirus is a people's war, 2020/2/5 22: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78655.shtml>; Yew Lun Tian: In 'People's War' on coronavirus, Chinese propaganda faces pushback, March 13,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hina-propaganda-a/in-peoples-war-on-coronavirus-chinese-propaganda-faces-pushback-idUSKBN2100NA>

10) Michel Rose, Richard Lough: 'We are at war': France imposes lockdown to combat virus, March 16,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macron-restriction/we-are-at-war->

있다.

이 같은 전쟁 언사는 자본가 국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록다운을 부과하고 경찰과 군의 집행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나아가 유럽 전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시작됐다. 마크롱은 10만 명의 경찰 병력을 풀어 프랑스의 거리를 순찰한다. 각국에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 업무를 인수한다. 어느새 정부들은 통신망을 통해 주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주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¹¹⁾ 보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확성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당국의 지시에 따르라고 경고하는 소형 모바일 로봇을 선전(深圳)시 거리에 배치한다. 이 같은 감시 조치로 드론도 배치한다.¹²⁾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일거에 “빅 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말이다. 자본가 국가가 이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 없이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은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들 정권은 팬데믹과 싸우는 데 집중하는 척 한다. 곧 그들은 다양한 “국내 안보 위협”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싸울 것이다. 미·중 간의 절전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비춰주는 맛보기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반복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또는 아예 “외국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왔다. 이번에는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온 것은 미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¹³⁾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건립이다. 블룸버그 통신 논평가의 말로 옮기자면, “전능한 국가”의 구축이다.¹⁴⁾

현 사태발전은 20세기의 맑스주의 이론가들이 구체화한 주요 테제를 완전히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예를 들어 레닌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 세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옳음이 증명된 명제다. 오늘 이 명제의 올바른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의 독점자본이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더 반민주주의로 됨에 따라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속화는 반민주적

[france-imposes-lockdown-to-combat-virus-idUSKBN2133G5](#)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Zeng Yi and Sun Kang: Fighting COVID-19 with AI: efforts and lessons from China, Global Times 2020/3/7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81846.shtml>; Andy Chun: In a time of coronavirus, China's investment in AI is paying off in a big way, 18 March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75553/time-coronavirus-chinas-investment-ai-paying-big-way>

12) 다음을 보라. Rebecca Fannin: The rush to deploy robots in China amid the coronavirus outbreak, March 2 2020, <https://www.cnn.com/2020/03/02/the-rush-to-deploy-robots-in-china-amid-the-coronavirus-outbreak.html>

13) Joseph Stepansky: Trump, coronavirus and the politics of a pandemic, 14 March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3/trump-coronavirus-politics-pandemic-200313174546799.html>

14) Pankaj Mishra: Coronavirus Will Revive an All-Powerful State. Much maligned in recent years, big government will come back—and with it, the potential for both greater good and evil, 17.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7/coronavirus-will-revive-an-all-powerful-state>

반동의 가속화를 낳는 바, 이는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이미 얼마 전부터 작동해온 기본 동역학이다.¹⁵⁾

현 사건들은 레닌의 또 다른 명제도 확인시켜준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가 국가와 독점체는 서로 간에 더욱 더 융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 과정”으로 성격규정 했다.¹⁶⁾ 이 국독자로의 전화 과정은 “군주제 나라에서만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연동된 국가장치의 비상한 강화 및 관료·군사기구의 전례 없는 증대”와 나란히 진행된다.¹⁷⁾ 또 볼셰비키 당의 주요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자본가 국가의 확대·강화 및 제국주의 시대에 그 역할 증대에 대해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이것은 뉴 리바이어던으로, 토마스 홉스의 판타지는 여기에 대면 애들 장난감으로 보인다.”¹⁸⁾ 실로, 이러한 제국주의 리바이어던이 지금 지배계급에 의해 — 팬데믹과 싸운다는 구실 하에 — 전속력으로 구축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상대적으로 폭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RCIT가 거듭 설명했듯이, 이 모든 것은 가속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 장기 패권국 미국 및 EU의 역사적인 쇠퇴와 중국의 대국 굴기로 특징지어지는 — 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고 있다.¹⁹⁾ 퇴락하고 있는 서방의 친 긴축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들이 그들 국가의료체계 — 이 유행병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 퇴락의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명백해지고 있다. 유럽연합도 전염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

15) 2012년에 채택된 RCIT 강령 <혁명적 공산주의 선언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을 보라. “(점점 더 참여해지는 모순으로 점철된) 계급 사회의 폭대기에 문어처럼 괴물 국가기구가 솟아오른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계급)와 민중을 억누른다. 이 국가기구 —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리바이어던 (지배계급의 야수) — 는 여러 모로 자본과 합체된다.” (9쪽,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16)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 387

17) 같은 책, 415쪽

18) Nikolai Bukharin: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p. 85,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19)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국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고, 그 회원국들은 오히려 서로에 대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제국주의 정부들이 더 이상 미국을 모델로 찾지 않고, 오히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들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에 원조와 조언을 구하고 있다.²⁰⁾ 이것은 중국이 선도적인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RCIT의 오랜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또 기존 강대국들의 이러한 쇠퇴가 조만간 세계 남반구의 피억압 인민들을 고무하여 그들의 오랜 제국주의 상전을 향해 반기를 들 것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반식민지 투쟁의 물결과 비슷하게).

한국: 일정한 예외

한국은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소 달랐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일정 정도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점은 중국이나 유럽 또는 그 밖의 나라들에 비해 국가 억압 조치가 훨씬 덜 했다는 측면으로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주민에 대한 대규모 록다운 같은 것이 없었다. 동시에 대량검사가 무료로 실시됐고,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진행됐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은 감염도가 큰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 현재까지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서와 같은 주민에 대한 대규모 록다운이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RCIT의 분석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이러한 다른 대응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1987년 이전 참혹했던 수십 년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국 인민들의 강한 기억이다. 대규모 록다운 같은 반동적 조치들에 대해 민감하며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2000년대 초 이래 그 역동성을 잃긴 했지만, 전투적 계급투쟁의 강한 전통이 존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주아 자유주의/“진보” 진영의 일부로서 주민 록다운 같은 국가 억압 조치는 자신의 지지 기반에서도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조치를 강제하기란 꽤나 어려웠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 주민들이 사회적 대응에서 규율 있게 행동한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오래지 않은 최근 시절에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러한 전염병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민감함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신흥 제국주의 국가로서 남한이 가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도 빼놓을 수 없다.²¹⁾

글로벌 계급투쟁과 노동자운동에 미치는 결과들

20) Joe Penney: As the U.S. Blames China fo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Rest of the World Asks China for Help, March 18 2020, <https://theintercept.com/2020/03/18/coronavirus-china-world-power/>

21) 남한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위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19년에 시작한 계급투쟁과 민중항쟁들이 대폭 가라앉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투쟁들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칠레, 이라크, 알제리, 프랑스, 홍콩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여러 대담한 시위들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러시아-이란-아사드 점령군에 대항하여 이дли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해방투쟁은 또 다른 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이 그 힘을 증강함에 따라 이들 항의시위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준 혁명적 정세가 지금으로선 마감하고 *글로벌 반혁명 정세*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같은 정세는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공격과 함께 반혁명적 공세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럽, 북미 일부, 중남미, 말레이시아).

물론 다른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도 존재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박살내고 투사·활동가 층 전체를 파괴하는 반혁명적 정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07년 6월 스톨리핀 반동 이후의 러시아, 1933년 독일, 1973년 칠레, 2013년 7월 3일 군사쿠데타 이후의 이집트가 그런 경우다. 이들 반혁명적 공격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인, 심지어는 역사적인 패배가 초래된 경우들이다.

현 정세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반혁명적 공세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노동자·민중 운동의 상당 부문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공세다. 그것은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의 일시적 퇴조와 함께 억압적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공세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체로 크게 누적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자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들어올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몇몇 파업, 또는 록다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박수치고 노래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전도를 보여주는 사태발전의 예들이다. 또 강대국들 간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 간, 국가 간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버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현재로서는 후면으로 밀려버린 듯이 보이는 거대한 모순들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왜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사태발전이 *역사적인 혁명적 시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RCIT가 여러 문서들에서 광범위하게 제시해왔듯이,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로 성격규정 되는 시기다. 이러한 쇠퇴·부후화가 불가피하게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과 끊임없는 전쟁 위험을 유발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중항쟁과 민중봉기와 혁명적 정세와 함께 반혁명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세계적 규모로의 이러한 근본적인 균형 결여가 바로

RCIT가 이 역사적인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하는 이유다.²²⁾

전염병과 대중적 히스테리와 국가비상사태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이 사라지지 않으며 사라질 수도 없다. 지배계급들이 반혁명 공세를 펴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체제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발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지금 더 강하게 치면 칠수록 노동자·민중의 반응도 더 강해지고 더 커질 것이다.

가능성 높은 또 다른 정치적 결과는 부르주아지 당파들 내 주요 분열과 재편성일 것이다. “강력한 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새 시기는 낡은 당들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세력을 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글로벌 사태는 노동자운동에도 큰 변동을 불러올 것이다. 지배계급들이 지난 몇 주간 조성해온 유사 전시 상황은 진실의 요소를 담고 있다. 실로 이 유사 전시 조치들은

22) 현재의 역사적인 혁명기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RCIT가 지난 몇년 간 발표해 온 연례 세계 정세 전망 문서들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11 January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RCIT: Escalation of Inner-Imperialist Rivalry Marks the Opening of a New Phase of Worl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April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2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14/>; RCIT: Aggravation of Contradictions, Deepening of Crisis of Leadership.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9.9.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september201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

애국주의적 일체감과 배외주의의 히스테리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당연히도, 과거 주요 전쟁들에서 그랬듯이, 이러한 배외주의로의 전환은 노동조합 개량주의 관료와 사민주의 당들 및 스탈린주의 당들의 사회애국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킨다. 이들 세력이 시류에 편승하여 자본가정부의 “국민통합”과 “애국주의적” 희생 요구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제로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노동자운동 내 이들 개량주의·사회배외주의 세력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팬데믹과의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로 인해 개량주의 당들이 쪼개져 그 이익이 — 또는 당 전체가 — 공공연한 부르주아 세력과 융합하는 것으로 (1991년 이후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결과할 공산이 아주 크다.

또 새 시기가 자칭 맑스주의 계열 내에 더 한층의 위기와 분열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이들 좌익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노동관료에 영합하고 있어서 — 지금 이 노동조합 관료는 대대적으로 우경화하고 있다 —, 정치적 투항과 그로 인한 조직 분열 및 와해가 예상된다. 요컨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목격할 수 있었던 이른바 좌파의 총체적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다. 이들 조직의 상당 부분이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의 대규모 록다운에 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실제로 일부는 그러한 반민주적 공격을 중심으로 지지하기까지 한다! 국가가 금지하기도 전해 필요한 회합과 집회를 알아서 취소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찬양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들의 비판은 사내 록다운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개별 자본가를 향해서만 겨누어지고 있지, 국가, 즉 이념적 총자본가의 반민주적인 록다운 정책 앞에서는 비판이 멈춰서 있다. 이들의 비판은 대부분 공공의료에 있어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 자체는 틀린 것이 분명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인 *정치적* 측면, 즉 지배계급의 *반민주적·배외주의적 공세*를 무시 또는 회피한다. 명백하게도, 록다운에 찬동하는 이러한 좌파는 계급투쟁에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아니, 이러한 친(親)록다운 좌파는 문제의 일부지 해결책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 좌파 부분들은 사회애국주의 물결에 합류하여, 현 반혁명적 공격 정세 속에서 지배계급의 가장 중요한 도구·장치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들은 *계급휴전* 정책의 기수들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초에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계급투쟁과 내란/국내전에 반대하여 제창한 저 악명 높은 “*국내평화 Bürgerfrieden*” 정책 말이다.

현 반혁명 정세에 특유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다른 아닌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과 개량주의적 좌파 세력이 국가 탄압과 록다운 정책에 앞장서는 채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위 활동가들과 투사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지배계급 정치공세의 반혁명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전투적 전위, 특히 지난해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 속에서 부상한 새로운 활동가 층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반혁명 정세 속에서 일시적인 퇴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활동가들은 새 정세를 다시 살피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제기된 정치적 도전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찾을 것이다. 또 중도주의 계열 내부의 위기와 재편성이 분립을 불러오고, 일부 부문들의 전진적 발전으로 결과할 가능성도 있다.

작금의 세계정치 전환의 원인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전진하는 강령적 길을 제시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활동가들이 맑스주의의 참된 혁명적 정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또

한 우리의 임무다. 우리는, 진정한 맑스주의는 리바이어던 좌파의 친 자본가국가 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RCIT는 수년간 주요 글로벌 사태발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혁명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왔다. 우리는 진정한 혁명적 세력의 통합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친 록다운 좌파를 날카롭게 비난하는 것이 전 세계 혁명가들의 임무다. 부르주아지의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공격 시기에 기본적인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는 자들은 계급휴전의 지지자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노동계급투쟁의 적들이다. RCIT는 친 록다운 좌파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공유하는, 그리고 반혁명 공세에 대한 통일적인 국제적 대응의 긴급한 필요에 동의하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우리와 함께 진지한 토론과 협력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선 5대 강령

RCIT는 노동자·민중 전위에게 현 시기 투쟁 강령을 기초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현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서 싸우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바탕하여 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를 몰수 수탈하고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중심으로 계획된 경제를 확립하는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이다. 그러나 당면하게는 코로나19를 엄폐물 삼아 진행되고 있는 반혁명적 공격에 맞서 방어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5대 강령에 투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에 대항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 “애국적 단결”과 외국인 혐오에 맞선 반배외주의

△ 공공의료체계의 급진적 확대 — 자본가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 전 세계 남반구 인민을 위한 대규모 국제 원조

△ 긴축 공세 저지

이 5대 강령을 기둥 삼아 당면 투쟁을 준비하자.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안한다.

* 록다운 반대! 집회·시위 등 민주적 권리 방어!

* 대량감시체제/경찰국가 분쇄! 민간 서비스에 군 투입 반대!

* 여행금지/이민통제 반대! 난민 국경개방!

* 이주자와 타국에 대한 배외주의 분쇄! 반중 배외주의 반대!

*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건강검진을 제공하라! 이러한 검진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의무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모든 잠재적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모든 여행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 무상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료진들로 구성된 국제 팀을 만들라! 이 분야의 모든 새로운 발전·성과는 전 세계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공공의료시설 및 병원 추가 건립!

* 사유 의료부문 (병원, 실험실 등)의 국유화!

* 전체 보건의료 부문을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자·피억압자의 통제 하에 둔다!

* 공중보건 보호 투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은 부자들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성독감, 콜레라, 에이즈 등과 같은 널리 퍼진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들을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하고, 자원을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

* 의약품, 의료장비, 식품 및 위생제품의 무상공급으로 반식민지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운동을 즉각 구축한다! 이런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조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국제적 동원에 힘을 쏟자!

* 기본필수품(식품, 위생청결품, 의약품)의 관리 및 공급을 위한 노동자·민중위원회 구성!

* 모든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무효화!

* 해고 금지, 임금삭감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 생산을 중단한 모든 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하의 국유화!

동지들, 형제자매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지금 행동에 나서자! 성경 신화에서는 신이 결국 괴수 리바이어던을 박살낸다. 오늘 세계에서는 혁명 세계당 깃발 아래 노동자계급과 피억

압자가 현대의 리바이어던을 거꾸러뜨릴 것이다. RCIT와 함께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자!

RCIT 국제서기국

코로나19와 싸우는 혁명적 행동강령!

노동자·피억압자여,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국가를 믿지 말자! 오직 우리 자신만을 믿자!

위기에 맞선 12개 조항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에 의해 야기된 팬데믹이 전 세계 여러 부르주아 국가들에 의해 록다운 실시, 민주적 권리 억압, 인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요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많은 자칭 좌파들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록다운 조치가 필요하며 지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틀린 얘기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 연구에서는 전면 록다운 시나리오를 현재 병상 및 중환자실 규모에 근거한 모든 조치들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적어도 5(!)개월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개월은 실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유행병이 꺾이는 최소 기간이다. 부르주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면 록다운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부르주아 정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도 못했고,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보건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지금 전 세계 보건의로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 하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불평하면 탄압이 들어온다.

그러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와 패닉을 퍼뜨리고 대대적으로 국가기구를 동원하는 것은 현 경제 침체의 진짜 이유 — 자본주의의 위기와 쇠퇴·부후화 — 로부터 완전히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몇 주 간의 록다운으로 지배계급은 “뉴 노멀”을 확립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코로나19 및 그와 유사한 팬데믹들에 의한 영구적인 위협을 받기로 우리의 민주적 권리가 대대적으로 축소되는 “뉴 노멀” 말이다.

RCIT는 일련의 기사와 문서들을 통해 록다운의 진짜 이유를 분석했다. 우리는 이 조치들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집회·시위의 민주적 권리 없이는, 우리는 현재의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여, 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싸울 수 없다. 또한 팬데믹과 성공적으로 싸우는 데 록다운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아래에는 현 보건 위기에 맞선 간략한 행동강령이 제시되어 있다. 팬데믹과의 투쟁에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최소강령이다. 경제를 소유하고 국가기구를 틀어쥐고 있는 지배계급이 권좌에 있는 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착취와 억압 없는 국제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열 때 비로소 해방은 가능하다!

다음 요구들은 노동자와 피억압자가 행동위원회, 노동조합, 민중 조직 등으로 스스로를 조직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대중이 자신의 투쟁 조직을 가질 때만 자본가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원조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RCIT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계급과 모든 피억압자들을 방어하기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동지들, 형제자매들이여, 지금 행동하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든 혁명가들에게: 힘을 합쳐 반격하자!

#1: 집회, 집회, 시위, 파업, 기타 민주적 권리의 금지를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거부

하자! 록다운에 반대하자! 일체의 감시에 반대하여 싸우자! 국가와 억압기구, 그리고 그들의 시종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해킹하여 재 프로그래밍 하거나 파괴하라!

#2: 국제 연대 캠페인을 조직하여 남반구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자! 이러한 연대 캠페인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등의 원조 공급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부채의 즉각 무효화를 위해 싸우자! 에이즈와 에볼라 같은 다른 질병들과 싸우는 것을 돕는 것도 캠페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누구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죽어선 안 된다. 모든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무료 예방접종,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이 현지 의료진과 노동자·빈민의 통제 하에, 그러나 자금 조달은 다국적 기업의 수탈 물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 감염 예방법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국제 노동운동과 피억압자 조직에 의한 광범위한 보건 캠페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자. 여기에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재채기하기, 얼굴 만지지 않기, 모임이나 공공장소 등에 참석할 때 입과 코를 가리기 등 적절한 방법이 포함된다. 적절한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보건의로 노동자가 지원하고 지도하는 행동위원회를 조직하자.

#4: 아픔을 느끼고 증상 (코감기, 기침 등)이 보이는 사람들이 직장 걱정 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조합 사업을 통해 돕자. 질병 시에 재정적 원조 모금을 통해 자영업 종사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중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강력하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의 일을 통해 각각 어떤 증상(달리는 코, 기침 등)도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기 위원회는 또한 질병 당시 재정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인 도시와 농촌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 임금삭감, 해고, 긴축정책에 반대하라!

#5: 증상으로 인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접촉하도록 공지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전화로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 식품, 위생용품 등은 필요한 경우 노동운동이 제공해야 한다.

#6: 노동운동과 피억압자 조직은 진보적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지원 자원봉사에 나서도록 조직하라.

#7: 진단키트, 호흡기 보호 장치 등의 대량생산을 요구하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 팀이 국제적으로 연구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내올 것을 요구하자. 그들의 활동은 노동운동에 의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제약산업과 의료장비 생산 업체에 대해 노동자 통제 하에 몰수할 수 있도록 시위와 파업을 조직하자. 사람들의 목숨이 사기업의 탐욕스러운 이윤 계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8: 60세 이상의 사람들과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 기타 전염병 등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동안에는 보다 짧은 시간 동안 타인과 함께 활동하도록 권장한다. 그들은 집에서 긴 만남 대신 다른 사람들과 더 자주, 그러나 더 짧게 만나야 한다. 친구, 가족 등은 자신의 위생과 예방관리에 엄격해야 한다.

#9: 사용한 의료물품을 채워 넣는 업무, 다른 의료 부서에 문서를 전달하는 업무, 음식물을 삼키는 데 지장 없는 환자들 밥 먹이는 업무 등 그 밖의 비슷한 업무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지원할 위생·예방 팀을 즉각 고용하여 이들 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 행정 업무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가능하면 숙련된 보건의료 노동자가 환자를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는 위임되어야 한다.

#10: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는 적절한 휴식과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부여되고, 24시간 내내 건강한 음식과 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면역력 약화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슈퍼리치에 대한 몰수 수탈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대적인 보건의료시스템 투자를 위한 정치파업을 조직하자! 집에 머물지 말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홀로 놓아두지 말자!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자!

#11: 배외주의적·반동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감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대·자위대를 조직하자. 정방대·자위대의 건강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정방대 성원들의 순환 교대가 아니라 추가로 정방대를 조직해야 한다. 탄압기구의 공격에 대항하여 집회와 파업 등을 보호하고 인종주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주자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정방대를 추가로 조직해야 한다.

#12: 우리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우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정치적 결집 투쟁과 활동에 집중하자! 모든 혁명가들은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혁명적 강령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국제서기국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노동자·피억압자: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을 믿지 말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0년 2월 5일

1. 온 세상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마법에 걸린 것 같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언론은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발 위험”에 대한 패닉 물이에 미쳐 있다. 일부 언론은 심지어 “황화(黃禍)” — 서구 식민주의 시대에 기원을 둔 인종주의적 색깔론 — 운운하며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긴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입국이 금지되고 있고, 모든 대륙의 항공사들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있다. 아시아계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적개심을 대놓고 표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두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자 오늘 5일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는 잔혹한 관료적 조치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한을 비롯한 적어도 15개의 도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록다운 하에 있다.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를 이용한다. 정권한테는 분명 그와 같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얼마 전부터 경기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9년 6월 홍콩에서 민중항쟁이 시작된 이후 부분적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히스테리는 이미 세계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 중국에서는 공장과 상점이 문을 닫고 있고, 운송이 끊기는 등. 경제가 마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이미 큰 폭의 폭락세를 겪었으며 1월 20일 이후 세계 증시는 1조5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지배계급들이 이러한 배외주의 히스테리를 계속 벌인다면 그 경제적 결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대할 것이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25개국에서 492명이 사망하고 2만4500명 이상이 감염됐다. 그러나 줄곧 사회는 더 많은 인명 손실을 일으킨 독감 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주의자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18 시즌의 전체적인 독감 유발 사망률은 유럽에서만 약 152,000명으로 추정되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중국에 대해 여행이나 무역 제한을 가하지 말 것을 각국 정부에 충고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공포와 낙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5. 전 세계적으로 지배계급들이 패닉 물이를 하는 데는 예방 조치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그 이유가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히스테리가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a)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지배계급들이 자국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망의 대대적인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b) 지배계급들은 또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의심 물이와 애국주의 물이를 하기 위해 이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c) 중국 정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모든 희망을 걸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또한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d)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은 반중 배외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강대국들 간 현 패권 쟁투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월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미국한테 기회라고 말했다.

e) 마찬가지로 중국 밖의 반동 세력들도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인 이주자들에 대한 의심과 증오를 조장하고자 위기를 이용한다.

f) 지배계급은 최근 시작된 대공황 ‘주범’을 찾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실제로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한다면 취하고 있는 글로벌 대책들이 불황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공황에 들어갔다. 진실은,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거의 다른 모든 대공황들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광란적인 이윤 몰이가 거둬 되풀이해서 세계경제의 붕괴를 촉발한다는 사실 말이다.

6. RCIT는 배외주의 히스테리에 대응하는 대중 속에서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이러한 예로 아시아인 이주자들을 방어하는 ‘난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 캠페인, 또는 패닉을 조장할 뿐인 널리 퍼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들의 정보 캠페인 등이 있다.

7. RCIT는 노동자·민중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단결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나쁜 의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 지배계급들의 캠페인에 맞설 것을 요구한다.

**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의한 우한 및 그 밖의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록다운 조치에 반대한다!*

**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체계적이고 온전한 건강검진 실시! 이러한 검진은 모든 이에게 무상 검진인 한편 의무 검진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중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대한 입국금지에 반대한다!*

** 모든 여행자를 위한 건강검진 및 감염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

** 대 중국 전면 여행·무역 제한 반대!*

**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이주자를 겨냥한 일체의 혐오 캠페인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회를 열자!*

**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와 예방접종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료진들로 구성된 국제팀을 만들라! 이 분야의 모든 발전은 전 세계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추가 의료시설과 병원을 지어라! (의지가 있으면 그러한 건설사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는지를 중국은 보여주었다!)*

**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투쟁에서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들에 들어가는 자금은 부자들에 대한 과세로 조달해야 한다!*

** 노동자통제 하에 제약회사들을 국유화하여,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콜레라, 에이즈 등과 같은 널리 퍼진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활용하라!*

RCIT 국제사무국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알메디나 귀니치,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0년 2월 2일.

“우한 바이러스”라는 딱지가 붙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WHO 정식 명칭: 2019-nCoV)가 현재 2주 이상 전부터 뉴스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여행 금지를 발표했고, 여기에 호주가 뒤를 이었다. 영국 같은 서유럽 나라들은 중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인원 대다수를 철수시켰다.¹⁾

선정적인 과장광고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먼저 이 현상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프랑스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 운동 (#Jenesuispasunvirus)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온 이주자들을 비롯하여 프랑스에 살면서 최근 배외주의의 기승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²⁾ 우리는 언론의 과장선전이 시작된 이래 아시아 각국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겪은 경험을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의사와 의료노동자,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제공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조치들에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결론을 끌어낼 방법론적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계급적 관점, 맑스주의적 세계관이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사건에서도 명확한 혁명적 입장을 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맑스주의 세계관이다. 결국 인간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확실한 사실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른바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이미 알려진 질병과 일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 이 세 질병 모두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人獸共通感染)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것은 세 질병이 동물에 의해 사람에게 (사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박쥐의 일부 종, 메르스의 경우는 낙타) 전파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중간

1) Travel bans plunge China into deepening isolation over coronavirus,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follow US in imposing near-total travel ban as foreign companies scale back activity. By Emma Graham-Harrison. The Guardian, February 1, 202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1/coronavirus-travel-bans-plunge-china-into-deepening-isolation>

2) 'I am not a virus': France's Asian community pushes back over xenophobia. By Caroline Pailliez, Johnny Cotton. Reuters World News, January 31,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health-france-sentiment/i-am-not-a-virus-france-asian-community-pushes-back-over-xenophobia-idUSKBN1ZU2PV>

숙주가 위에 거론된 동물과 인간 사이를 매개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체 세포에서도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단 감염되면 세 바이러스가 모두 사람 간에도 전파된다. 이 세 형태의 바이러스는 모두,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명명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일부다.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또는 그 이전에 환자 0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직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자 0번은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감염된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감염된 사람이 수산시장에 감염을 “가져와”서 거기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⁴⁾ 알다시피 2월 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11,955건의 실험실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질병률 (인구 집단 내 감염 건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59명으로, 이 숫자는 사망률 (통계 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가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진 못하지만 다소 설익은 상을 제시해준다.⁵⁾ 특정비영리활동 (NPO) 연구소 분자다양정보존 인터내셔널(MDPI)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발열, 마른기침, 호흡곤란, 백혈구 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일련의 질병이 관찰되었다. 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부터 체외막 산소공급이 필요한 중증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스 (치사율 10%)나 메르스 (치사율 35%)와 비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노약자와 기초질환자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덜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⁶⁾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초감염재생산 수 (R0; 한 명의 환자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가)가 3.11이라고 하지만, 아직 알려진 우한의 확진 사례는 약 5%밖에 안 된다.⁷⁾ 잠복기는 6일 전후로 보인다.⁸⁾

단순하게 말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와 같은 동물이 아마도 또 다른 숙주를 통해 인간을 감염시켜 발병하지만 그 이후 사람 대 사람 접촉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이나 재채기 비말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을

3) Human Coronavirus Types. B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A), <https://www.cdc.gov/coronavirus/types.html>

4) 다음을 보라. Figure 1 - Date of illness onset and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laboratory-confirmed 2019-nCoV infection, in: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By Chaolin Huang, Yeming Wang, Xingwang Li, Lili Ren, Jianping Zhao, Yi Hu, Li Zhang, Guohui Fan, Jiuyang Xu, Xiaoying Gu, Zhenshun Cheng, Ting Yu, Jiaan Xia, Yuan Wei, Wenjuan Wu, Xuelei Xie, Wen Yin, Hui Li, Min Liu, Yan Xiao, Hong Gao, Li Guo, Jungang Xie, Guangfa Wang, Rongmeng Jiang, Zhancheng Gao, Qi Jin, Jianwei Wang, Bin Cao. The Lancet, corrected version, January 30, 2020, page 3, <https://www.thelancet.com/action/showPdf?pii=S0140-6736%2820%2930183-5>

5)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2019-nCoV cases globally. By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February 1, 2020, <https://www.ecdc.europa.eu/en/geographical-distribution-2019-ncov-cases>

6) Return of the Coronavirus: 2019-nCoV. By Lisa E. Gralinski, Vineet D. Menachery. MDPI, January 24, 2020, page 2, <https://www.mdpi.com/1999-4915/12/2/135>

7) Novel coronavirus 2019-nCoV: early estimation of epidemiological parameters and epidemic predictions. By Jonathan M. Read, Jessica R.E. Bridgen, Derek A.T. Cummings, Antonia Ho, Chris P. Jewell. MedRxiv, Version 2, January 27, 2020,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1.23.20018549v2.full.pdf>

8) 다음을 보라. Table 1 -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CoVs, in: Nowcasting and forecasting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read of the 2019-nCoV outbreak originating in Wuhan, China: a modelling study. By PhD Joseph T Wu, PhD Kathy Leung, PhD MD Gabriel M Leung. The Lancet, January 31, 2020, p. 4, <https://www.thelancet.com/action/showPdf?pii=S0140-6736%2820%2930260-9>

통해 전파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독감과 유사하게 전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병 없이 바이러스와 접촉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지”) 숙주로 기능했는지는 절대적으로 불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독감보다는 더 치명적이라고 추정할 따름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행태다. 다른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초 감염 발원지는 우한 화난시장이 *아닌 것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바이러스 자체는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협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언론이 바이러스를 다루는 방식은 아주 예외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부르주아 언론보도의 가장 배외주의적인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 신문 르 쿠리에 피카르다. 1월 26일자 인쇄판에는 “황색 경보”라는 문구로 도배된 표지와 “신 황화”(新 黃禍)라는 제목을 단 논설을 실었다.⁹⁾ “황화”[황색 화근]라는 인종주의적인 문구는 서구 사회의 문화, 경제,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묘사하는, 서구 세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용어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식민주의 시절부터 매우 자주 사용된 초반동적 담론이다.¹⁰⁾

미국과 호주 외에도 싱가포르, 몽골, 과테말라와 같은 나라들이 중국인 방문자들의 입국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중국인 로마 관광객 2명(!) 때문에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크리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다른 시나리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에볼라든 다른 경우든 사람들은 여행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길이 열리지 않으면 비공식 길을 발견할 것이다.”¹¹⁾ 진짜 위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와 보나파르트주의다. 보안을 구실로 노동자·피억압자를 겨냥하여 지배계급이 취하는 “대책”, 조치야말로 실제 위협이고 화근이다. 중국 당국은 이미 우한 주민을 강제 격리시켜 시민들 간의 최소한의 교류만 허용했다.¹²⁾

중국의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 중심의 홍콩의 진보적 시위¹³⁾는 일부 파란리본 [‘친 경찰 파’]이 시위대열에 들어오면서 반동적 영향 아래 들어갈

9) Twitter status of Mr. Propagande from January 26, 2020, <https://twitter.com/MrPropagande/status/1221400655010631681>

10) The "Yellow Peril" Mystique: Origins and Vicissitudes of a Racist Discourse. By Stanford M. Lym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3, No. 4 (Summer, 2000), pp. 683-747

11) Coronavirus: US bars foreigners who recently visited China. BBC News, February 1, 2020,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1335278>

12) Diary of a Wuhan native: A week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A teacher from epicentre of deadly outbreak describes the growing anxiety under lockdown and anger towards government. By Shawn Yuan. Aljazeera, January 31,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1/diary-wuhan-native-week-coronavirus-quarantine-200131045152448.html>

13)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수도 있다.¹⁴⁾ RCIT는 홍콩의 시위대와 친경찰·친중 세력 간의 어떠한 협력도 강력히 반대한다. 게다가 일부 활동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배외주의 황화 캠페인과 비슷한 반동적인 비난을 쏟고 있다. 제국주의 중국 정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한을 비롯한 그 밖의 중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그 어떤 배외주의도 단연코 반대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 전개와는 별개로, 중국 제국주의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어떻게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는지도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수용할 1,000개 병상이 달린 완전히 새로운 응급병원인 후셴산 병원이 단 8일 만에 지어졌다!¹⁵⁾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접근방식을 보면, 아시아인들에 대한 배외주의와 전반적인 제국주의 간 긴장 고조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덜 국가자본주의적인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중국 국가의 효율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대응이 그들의 이해력 훨씬 저 너머에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대응에 대해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이란 것은 고작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얘기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위협인데, 중국이 그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 비용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식 로비스트 구조와 서방 제국주의 버전의 자유시장 이념의 지평을 넘어선다.

모든 자원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2009년 이른바 “돼지독감” [“신종 플루”]에 감염되어 불과 1년 만에 미국에서 8,868명에서 18,306명의 환자가 사망했던 당시 그와 비슷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 시민에 대해 단 한 국가도 입국 금지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151,700명에서 575,4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¹⁶⁾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작금의 히스테리가 중국인과 아시아인 일반을 겨냥한 배외주의에 다름 아님을 다시금 보여준다.

콜레라 발병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12일 간 68만6722명이 감염돼 1093명(주로 어린이)이 사망한 예멘 같은 가난한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다른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새삼 말할 것도 없다.¹⁷⁾ 또 다른 예는 200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총 22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이다.¹⁸⁾ 순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RCIT), July 3,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14) A Divided Hong Kong Confronts the Arrival of the Coronavirus. By Austin Ramzy. New York Times, January 28, 2020, <https://www.nytimes.com/2020/01/28/world/asia/coronavirus-hong-kong-border.html>

15) China just completed work on the emergency hospital it set up to tackle the Wuhan coronavirus, and it took just 9 days to do it. By Bill Bostock. Business Insider, February 2, 2020, <https://www.businessinsider.de/international/photos-wuhan-coronavirus-china-completes-emergency-hospital-eight-days-2020-2/?r=US&IR=T>

16) 2009 H1N1 Pandemic (H1N1pdm09 vir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ttps://www.cdc.gov/flu/pandemic-resources/2009-h1n1-pandemic.html>

17) Epidemic and pandemic-prone diseases Outbreak update - Cholera in Yemen, 12 May 2019, World Health Organization, May 12, 2019, <http://www.emro.who.int/pandemic-epidemic-diseases/cholera/outbreak-update-cholera-in-yemen-19-may-2019.html>

18) Disease and Mortality in Sub-Saharan Africa, Chapter 5: Causes of Death. By Chalapati Rao, Alan D. Lopez, Yusuf Hemed,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2298/>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계에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벌이는 그 어떤 히스테리에도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구 시민들, 그리고 제국주의 시민들 (비 서구 제국주의 일본, 러시아, 중국의 경우)의 목숨은 반식민지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만, 나아가 수백만 명의 목숨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오만이다.

혁명적 대답

이제, 모든 사실이 분명해지고 히스테리 뒤에 있는 편견으로 가득 찬 배외주의적 동기가 눈에 보이게 된 지금, 현 상황으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노동자계급은 아시아 (또는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을 겨냥하여 벌이는 어떤 형태의 배외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배외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신문 르 쿠리에 피카르와 황화 이데올로기에서처럼 공공연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중국 발원 질병과 “돼지독감”처럼 미국 발원 질병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이중잣대에서 보듯 훨씬 더 은폐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전면 여행 금지와 강제 격리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 밖의 질병들로부터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답은 모든 여행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 사례가 발견될 시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계급은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의료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모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노동자운동에 의해 관리, 통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 후센산 병원의 경우와 같은 속도로 의료시설과 병원을 지어야 한다.

셋째, 우한 등지의 모든 주민에 대한 전면 격리를 해제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건강검진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검진은 모든 이에게 무상 검진인 한편 의무 검진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방역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 결과는 의료진과 환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는 감염된 사람들을 겨냥한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해 노동자운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의 비용은 다국적 기업, 특히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되어야 하는 제약산업이 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시위와 파업·총파업을 통해 이 요구와 그 밖의 혁명적 요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로서 그 치료제는 의료전문가들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으로서 우리는 인류를 자유와 건강의 미래로 이끄는 계급이다. 우리는 지배계급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계급이다. 우리는 이 계급 체제, 온갖 형태로 수십억 사람들의 불필요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체제에 대항하는 혁명적 봉기를 위해, 세계혁명을 위해 싸우는 계급이다. 우리의 형제자매 누구도 더 이상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죽지 않는 세상 내오기 위해 우리가 싸우자!

저자 소개



저자 미하엘 프뢰브스팅 (Michael Pröbsting)은 196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14살 때 정치적으로 활동적이 되어, 16살 때부터 조직적으로 트로츠키주의 전투원으로 활동했다. 에르네스트 만델의 제4 인터내셔널 통합서기국의 멤버로 5년 간 활동하다, 1989년 2월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연합 (나중에 제5 인터내셔널 동맹으로 개칭)에 가입했다. 2011년 4월에 이 조직 다수파에 의해 전우들과 함께 제명당할 때까지 이 조직의 오스트리아 지부 집행부에서 (1989년부터), 그리고 1994년부터는 중앙 집행부에서 복무했다. 제명 직후, 그와 그의 전우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적 공산주의 해방동맹과 국제적으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을 결성했다. RCIT는 모든 대륙에 걸쳐 18개 나라에 지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자매 조직들이 있다. 그는 현재 RCIT의 국제서기로 복무하고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은 그의 국제 정치사업의 일부로서 여러 나라에서 긴 기간들을 보냈다. 1985년에 점령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1989-91년 정치혁명 과정 동안 동독에서, 1994년 영국에서, 2002년에 혁명기 동안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고,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북미의 많은 나라들에 체류하면서 노동자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들 속에서 경험을 얻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은 독일어와 영어로 쓴 많은 논설과 기사, 책자와 팸플릿의 저자다. 이 저작들 중 상당수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저서들이다.

* *Rosa Luxemburg – "Ich bin ein Land der unbeschränkten Möglichkeiten"* (공저, 1999)

*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es* (공저, 2008)

*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 *Die halbe Revolution. Lehren und Perspektiven des arabischen Aufstandes*
(2011)

*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2013)

- *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2014)
- *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2015)
- *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2016)
- *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2018)
- *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2019)